

초에 초고 초에 우고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

7

발간사

급변하는 국제 정세만큼 우리 농업 농촌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1차 산업의 노동 집약적 농업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6차 산업으로 변모하면서 젊은 창업농과 강소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의 폭넓은 활용과 원활한 교통망의 구축 등으로 우리 농촌은 불편하고 가난했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과 같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면서 젊고 세련된 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성장가능성과 농촌생활의 매력에 이끌려 젊음과 열정을 바치는 젊은 농부들이 늘어나면서 농업·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농촌이 제공하는 ‘퇴출 없는 일자리’와 ‘일상이 여행’이 될 수 있는 여유로움이 귀농을 꿈꾸게 합니다. 농촌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장년층뿐 아니라 농업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도전하는 젊은 층에게도 귀농·귀촌은 선택하고 싶은 삶의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주는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에게 먼저 정착한 귀농귀촌 선배들의 이야기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도시에서의 삶과 다른 삶이 존재하는 농촌에서 새로운 삶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과 작물 재배에 대한 지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농업의 여건과 최첨단 농업 속지도 필요합니다.

본 책자에서 소개하는 20인의 ‘귀농귀촌 우수사례 이야기’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예비 귀농인에게 참으로 소중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이 많은 분들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비 귀농인들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현수



CONTENTS



1

정책별



창업자금

충남 공주 - 심명숙	008
전북 완주 - 최숙	018

귀농귀촌교육

전남 광양 - 복채옥	028
전북 완주 - 서미옥	03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강원 홍천 - 허태위	048
-------------	-----

귀농닥터

충남 논산 - 전영식	058
-------------	-----

2

세대별



2030창농

충북 옥천 - 여진혁	070
경남 사천 - 박미선	080

4050전직

전남 함평 - 김정석	090
전북 김제 - 김미정	100

60이상 은퇴

충남 서산 - 주태관	110
경남 고성 - 백수흠	120



3

특성별



갈등해결

- 충남 청양 - 석두환, 박희순 132
- 경북 예천 - 김선엽 142

실패극복

- 경북 청도 - 김형표 152
- 전남 장성 - 이남국 162

6차산업

- 충남 부여 - 하미경 172
- 전북 정읍 - 김창희 182

마을공동사업

- 강원 홍천 - 이정호 192

ICT활용

- 전북 부안 - 최진섭 202

4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개 및 지원정책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개

- 귀농귀촌 준비절차 212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4
- 귀농귀촌종합센터 위치 216
- 귀농귀촌종합센터 목적 및 기능 217
- 귀농귀촌종합센터 사업소개 218

정부 지원정책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20
- 귀농인의 집 조성 221
- 귀농닥터 지원 서비스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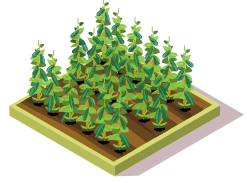
2018년 지자체별

- 귀농귀촌 지원정책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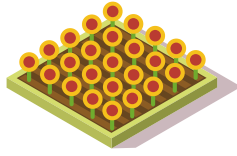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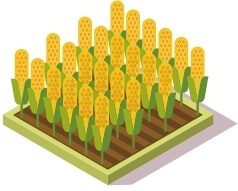
2018년 지자체별

- 청년층 귀농귀촌 지원정책 246

1



정책별



창업자금

충남 공주 - 심명숙 008

전북 완주 - 최숙 018

귀농귀촌교육

전남 광양 - 복채옥 028

전북 완주 - 서미옥 03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강원 흥천 - 허태위 048

귀농닥터

충남 논산 - 전영식 058

심명숙

충청남도
공주



끈끈한 조청의 情을 나누는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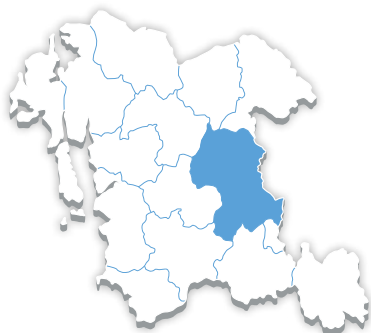
심청식품 심명숙 씨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공주. 이곳에서 나고 자라 공주시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자연 속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을 하며 '제2의 삶'을 살고자 귀농한 심명숙(55)씨는 우연한 기회에 구절초 조청 장인 심연순(55)씨를 만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자매처럼 성씨도 같은 이 운명적인 만남은 심청식품을 존재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과동 |
| • 귀농 전 직업 | 자영업 |
| • 귀농 결심동기 | 네 명의 자녀들에게 전통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
| • 귀농 선택 작목 | 조청(구절초, 생강) |
| • 귀농 연도 | 2013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농업대학교 농촌체험학과 |

귀농귀촌 Key Point!

'비움'의 미학이
희망찬 미래를 '채움'



유연한 인연이 인생을 바꿔준 계기

처음 귀농을 해서는 소일거리로 콩 종류나 고추 등을 소작하며 지인들과 나눠 먹는 정도였다. 그러다 귀농을 했으니 농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고 싶은 욕심이 나서 농업대학교 농촌체험관광학과 1년 과정을 듣게 되었다. 그 곳에서 지금의 심연순 대표를 만났다.

당시 심연순 씨는 구절초 농사를 지으면서 조청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는데 곁에서 지켜보니 조금 판매되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힘든 제조 공정에 비해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책정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심명숙 씨가 졸업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됐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데 정식으로 제조업을 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모르겠다 하더군요. 저도 마침 농사를 짓고 있으니 그럼 함께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농업대를 졸업하고 공주시 귀농귀촌협회에 함께 가입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면서 과연 제조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침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에 ‘멘토’와 ‘멘티’라는 제도가 눈에 띄었다. 심연순 씨가 구절초 농사를 지어 조청을 판매한 경력이 있어 신청하고 심명숙 씨의 멘토가 되었다.

“직접 밭에서 구절초 농사를 지으면서 기술을 전수 받았어요. 그러다 제조업도 센터 안에 소규모 창업 지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그것도 선정이 된 거예요. 훌륭한 기술을 가진 분을 만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되어 제조업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심청식품’이라는 브랜딩 지원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제 인생의 크나큰 행운이었어요.”

현재 심청식품의 부지는 심명숙 씨 소유로 품질 좋은 조청을 제조하기 위해 재정적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기술과 재정이 뒷받침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단계가 성공의 지름길

행운이 닥쳐올까 들어왔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뛰고 또 뛰어야 했다.

“공주시 귀농귀촌 지원을 받고 있는데 힘들다고 주저할 순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둘이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었지만, 그럴수록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오기가 발동했어요. 제조공장까지 약 2년간 각고의 노력과 준비 끝에 올해 1월 ‘심청식품’의 오픈식을 제대로 치렀어요.”

현재는 구절초와 생강 위주의 조청을 제조하고 있지만 공주의 명물 밤으로 만든 밤 조청을 6차 산업 주력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도 받고 있다.

“농사지은 것을 가공해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먹거리를 사가는 6차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공장은 작지만 소규모로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죠. 물론 아직 미흡한 점은 있는데 홍보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온오프라인 판매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직거래 장터로 직접 소비자와 대화를 하며 진정성 있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판로개척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정부 돈이 곧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허투루 사용하거나 사업을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청공장을 답사하며 밤 조청을 하다 문 닫은 곳도 찾아다니고 발품을 많이 팔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간혹 서류 준비가 서툰 탓에 퇴짜를 여러 번 받기도 하고 그럴 땐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버텼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 전설적인 케이스가 되었죠. (웃음)”

네 자녀를 둔 심명숙 씨는 귀농의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에게 농업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신세대 아이들이 농업을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조청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죠. 자녀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많이 해야 해요.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먹고 자연의 삶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뿐인 인생 ‘열심히, 즐겁게’, Bravo My Life!

심청식품의 대표 제품은 구절초 조청이다. 구절초는 여성들에게 특히 좋고 피를 맑게 해주며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효능으로 유명하다. 꽃은 차(茶)로도 쓸 수 있고 줄기, 뿌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작물이다. 구절초 조청 장인 심연순 씨는 대구에서 귀농한지 10년이 넘었다. 농업대를 다니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자극도 받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웠다.

“처음 문을 두드릴 땐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농업대를 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견문을 넓혀가니 재미있고 신바람 나요. 심명숙 씨를 만나 농촌 사람들을 대변해서 앞서 나가는 길을 개척하는 것도 무척 보람되고요. 몸도 아프고 여러모로 힘든 일로 친정이 있는 이곳으로 왔지만 지나고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귀농귀촌의 중요한 점은 내가 먼저 밖으로 나가서 이웃간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거든요. 그런 결심으로 농업대도 다니고 부녀회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딜 가나 밥 세끼 먹는 건 똑같지만 늘 자연 경관을 보며 사니 삶의 질도 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몸도 건강해졌다. 살수록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다고 심연순, 심명숙 씨는 입을 모은다. 설 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술센터 교육만큼은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귀농해서 땅 사고 기계도 사고 야심차게 시작하다 1년을 못 가고 실패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귀농인이 정식대로 지원 받고 멘토에게 기술을 전수 받아 공장을 세운 것은 귀농인 사상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어찌보면 롤모델이 된 셈인데 그래서 더 조심스럽긴 해요.”

심명숙 씨와 심연순 씨는 조청을 제조할 때 쓰이는 밤이나 찹쌀 등의 재료를 귀농인 농산물로 구매해 소비를 해주고 있다. 같은 농민으로서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가끔 지역 축제에서 농민들의 물건이 뒷전으로 전시되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다.





혹시 알아요. 몇 년 후 지나다보면
 아이들이 조청 만드는 체험을 이 곳에서 하고 있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방부제 들어가지 않은 전통 기법의 조청으로
 세월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예요. ”

정부 정책 개선과 지원 절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귀농인 학교에서는 3년 농사를 지으면 시에서 땅을 매입할 때 보조를 해 주고 가족이 오면 가족 수당도 지급된다고 한다. 농사지는 작물도 급식 같은 쪽으로 연결해주는데 그런 점은 본받아야 할 점이다.

“그렇게 해야 원칙적으로 터전을 잡을 수 있어요. 귀농인 학교나 공무원들이 허가내고 서류 작성하는 문제들도 조금만 도와주면 귀농귀촌인들의 기술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잘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라도 지역이 이 부분은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 부럽더라고요.”

현재 공장만 지어져 있는 심청식품은 6차 산업을 위한 체험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귀농하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법이라며 체험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심명숙 씨.

“혹시 알아요. 몇 년 후 지나다보면 아이들이 조청 만드는 체험을 이 곳에서 하고 있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방부제 들어가지 않은 전통 기법의 조청으로 세월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예요.”

처음부터 큰 꿈을 갖고 오지 말고 미리 와서 1~2개월이라도 귀농인의 집에 머물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하길 당부하는 심명숙 씨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 가슴 깊이 아로새겨졌다.

숫자로 보는 심명숙 씨 이야기

경영규모(2인)

| 공장부지 165㎡(건물 82.5㎡, 주차장 82.5㎡)
체험시설 60㎡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초청 체험시설, 귀농인 농산물 판매 부스

경영규모



2인

초기투자비



1억 원

연간운영비



약 500만 원

(2018년 예상)

연평균수입



1천 500만 원

(2018년 1월~6월 기준)

* 금년 창업한 사업체

최숙

전라북도
완주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회적 농업 발전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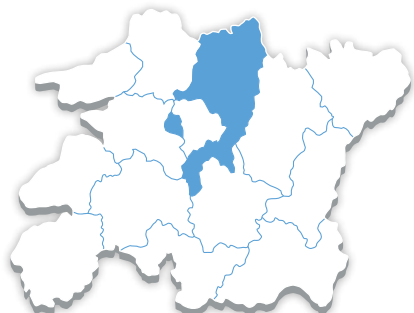
에버팜 협동조합 최숙 씨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에버팜 협동조합은 농촌 속 현대적인 디자인의 파이란 컨테이너 건물로 지어진 이 지역의 명물이다. 정원형 텃밭을 기반으로 지역에 등지를 틀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비즈니스와 활용해 해결하며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동체 운영자 최숙(36)씨를 만나 그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농업의 미래를 들어 보았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 · 귀농 전 직업 | 실업팀 검도선수 |
| · 귀농 결심동기 |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농업의 미래에 관심 |
| · 귀농 선택 작목 | 정원형 텃밭 |
| · 귀농 연도 | 2011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완주군 주관주최 성인대안학교 1년 과정 수료 |

귀농귀촌 Key Point!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환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에버팜 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양한 시도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완주 창업공동체로 정원형 텃밭사업을 시작으로 900평 남짓한 부지에 2층으로 쌓아올린 컨테이너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 텃밭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는 모티브를 보여주고 소소한 소품들까지 80~90%는 폐자원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경관농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에버팜 협동조합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숙 씨는 김도선수 출신의 독특한 이력이 있다. 그런 그녀가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연히 스승님을 통해 완주군의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과 제도적 지원 정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워낙 정책적인 지원이 탄탄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판단했죠. 완주군에서 설립한 성인 대안학교는 농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할 수 있는 일을 농업과 융합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사는 방안을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저 역시 1년 과정을 다니면서 농업, 농업경영학, 인문학, 자연요리,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를 배웠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태적인 삶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으며 자급 자족하고 지역민들과 어울리며 그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배움의 과정에서 환경적, 지역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기도 했다.

“보통 사람들처럼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지만 내가 나고 자란 터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고,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던 것을 반성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성립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귀농귀촌의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소한 ‘내가’ 먹을 것은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 조경이나 텃밭 가꾸는 농사일이 재미도 있고 적성에 맞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



에버팜 협동조합



EVER
FARM

농지 디자인으로 시작된 채소정원을 매개로 지역의 전통 안에 녹아있는
오래된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달아가고자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단순하게 조용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일상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과 눈길이 잠시라도 이곳에 머물며
작은 변화와 치유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다

원주군은 공모사업이 많은 편이고,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현실가능성이 낮다 해도 우선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라 선택하게 되었다.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의 멘토 선생님께 제안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조경을 28년 정도 하시던 분이 휴식차 내려오셨다가 교장선생님의 사업계획서와 기반 잡는데 도움이 되는 1천만 원 가량의 지원금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텃밭에 조경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원형 텃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6개월 정도 가꾸느라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매력 있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생각을 굳혔다. 물론 부모님의 반대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정규직 전환 가능한 회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는 말을 환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입니다.”

적성에 맞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있을까. 지금껏 에버팜 협동조합을 꾸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게다가 타이밍도 적절했던 것이 최숙 대표가 이 사업을 시작하던 다음 해에 서울에서 ‘도시농업’ 붐이 일기 시작한 것. 도시농업과 연결되는 사업이란 생각에 멘토 선생님도 서울을 오가며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 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스쿨팜이나 커뮤니티 주말 농장 등을 디자인하고 설계와 시공을 하면서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개인적으로 디자인 공부도 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사회적 농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정원을 접목한 정원형 텃밭을 기반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전시기획, 마을경관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에버팜 협동조합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확고하고 뚜렷한 그녀의 당찬 의지가 엿보였다.



점점 낙후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촌도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아름다운 농촌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체류형 농장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우연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일이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곳은 농산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아이디어도 기발하지만 그녀의 남다른 손재주도 감탄할 만하다. 여기저기 최숙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또 ‘농가의 식탁’이라는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계절 식재료로 만든 계절반상은 정갈하고 정성 가득한 건강식이라 반응도 매우 좋다. 이 역시 솜씨 좋은 조정림 멘토 선생님과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특별히 홍보를 하지는 않지만 아는 분 소개로 식사하고 싶다는 제의가 많아요. 농사를 짓고 식재료가 있으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 시작한 것인데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단, 어떤 이유로 오시는지 취지를 명확히 묻고 우리의 일을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에 한해서 20~25명 내외로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 있어요. 점점 낙후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촌도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아름다운 농촌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현재 에버팜 협동조합은 회원제 텃밭 분양과 체류형 농장을 위한 민박, 수확물 체험 후 식사로 연계하는 감성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Waste Upcycling), 감성 텃밭(Eco Garden), 농업 디자인(Local Design), 공정한 음식(Slow Food) 등 에버팜 협동조합만의 콘셉트로 일상의 작은 변화와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컨설팅도 하고 있다.



지역의 가치와 이야기가 있는 농촌만들기

에버팜 협동조합은 지역 어르신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최숙 씨가 이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귀농귀촌한 청년이 지역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보답하고 싶었죠. 화산 지역에는 다문화나 조손,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나 독거노인, 고령 어르신들이 많아요. 취약계층 아동과 함께 채소정원 가꾸기나 제철 요리 체험 등 건강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소외계층 어르신들께는 함께 식사하기나 답소나누기, 문화여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한 행복과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 같은 농업과 서비스, 복지를 융합한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인 사회적 농업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또한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식, 문화, 디자인, 재활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진입 촉진도 가능해 사회적 농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한편, 토종 씨앗에도 관심이 많은 최숙 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직접 키워 수확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자주 한다고.

“향후 식량주권의 문제도 클 것이라 예상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있지요. 앞으로는 우리 농촌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것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며 휴식을 나누는 공간, 지역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가치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핫 플레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여성 농업인의 바르고 진취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농업의 푸르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한다.

숫자로 보는 최숙 씨 이야기

경영규모(5인 기준)

| 총 2,975㎡ (콘테이너 330㎡, 커뮤니티 가든 99㎡, 정원형 텃밭 992㎡, 자연농법 유기농 재배 부지 1554㎡)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체험시설

경영규모



2인

초기투자비



3억 원

연간운영비



3천만 원
(2015년)



3천 500만 원
(2016년)



4천만 원
(2017년)

연평균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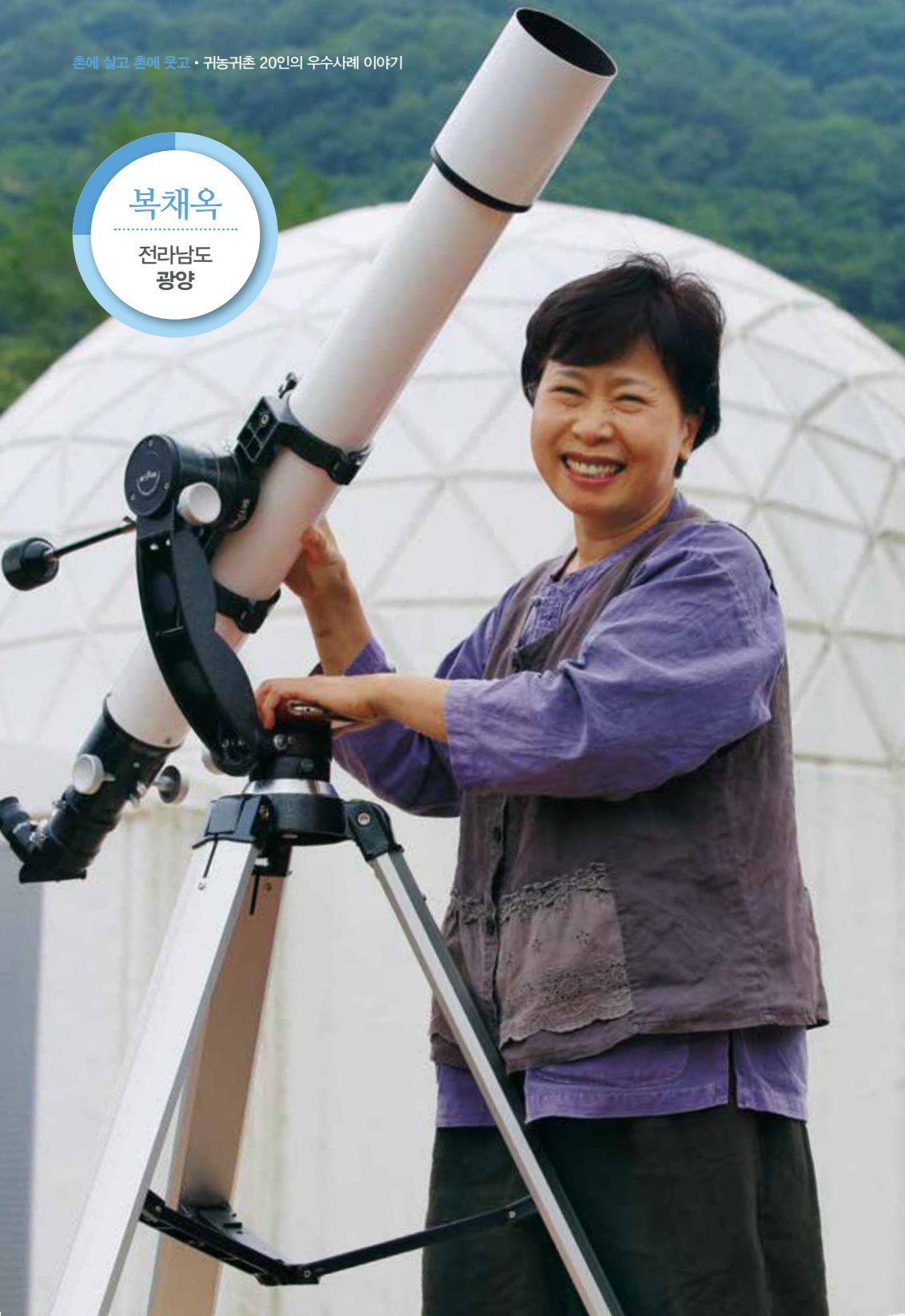
7천만 원
(2016년)



7천 800만 원
(2017년)

복채옥

전라남도
광양



“별 보는 귀촌생활 매력적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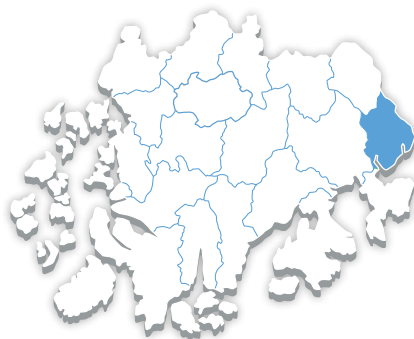
해달별 천문대 복채욱 씨

귀촌한 언니를 따라 2011년 전남 광양 봉강면으로 오게 된 복채욱(61)씨. 남편 정호준 씨는 그런 아내를 따라 3년 전 귀촌하면서 해달별 천문대를 지었다.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광양에서 펜션과 천문대를 운영하며 지내는 그들의 별 볼일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경기도 일산 |
| · 귀농 전 직업 | 전업주부 |
| · 귀농 결심동기 | 건강 회복과 자매들과 함께 살고자 |
| · 귀농 선택 작목 | 해달별 천문대, 펜션 |
| · 귀농 연도 | 2011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농촌체험지도자 과정, 광양시 귀농 · 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 |

귀농귀촌 Key Point!

배우고 익히며 나누는 것



네 자매가 함께 한 귀농귀촌

15여 년 전 큰언니인 현옥 씨가 광양 하조마을에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집을 사서 이사하였다. 그 뒤를 이어 5년 후에는 막내인 향옥 씨가 또 5년 후에는 둘째인 채옥 씨까지 합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인 영옥 씨까지 합류하여 네 자매가 한 마을로 귀촌한 보기 드문 이야기이다.

“저희 고향은 충남 청양이에요. 네 자매들 중 광양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 광양으로 오게 됐네요. 형부가 순천 법원에 근무하면서 인근 광양에 있던 하조마을의 보물 같은 집을 발견한 덕분에 오늘날 여기서 함께하게 됐어요.”

방광압으로 투병 중 공기도 좋고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광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 채옥 씨는 3년전 MBC를 퇴직한 남편과 함께 해달별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매 중 셋째인 영옥 씨는 아로마테라피 체험 박물관을 하고 있으며, 막내 향옥 씨는 하조나라 펜션을 운영 중이다.

꿈꾸던 귀촌생활이 현실이 되다

해달별 천문대 관장인 남편 정호준 씨는 어린 시절부터 별 보며 공부했고, 퇴직 후에는 개인 천문대를 짓는 것이 꿈이었다. 지난 2003년부터 별 보며 살자는 생각에 망원경을 구입해 쉬는 날이면 시골을 찾아다니며 별을 보고 살았다는 정호준 관장.

“퇴직하면 시골 가서 조그만 개인 천문대 짓고 동네 아이들한테 별자리를 가르쳐주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지요. 광양에 와서 보니 가까운 곡성에도 천문대가 있는데, 광양에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되어가는 집 마당 한 칸에 작은 별 관측시설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내가 아예 천문대를 짓자고 했습니다.”

이에 광양시 봉강면 하조산림생태마을에 2016년 1월 해달별 천문대가 준공되었다. 백운산 자락 중턱에 자리한 해달별 천문대는 정호준 관장이 직접 설





제한 개인 천문대이다. 천문대는 150인치 대형 스크린을 갖춘 교육관과 직경 6m의 돔형 천장 스크린 구조물의 플라네타륨관, 직경 3.1m의 천문 관측 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달별 천문대에는 마을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망원경 6대를 포함해 10여 대의 천체 관측 장비를 갖추고 있다.

“망원경은 아이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간편하면서 쉽게 고장 나지 않는 것으로 구비했습니다. 천문대를 지으면서 마을 주민들이 600만원을 기증해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천문대를 짓고, 펜션을 꾸미면서 그녀는 분주해졌다. 펜션 관리는 물론이고形形色색 피는 꽃을 가꾸며 물 주고, 툼툼이 밭의 작물들도 돌봐야 했다.

“저희 마을 사람끼리는 백조 생활이라고 합니다. 귀농귀촌 생활이 여유 있어 보이지만 물 안을 들여다보면 백조의 발이 썩 새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 손도 썩 없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생활이 정말 좋고 즐겁습니다. 아파트의 갇힌 생활은 이제 못할 거 같아요”

혼자 잘 사는 독불장군은 없다

10여 년 전 국가 예산 14억 원 프로젝트인 산촌생태마을 지정사업이 있었다. 먼저 정착한 언니 현옥 씨가 밭 벗고 나서 하조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는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체험관 착공이 난관에 부딪혔다. 체험관 부지를 마련할 땅을 사야 했는데 마을 자금이 부족하여 가구당 60만원씩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을 들은 네 자매들이 힘을 모아 500만 원을 마련해 마을에 내놓았다. 채옥 씨는 그때 당시 하조마을에 이사하기 전이었다고 한다.

“이사하기 전이었지만 저희가 머지않아 정착할 보금자리라고 생각했기에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마을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구요.”

이런 네 자매의 따뜻한 마음이 마을 주민에게 전해졌고, 천문대를 짓자 마을 주민들도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망원경을 기증한 것이다.



저희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지원금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지원금 먼저 생각하고 수익에 맞추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농사를 짓고 나중엔 힘에 부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

2011년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언니를 따라 광양으로 내려오자 기다렸다는 듯 마을 주민들은 복 씨를 따스하게 맞아주었다. 복 씨는 “누가 놓고 갔는지 말도 없이 대문 앞에 농사지는 감자며 고구마, 밤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마을은 너무 푸근하고 인심이 좋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아따~ 우리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 인디 자네들이 워낙 잘하니 그런거여~’ 라고 하시더라구요.”라며 웃음을 지었다.

복 씨도 마을을 위해 성의를 다했다. 체험관에 단체 손님이 오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집으로 손님을 안내해 마을 수익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해달별 천문대가 인기를 모으면서 마을 민박 손님도 늘었다. 마을과 상생 협력은 이 뿐만이 아니다. 복 씨는 천문대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협력금으로 내놓는다. 벌써 3년째 매달 10만원씩을 마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 아로마테라피체험관을 운영하는 동생도 체험 수익금을 3년째 내놓고 있다.

“천문대와 펜션 준공 당시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귀농귀촌자금으로 3억을 빌려서 이런 시설을 지은 거죠. 하지만 마을 주민과 함께 하기에 시설 운영도 잘 할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

광양에 남편보다 먼저 내려와 정착한 그녀는 농촌체험지도자 교육을 이수했고, 이에 귀농귀촌정착금을 대출 받을 자격도 갖추었다. 이런 그녀의 사전 준비 덕분에 남편 정호준 관장은 귀촌 후 바로 천문대를 열 수 있었다. 그녀는 교육을 받으며 예비 귀농인들이 저지르는 안타까운 실수도 목격했다고 한다.

“저희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지원금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지원금 먼저 생각하고 수익에 맞추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농사를 짓고 나중엔 힘에 부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기호도 바뀌기 때문에 특히 귀농인들에게는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복채옥 씨. 그녀는 “교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나태해지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복채옥 씨는 농촌사랑연수원에서 시행한 농촌체험지도자 과정을 수료했고, 광양시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컨설팅 및 관광농업과 영농설계요령 등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그녀는 요즘 감물염색의 매력에 빠져 있다. 천연염색이 주는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돼 귀농귀촌인 몇몇이 모여 체험교실도 하고 있다. 그녀의 감물염색 솜씨는 해달별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펜션을 방문하면 볼 수 있다. 소파를 감싸고 있는 염색천과 펜션 곳곳을 장식하는 염색 작품이 그녀의 손길로 완성됐다.

“2016년에는 천문대 방문객이 1천여 명을 넘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많은 방문객이 찾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이면 충분합니다. 고객을 진정으로 대할 수 있을 정도의 방문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천문대를 찾는 어린 고객 가운데 천문학자가 나오면 더욱 좋겠죠.”

하늘의 별을 좋아해서인지 부부의 미소도 하늘만큼이나 푸르고 그 마음도 넉넉했다.

숫자로 보는 복채옥 씨 이야기

경영규모(2인 기준)

| 교육관 132㎡, 펜션 79㎡,
천문대(플라네타륨관 19㎡, 관측미니돔 9.9㎡)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교육관, 플라네타륨관, 천체관측장비 등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5억 원
(시설투자비 등)

연간운영비



5백만 원
(펜션+천문대, 보험료 및 전기료)

연평균수입



1천만 원
(2016년 기준)

서미옥

전라북도
완주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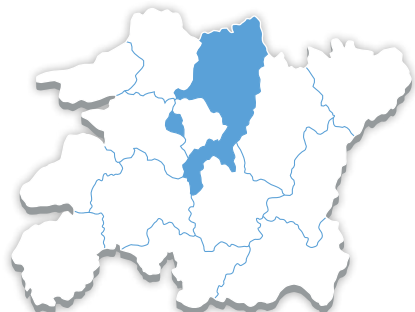
인씨네 농장 서미옥 씨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미옥(51)씨. 그녀는 자신을 ‘흙을 밟지 않는 농부’라고 소개한다. 800주나 되는 블루베리 나무가 자라고 있는 서미옥 씨의 비닐하우스 농장에 들어서면 좀처럼 흙을 찾아볼 수가 없다. 블루베리가 자라고 있는 고랑 사이로 잡초 매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잡초가 났고 올라올 틈을 내주지 않는다. 새로운 재배 공법을 도입한 서미옥 씨의 블루베리 농사 노하우에 대해 들어봤다.

- 귀농 전 거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귀농 전 직업 KT 팀장
- 귀농 결심동기 백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 귀농 선택 작목 블루베리
- 귀농 연도 2015년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방송통신대학 농학과 편입, 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농수산대학 평생교육원 수료, 로컬푸드 가공교육(현)농업마이스터대학 블루베리학과 재학중

 **귀농귀촌 Key Point!**

비전 있는 평생직장



잘 자란 블루베리 나무 800그루는 제 농사 성적표예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서미옥 씨의 블루베리 농장은 진입로부터 남다르다. 서미옥 씨 모녀가 직접 그려 만든 입간판이 가장 먼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미옥 씨는 블루베리 하우스 시설 바로 옆 자신만의 아지트인 작은 사무실에서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아준다.

“풀 속에 벌레가 숨어산다고 해요. 그래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제초 매트
를 설치했어요. 풀이 안 나니까 일손도 줄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 좋아요.
가능하면 사람 손 가는 일을 줄이려는 저만의 농사 스타일이지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엄청 잘 자랐잖아요. 나무가 건강해야 많은 과실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영양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요”

농장 주인의 성적표를 말해주는 듯 과육을 알알이 매달고 있는 블루베리 나무 사이에서 풀 한포기 없이 깨끗하다. 서미옥 씨는 흙 안 밟는 농부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농장 입구부터 현대적인 농법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신세대 농부다. 이렇게 베테랑 농부가 되어 있는 그녀가 처음부터 농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녀는 정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농사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기존 관념에
얽매어서 관행농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기존 농법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서 새로운 농법을 하
얀 도화지처럼 잘 받아들여지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저는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
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또 시골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과감했던 것 같아요.”

남다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블루베리
즙을 맑은 주스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그녀는 생과를 통째로 갈아 넣
은 걸죽한 퓨레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몸에 좋은 과일이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신만의 비법을 찾아낸 것이
다. 지금은 매월 집으로 주문하는 단골고객도 많고 한번 맛보면 재주문이 이어
질 만큼 블루베리 즙에 대한 반응이 좋다.







백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가 하는 농사일이 좋아 보였어요.
가족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도
행복해하시고 늘 마음이 여유로우셨거든요. ●●

백세시대를 살려면 백세까지 일해야 하잖아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백세까지 산다는 말들이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지는 시대이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정년퇴직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서미옥 씨도 백세까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귀농 전에는 KT에서 근무했어요. 대학 4학년 때 공채로 입사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회사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실적에 쪼들려야 했어요. 또 젊은 신입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줘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삶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삶에 대해 고민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서미옥 씨는 자타가 인정하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직장인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인 딸에게 제대로 신경을 못 써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을 포함한 가족 누구도 행복한 것 같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명예퇴직이 이 사회를 휩쓸고 가던 시기에 20년 4개월 동안 재직한 KT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과감히 귀농을 선택한다.

“백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가 하는 농사일이 좋아 보였어요. 가족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도 행복해하시고 늘 마음이 여유로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최고 품질의 블루베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서미옥 씨는 농사는 변화무쌍한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일이라 성공과 실패를 예견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따라서 식물의 생리를 이해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귀농하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정을 다 쏟아 붓는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물건에 매료되어야 하는 것처럼, 농사도 마찬가지이다. 나무에 비료를 줘야 하는데 왜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비료를 제대로 줄 수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료를 어떻게 줘야 하나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충 뿌리면 된대요. ‘대충이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뿌리면 된대요. 저는 도무지 이런 ‘대강’의 농법을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며 흔히 하는 말이 갖은 양념에 손맛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이며 후배 귀농인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농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방송통신대 농학과 3학년에 편입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야 좋은 농사꾼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그녀의 공부는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방송통신대학교를 시작으로 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블루베리학과, 농수산대학 평생교육원, 로컬푸드 교육에 이르기까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그녀의 공부는 단순히 이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공부라서 더 빛을 발한다.

자연의 이치를 터득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통해서 터득한 원리는 잔뿌리가 비료를 흡수한다는 것. 잔뿌리 위주로 비료를 줘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충 보다는 식물에 비료가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로또 당첨돼도 블루베리 농사 지을 것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은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들어도 농사 일이 싫지 않다는 서미옥 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다른 사람들은 돈 벌면 농사일을 그만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라서 돈하고 상관없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로또에 당첨돼도 이 일을 계속 하겠다고요. 이 일이 재미있고 저를 행복하게 해 주니까요.”

서미옥 씨에게는 블루베리 농장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꿈 하나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30년 후에 자녀에게 블루베리 농장을 물려주고 싶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더 편리하고 좋은 농법을 많이 도입해서, 나중에 자식들이 물려받았을 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식들이 먼 훗날 회사 일에 지쳐 삶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자신이 정성스레 가꾼 농장을 물려주겠다는 멋진 꿈을 블루베리 열매처럼 달콤하게 익혀가는 중이다.

또 하나 귀농을 하고나서 좋은 점은 남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통 소재가 많이 생겼다는 점이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지쳐있는 상태여서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농사 이야기를 하면서 새록 새록 애정이 솟구치고 있다.

귀농하면서 한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바람이 생겼다면 멘토·멘티 활성화 부분이다. 귀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애로사항은 정착하기까지 걸리는 2~3년 동안에 고정수입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멘토·멘티 제도는 멘토로부터 농업기술도 배우고 또 힘든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작지만 일정 금액을 멘티들에게 지원해주는 점이다. 1년 정도라도 월 50~60만 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름 햇살에 달콤하게 익어가는 블루베리처럼 서미옥 씨의 30년 후 꿈이 멋지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숫자로 보는 서미옥 씨 이야기

경영규모(1인 기준) | 비닐하우스 1,980㎡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블루베리 재배기술, 온도 습도 관리기 등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1억 6천만 원

연간운영비



8천만 원
(2015년)



1천만 원
(2016년)



3천만 원
(2017년)

연평균수입



1천만 원
(2016년)



5천만 원
(2017년)

허태위

강원도
흥천



초보 농부, 청정지역에서 꿀벌과 조우하다



홍천꿀벌마당 허태위 씨

28년간 대기업 마케팅 직무에 종사하며 농작물은 고구마 정도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생활이 익숙했던 허태위(59)씨. 그런 그가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 청정지역 홍천의 명품 꿀 생산에 도전하며 예비 양봉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은퇴 농업인으로서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그의 스토리를 들어본다.

· 귀농 전 거주지역

· 귀농 전 직업

· 귀농 결심동기

· 귀농 선택 작목

· 귀농 연도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경기도 분당

대기업 마케팅기획

퇴직 후 생산적인 일을 하며 활기찬 인생을 보내기 위해 양봉

2017년

귀농귀촌종합센터, 신한대, 산림아카데미,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에덴양봉원 중급과정, (현)강원대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재학중

☑ 귀농귀촌 Key Point!

귀농귀촌 농부는
자기만족이다!



도시 근교로 귀농 결정, 저장성이 우수한 꿀 선택

경상남도 합천이 고향인 허태위 씨는 도시생활을 지향하는, 도시생활에 최적화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강원도 홍천 산 아래에 그림 같은 집까지 지으며 벌들과 매일 마주하게 된 것일까.

“2015년 퇴직을 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아내와 의논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닌데 제 성향을 가장 잘 아는 아내가 사업보다는 지출을 줄이며 생활하자고 제안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려 했지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보니 그동안의 인간관계들을 도저히 포기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성격상 분당에서 가만히만 지낼 수도 없고… 여러 여건을 따져보다가 서울 근교인 이곳으로 자연스레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봉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그 이유는 아주 뚜렷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꿀은 저장성이 매우 우수해요. 제가 귀농 양봉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받았는데 그때마다 강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농부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파는 게 문제’ 라는 거예요. 주변에 귀농하신 선배들을 봐도 판매에 애를 먹어 지인들에게 나눠 주거나 버리기 일쑤더라고요. 판매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저장성이 5년, 10년은 문제없는 꿀이 작목으로서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허태위 씨는 자녀들이 어릴 때 양봉이 발달된 호주로 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어 자주 방문하면서 양봉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구상을 틈틈이 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귀농 결정 후 양봉을 위한 부지 물색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양봉은 터가 달라야 해요. 농약 뿌리는 작물과 함께 쓰면 벌이 죽고, 대량으로 할 경우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농후하죠. 무엇보다 남향이면서 바람도 잘 통하고 산 귀퉁이에 붙은 땅이 양봉 터로는 최고인데 그런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올해 2월, 집에서 차로 7~8분 거리에 양봉하기 좋은 조건의 농지를 찾아 1천 평을 5년 임차했어요. 양봉 적지를 찾고자 계속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귀농은 절대 혼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해야 할 일의 밸런스를 맞추면
뭐가 됐건 하나는 완성이 되더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인지 부부끼리 많이 하시죠. 

전문가들도 인정한 이곳 홍천군 서면 두미리는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을 유기농 매장에 납품할 정도로 친환경 농업 지역이다. 그래서 보자마자 양봉에 제격이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결정했다. 양봉 외에 밀원식물인 블랙커런트와 옥수수, 고구마 등도 재배중이고 1백 평 정도의 터가 남아서 주로 ‘귀촌’이신 동네 주민들에게 나눔도 했다.

“이번 가을부터 꿀이 나오면 작게나마 꿀 수입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대여해주면서 꿀 수확 후 구매해 주면 좋겠다 하니 기꺼이 응해주셨어요. 친환경 재배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으니 믿고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사는 것도 행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내조하며 남편의 귀농에 일조한 아내 하유경 씨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하유경 씨 역시 홍천군농업기술센터 귀촌농업과를 다니고 있다.

둘이서는 못할 게 없는 귀농생활

“양봉을 하면 부산물이 생기잖아요. 양봉산업의 핵심 3가지인 꿀, 프로폴리스, 화분(비폴렌) 등을 넣어 비누나 초, 핸드크림 등을 만들어요. 교육받으며 배운 기술인데 향후 부업이 되겠죠. 화분은 천연 비타민으로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꿀에서 나오는 천연 밀랍으로 만든 초는 인체에 무해해요.”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꿀벌박사의 아내답게 똑 부러진 답변 일색이다.

귀농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둘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내의 권유로

귀농을 시작했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귀농은 절대 혼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해야 할 일의 밸런스를 맞추면 뭐가 됐건 하나는 완성이 되더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인지 부부끼리 많이 하시죠. 부부애도 좋아지고요.(웃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나는 행운아’

양봉을 결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러 다니면서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큰 가이드라인을 얻어 유용했다는 허태위 씨.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다니면서 텃밭도 직접 길러보고 기초적인 농업지식과 기술을 거의 무상으로 배우며 다양한 인간관계까지 얻게 되어 뿌듯하다는 그는 농기구 운전 기술을 숙련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인건비가 비싸서 웬만하면 손수 해결해야 하는 귀농생활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1천 평을 수작업으로 관리하기란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잠시 휴직중인선 홍천군기술센터 황수근 서부지소장에게 인공분봉방법도 전수 받고, 벌을 구매할 때도 도움을 받았어요. 게다가 의도치 않게 그 분의 양봉 조수가 되어 제대로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멘토 덕분에 벌통을 5통에서 10통으로 늘렸다는 그는 벌과 꿀, 화분을 주요 산물로 할 계획이다.

“제 꿈은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 양봉으로는 결과물이 없지만 저와 아내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한 결과물이 바로 이 집을 지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했으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담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강의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했고, 홍천에 귀농귀촌하려는 예비인력들을 교육하는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현장탐방 코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집을 짓는데 3억 정도 들었는데 주택지원자금으로 2%의 낮은 이자로 7천 500만원을 지원 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귀농의 마음가짐은 ‘마음을 비우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양봉농가의 최대 수확기는 4월부터 6월까지다. 교육을 받았지만 현장하고는 완전히 달라 꿀 하나 따지 못하고 별한테 좋은 일만 했다. 본격적인 벌농사에 대한 수입은 내년부터로 잡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조금해 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

“벌 한통에 3만 마리가 들어가는데 5통에서 10통으로 늘렸고 가을쯤에는 15통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판매를 하지 않아 수입이 현금화 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수입이 보이지 않을 뿐 계획적으로 수입이 가능되는 건 있지요.”

내 인생에서 잘한 일 중 하나, ‘양봉’

허태위 씨는 공익성이 강한 매개충인 벌이 환경오염과 온난화 등으로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벌이 사라지면 지구는 4년 만에 멸망한다 할 정도로 벌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이 들어 큰돈을 벌 것이 아니라면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양봉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양봉은 일반 농사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벌이 보온동물이라 활동성이 약한 기온이 낮은 새벽이 일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새벽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오전 10시 이후 부터는 자유시간인 셈이고 오후 4~5시에 다시 가서 덮개를 내려준다던지, 벌에 농약 피해는 없는지 등 보살피고 저는 퇴근을 합니다. 순수 농업과 비교해 노동력 투여도 적은 편이고요. 내 몸만 건강하면 큰 수입은 아니어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내의 핸드메이드 작업과 스토리텔링도 되고 장점이 아주 많죠.”

아내와 함께 직접 구상하고 설계한 집도 남향이라 채광도 밝고,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데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기분 좋게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허태위 씨. 귀농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새삼 느끼며 부러움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꿀벌을 살뜰히 보살피는 꿀벌 박사의 본격적인 큰 수확을 기대해 본다.

숫자로 보는 허태위 씨 이야기

경영규모(1인 기준) | 3,300㎡, 컨테이너 1채, 양봉 10군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농기계 운전 기술, 비가림 시설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5천만 원

연간운영비



약 1천만 원
(2018년 예상)

전영식

충청남도
논산

교육 농장

굿모닝



딸기농원

☎ 010-5435-7796



굿모닝딸기농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딸기 지역품목실습장

사업원에

굿모닝딸기농원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식품 ICT 융복합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Agriculture Meister

원예(딸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교육청 인증

우수 농촌체험학습장

굿모닝딸기농원

충청남도교육청



딸기체험 농촌 교육 농장, 인큐베이터팜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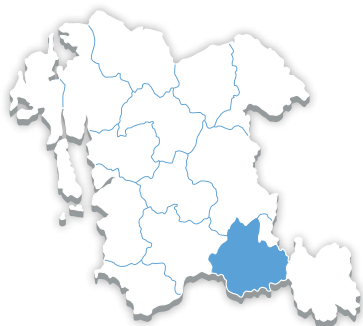
굿모닝 딸기농원 전영식 씨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실패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귀농닥터 정책이다. 귀농닥터는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과 귀농귀촌을 이제 막 시작한 귀농 초보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귀농귀촌 선배들로 구성된 상담 자문 서비스이다. 귀농 후배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 오늘도 주경야독으로 공부하고 있는 전영식(61) 귀농닥터를 만나러 논산 양촌에 있는 굿모닝 딸기농원을 찾았다.

- 귀농 전 거주지역 대전광역시
- 귀농 전 직업 토마토 농사, 치킨 사업
- 귀농 결심동기 평생 직업을 찾아서
- 귀농 선택 작목 딸기
- 귀농 연도 2006년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대학, 품목특화교육, 스마트팜 교육 등

귀농귀촌 Key Point!

귀농은 끊임없는 도전이다!





하늘과 동업하는 농사, 끝없는 공부만이 답이다

체험객들과 교육생들을 마중하는 굿모닝 딸기농원 간판이 ‘논산시 농촌 교육 농장’이라는 피켓을 들고 입구에서부터 손님들을 마중하는 분위기다. 간판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 내려가면 체험장으로 가는 길이 비닐하우스 통로를 따라 방문객을 맞아준다. 살그머니 들여다본 교육장 안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탁자가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다.

“딸기는 가격 등락폭이 크지 않고, 9월에 정식해서 11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 다음해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 생과가 없는 작목입니다. 특히 논산은 기후가 딸기 농사에 적합하고, 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커서 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산시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된 굿모닝 딸기농원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체험교육장이다. 이 농장이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까지는 주인장의 끝없는 학구열이 있었다. 전영식 멘토는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시작으로 온갖 딸기 관련 교육을 다 챙겨 다니는 자타 공인 딸기 농사 전문가이다. 그는 농업대학을 수료하고, 지자체에 개설되어있는 농업대학에서 딸기 농사와 귀농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전국에 보급한 딸기 고설수경재배 기술의 선구자

“저도 처음에는 조부님하고 대전 가수원동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다가 지인의 권유로 청주에 가서 치킨 체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차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귀농을 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토마토 재배를 생각했다가 이곳 양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목을 딸기로 변경했습니다.”

농작물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이제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굿모닝 딸기농원 딸기들은 연중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체험객과 교육생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익어간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농장 주인의 열정적인 딸기 농사 강의가 딸기의 당도를 높여주는 자양분인 셈이다. 이처럼 누구보다 딸기 농사의 선구자 격인 전영식 멘토는 딸기 고설수경재배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인공이다.

“수경재배 기술을 전국에 보급하게 된 계기는 작목반 회원들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데, 제 농장에서 수확한 딸기가 다른 농가에서 수확한 딸기보다 품질과 수확량이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농사 비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어요. 이 모임이 커지면서 ‘전국수경재배연구회 스터디그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6년째 하고 있는 ‘전국수경재배연구회 스터디그룹’은 중국, 제주도, 강원도, 철원, 파주, 인천, 진도, 해남에서까지 찾아오는 전국 모임으로 성장하여 회원만 300명이다. 스터디 모임은 그 이름처럼 각자의 농사 경험과 농사 정보를 교환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영식 멘토가 처음부터 고설수경재배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귀농 첫해인 2006년과 2007년에는 토경재배를 하다가, 2008년부터 고설수경재배로 전환했다. 수경재배는 노동력 절감효과를 비롯하여 수익성과 수량성이 증가하는 한편, 영양관리와 환경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큐베이터팜, 귀농닥터를 찾으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설수경재배 기술 컨설팅 전문가가 된 전영식 멘토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귀농 초기에 딸기 농사를 배우러 선도농장을 찾아다녔는데 일손이 바빠서 그런지 쉽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귀농 후배들에게 제가 경험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가감 없이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귀농 멘토를 자청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컨설팅을 나갔다가 성공한 멘티들의 딸기농장을 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전영식 멘토가 현재까지 귀농닥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멘티들은 약 10명 정도이다. 멘티로 다녀간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아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은 사람은 지난해 만난 진재용씨다. 멘티로 왔던 재용씨는 굿모닝 딸기농원에서 매일 살다시피 하면서 딸기 농사를 온몸으로 익힌 주인공이다.

“멘토 멘티 만남이 5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재용씨는 저하고 200일 이상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올해는 3명의 멘티와 만났는데, 그중에 경북 경주로 귀농하는 신동욱씨는 30회에서 40회 정도 만났습니다. 멘티들은 멘토 농장에 찾아오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저는 언제라도 찾아와서 배워가라고 개방해놓고 있어요.”

전영식 멘토는 굿모닝 딸기농원을 ‘인큐베이터팜’이라고 표현한다. 초보농부를 길러내는 교육을 자청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 찾아오는 귀농인들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만큼 배워서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멘티로 만난 신동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전영식 멘토의 농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귀농할 때는 내 전직에 대한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도시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였었다는 생각 때문에 농사를 지으러 오면서 농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를 버리고 초보 농부라는 자세로 바닥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다보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귀농 후배들에게 제가 경험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가감 없이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귀농 멘토를 자청 했습니다. ●●

또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러서 이것저것 두서없이 접목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다보면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 많은 정보 중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차분히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귀농 선배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귀농 노하우

귀농 과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일중 하나가 원주민들과의 갈등이다. 처음에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경계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이 과정에서 측량에 거부감을 가지는 원주민들은 혹시라도 자기 땅을 빼앗아가려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생겨난다.

“시골은 집성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에 귀농인에 대한 거부 정서가 형성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서 귀농 배경을 설명하고, 땅을 사면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냐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측량부터 하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지 땅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데 그게 왜 나쁘냐며 대변해주게 되거든요.’”

전영식 멘토는 지역 토박이 어르신들의 입을 빌려서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기부금도 내놓으면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 또, 마을 이장을 비롯하여 인근 마을 이장들을 찾아가서 친분을 맺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다면, 시골에서는 이장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많은 금액의 귀농 용자를 받아서 시작하게 되면 용자 상환시기에 빚쟁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계획에 따라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차츰 넓혀가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선도농가에 가서 1년간 농사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귀농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2006년에 논산시 양촌면으로 귀농한 전영식 멘토가 딸기 부농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귀농 첫해부터 2008년까지는 완전 딸기 농사를 망쳐서 땅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는 결심까지 했었다. 그때 전영식 멘토는 공부를 좀 더 해서 다시 한 번만 도전해보자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 충남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입학한다. 이렇게 시작된 딸기 농사 공부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수없이 많은 밤을 반납하며 흘린 땀방울이 딸기농장 주인장의 거친 손끝에서 달콤한 딸기향으로 발효된 굿모닝 딸기농원은 교육과 나눔의 공간으로 반짝이는 명성을 써 가고 있다.

숫자로 보는 전영식 씨 이야기

경영규모(1인 기준)

| 비닐하우스 3,300m²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고설수경재배 시설

경영규모



2인

초기투자비



1억 5천만 원

연간운영비



3천~4천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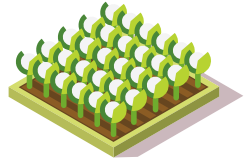
(2006년부터 연평균)

연평균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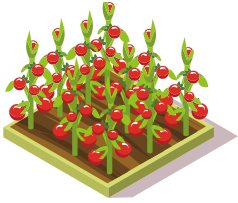


8천만 원

2



세대별



2030창농

충북 옥천 - 여진혁 070

경남 사천 - 박미선 080

4050전직

전남 함평 - 김정석 090

전북 김제 - 김미정 100

60이상 은퇴

충남 서산 - 주태관 110

경남 고성 - 백수흠 120

여진혁

충청북도
옥천



곤충산업의 미래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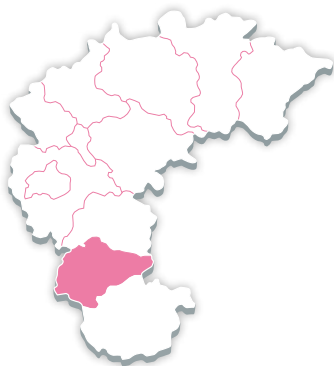
여가박스 굽벥이 농장 여진혁 씨

2년 전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으로 귀농한 여진혁(36)씨는 ‘여가박스’라는 굽벥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그는 스마트팜 곤충농장을 운영하며 사육과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굽벥이에 매료되어 시골에 정착한 젊은 농부 여진혁 씨의 고군분투 귀농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
| · 귀농 전 직업 | 섬유산업 |
| · 귀농 결심동기 | 아내의 권유로 |
| · 귀농 선택 작목 | 굽벥이(흰점박이꽃무지유충) |
| · 귀농 연도 | 2016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충북도농업기술원 청년스타 농업인과정 수료
옥천군 농업인대학 산업곤충과정 수료 |

귀농귀촌 Key Point!

귀농 성공에 정답은 없다



가족의 지지가 귀농 촉매제

서울 토박이였던 그는 캐나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아내의 제안으로 귀농생활을 시작했다. ‘여가벅스’라는 제호도 아내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귀농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히고 2년 정도는 혼자 열심히 준비한 시기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이수하고 농지도 알아보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여 씨는 귀농을 준비하면서 현지 마을주민과 소통하는 문제도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나이가 젊기에 그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는 “도시에서 사업하는 문제와 귀농은 완전 별개의 문제며 현지 마을 분들과 얼마나 융화될 수 있는지도 귀농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귀농을 결심한 후에도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알렸다. 농촌 생활에 전혀 경험 없는 아들을 걱정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 씨의 곤충산업이 지역신문과 방송매체에 알려지면서 부모님의 걱정도 조금씩 줄었고, 격려와 응원도 아끼지 않으신다.

여 씨는 네 살배기 아들 교육문제도 점수에 전전공공하는 도시 교육 방식보다는 흙을 만지며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시간 없이 바쁘게 쫓기던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뒤돌아보며 여유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한다.

스마트 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굼벵이 농장

‘여가벅스’에서 사육하고 있는 굼벵이는 식용과 약용에 쓰이는 곤충인 굼벵이(흰점박이꽃무지유충 일명 꽃벵이)이다. 여진혁 씨가 귀농을 결심하면서 처음부터 굼벵이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귀농 작목으로 버섯 관련 콘텐츠를 구상했고 버섯전문학교에서 공부도 했다. 특히 동충하초에 관심이 많았다.

“버섯을 귀농 작목으로 염두에 두었는데 막상 귀농교육을 받아보니 버섯보다는 곤충산업 전망이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니 버섯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현실도 감안하게 되었구요.”





반면 곤충사업은 미개척 분야인 만큼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굽벥이는 식용곤충으로써 좋은 약재로 동의보감에 나올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기에 가능성을 믿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굽벥이는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항암치료와 당뇨치료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흔히 주변에서는 유학파라고 하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쉽게 자리 잡은 젊은 귀농인이라는 선입견도 있다. 하지만 그는 사육사를 짓기 위해 전국을 다녔고 사육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여가박스 굽벥이 농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월 50만 마리 생산되는 굽벥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여러 매스컴을 통해 여가박스가 알려지면서 곤충사육에 관심있는 이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팜으로 운영되는 위생적이며 편리한 사육환경에 감탄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고.

“스마트팜의 장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한 요소를 변경하거나 조절할 수 있어 많은 인력이 소요됐던 과거와 달리 적은 인력으로도 대량의 곤충을 사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이 귀농의 걸림돌

아무런 연고도 없이 굽벥이 농장을 시작하겠다고 찾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화리 마을. 그는 굽벥이 농장만큼이나 현지인이 되기에 노력 기울였다.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스스로없이 도움을 청했다.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움을 준 마을 어르신들에게 감동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석화리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난해 석화리 마을 주민들은 충북도에서 주관하는 ‘행복마을 사업 콘테스트’를 귀농 1년 차인 그에게 맡겼다.

“겨우 귀농 1년 차인 저에게 맡겨주셔서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어르신들이 마을 정보와 발전 계획에 대해 알려주셔서 발표 자료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1등으로 선정되어 마을 어르신들과 기쁨

을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마을을 위해 뛰어다닌 그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는 후배 귀농인에게 위임했지만 마을 영어교사로 위촉되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아동심리상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도시생활이 힘들어서 자칫하면 귀농이 탈출구로 생각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농촌생활은 탈출구가 될 수 없어요. 혼자 조용히 살기 위해 귀농한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마음의 벽을 쌓으면 귀농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마을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유지해야 귀농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도시생활보다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곤충산업 대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터

최근에는 곤충산업을 배우고, 알기위한 사람들이 여가벽스를 방문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했던 30여명의 회원에서 여가벽스를 다녀갔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용곤충 사육시설에 먹이까지 직접 만들어 관리하는 모습에 방문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또 여가벽스는 지난 1월 국내 식용곤충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유기농연구소와 MOU를 체결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업인대학 ‘산업곤충학과 2기’ 교육과정에 여진혁 씨가 이론교육을 맡기도 했으며, 실습교육 2시간은 여가벽스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곤충산업의 현실에 대해 논의하면서 직접 농장을 견학한 청강생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를 해봤지만 제가 사는 지역의 낯익은 얼굴을 뵈고 강의 진행을 하려니 더욱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 수강생보다 더욱 열심히 경청해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보가 식용곤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가벽스는 올해 새로운 시도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식용곤충은 농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가공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관행을 깨고, 35평의 가공시설이



정부에서 미래 산업으로 곤충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이뤄져야 할 문제가
법 개정이나 대중들의 인식 변화라고 본다.
정부 정책 역시도 생산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였으면 한다.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곤충산업은 아직은 갈길이 멀다. 식용과 약재로 활용이 무궁무진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아직도 혐오산업이다 보니 판로개척도 쉽지 않다.

이에 여진혁 씨는 “정부에서 미래 산업으로 곤충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이뤄져야 할 문제가 법 개정이나 대중들의 인식 변화라고 본다.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가능성도 보장하기 힘들며, 정부 정책 역시도 생산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충청곤충산업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여진혁 씨도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굽빙이 사육에 최적의 효과를 내는 곤충 발효톱밥을 개발하기도 했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상호보완할 수 있는 영농조합은 앞으로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는 옥천산업곤충회 홍보부장으로 SNS를 활용해 여가벅스 스토리를 알리고 있으며, 식용·약용 곤충산업이 대중화가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숫자로 보는 여진혁 씨 이야기

경영규모(3인)

| 사육실 181.5㎡, 작업장 82.5㎡, 톱밥 발효동 99㎡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굼벵이 사육 시설

경영규모



3인

(본인 + 직원 2인)

초기투자비



2억 5천만 원

연간운영비



4백만 원

(전기세 및 시설비)

연평균수입



1억여 원

(2017년 기준)

박미선

경상남도
사천



젊으니까 귀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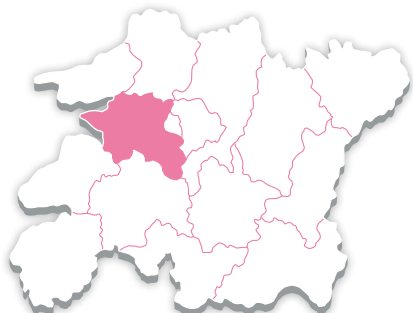
사천 딸기농장 박미선 씨

경남 진주에서 유치원 선생님이던 지내던 박미선(35)씨는 지난해 고향인 경남 사천으로 돌아왔다. 시누이의 조언에 따라 첫째 딸기 농사를 지으며 1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거머쥐었다. 젊은 귀농인이기에 받았던 주변의 걱정스런 시선들도 이제 한결 부드러워졌다. 젊기에 과감했던 그녀의 도전과 좌충우돌 귀농일기를 들어본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귀농 전 직업 | 보육 교직원 |
| · 귀농 결심동기 | 퇴직 없는 직장을 찾고자 |
| · 귀농 선택 작목 및 창업명 | 딸기 |
| · 귀농 연도 | 2017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사천 농업대학 |

귀농귀촌 Key Point!

귀농은 이론과 현장의
컬래버레이션이다



힘든 경기에 오히려 귀농이 답이다

35살 박미선 씨가 젊은 나이에 ‘귀농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의아해 했다. ‘왜 벌써 시골로 가느냐, 아이들 교육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남편 송용만(51)씨의 선택을 믿었고 오랜 시간 딸기 농사를 짓고 있던 시누이가 큰 힘이 되었다.

“남편이 진주에서 다양한 자영업을 했습니다. PC방도 해보고 카페도 경영했었구요. 하지만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 자영업 운영이 힘에 부쳤어요.”

고민 끝에 시누이의 권유로 딸기 농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이들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송용만·박미선 부부는 사천행을 결심했다. 사천은 거리상 진주와도 가깝고 3살, 5살 아이들에게 농촌교육이 더욱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녀는 “비용 들여서 체험농장도 찾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키우는 농장에서 자라는 딸기 모습을 보여주면 생생한 체험 교육이 되겠다 싶었어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나 흙이 주는 교훈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남편의 귀농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인 박미선 씨는 지난해 경상남도 사천에 딸기 재배동 1천 500여 평을 조성했다. 30여 년의 노하우를 지닌 시누이의 속성과외와 부부의 열정으로 첫 농사인 지난해 1억5천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귀농을 반대하고 걱정했던 주위 반응도 180도 달라졌으며, 오히려 귀농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 왔다.

“주위에서 관심 갖고 물어오는데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이제 교육을 받으며 첫 밭을 내딛는 중이라 부담되기도 하구요”

지인들에게 자신들의 솔직한 귀농담을 들려준다는 그녀는 용기있는 도전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저희도 체계적으로 귀농을 준비했다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도 신청하고 이론도 먼저 습득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녹록치 않은 여성 귀농인의 길

농사 중에서도 밭농사 게다가 여성, 그리고 아이 둘의 엄마인 젊은 여성이라니? 딸기 재배 시설을 갖추기까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주변의 걱정을 뒤로 하고 그녀는 사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과 진주과학기술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거치며 농업전문가로 거듭났다.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면서도 와 닿지 않던 농업 전문 용어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익히니 금방 터득할 수 있었어요. 교육 받던 초기에는 농사의 필수용어도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기 바빴습니다. 이론도 현장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 때 생각 했습니다.”

시누이의 도움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귀농생활과 딸기 재배 기술이 손에 익었지만 그녀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아이들 문제는 양보할 수 없기에 더욱 그랬다. 그녀는 “딸기 농장과 유치원이 위치한 시내가 멀지 않고, 등하원도 유치원에서 전담해주시 그나마 한숨 돌리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죠. 일과 아이들 등하원 시간을 맞추며 병행하려니 쉬운 일은 아니에요”라며 어려움을 털어냈다.

정부 차원에서 젊은 귀농인 양성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데 농촌에서는 그런 지원의 거의 없으니 답답하다고 한다.

“정책상으로 권장만 하고 홍보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왜 귀농하지 않는지를 따져 묻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젊은 귀농인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원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지원정책을 살피고 교육 받으며 준비했던 귀농이 아닌 주변 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귀농이었기에 박 씨는 다시금 착실한 준비가 필요했다. 농사도 트렌드에 부합되고 기술도 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저희가 일만 시작하면 주변 주민들의 걱정을 삽니다. 귀농 초보지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시도도 많이 하거든요. 당장의 수익을 따지기보다 2~3년 뒤를 내다보고 농사짓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은 재배방식도 달리



남편 송 씨는 선배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초보 농사꾼이니만큼 자신의 경험이 재산이 되기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하며 경험을 쌓자고 해요”

처음 시작하는 딸기 품종을 시누이인 멘토의 권유대로 ‘장희’로 정하고, 고설 양액재배를 하며 제자리 육묘도 실시했다. 남편 송 씨는 선배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초보 농사꾼이니 만큼 자신의 경험이 재산이 되기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농사도 부부가 함께 하니 힘든 줄 몰라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한 박미선·송용만 부부는 함께 하기에 농사일이 더욱 즐겁다고 한다. 농사일도 부부가 함께 해야 즐거움도 두 배이며, 힘들 때 서로 격려할 수 있어 위기 극복도 쉽다.

“올해 처음 청년창업농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농사일을 할 때는 정책이나 기술적인 일에 전무했는데 이제 조금씩 걸음마를 떼고 있죠. 제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올인하는 스타일이라서 농사일과 공부도 열심히 하며 처음에 배웠던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깨우치곤 합니다”

농사 이론과 현장을 겸하면서 아이들 양육까지 하는 박 씨는 시누이의 도움으로 딸기 판로개척도 쉽게 했다.

사천시 곤명면 딸기는 작목반에서 바로 수급해서 대형 마트로 납품되는 과정을 거친다. 면단위로 운영되는 딸기연합회와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어 판로 걱정없이 농사일에 몰입할 수 있었다. 박 씨가 농사짓는 딸기는 사천에서 흔히 접하는 ‘설향’ 품종이 아닌 ‘장희’다. 장희는 다른 품종에 비해 딸기의 크기가 더 크며 당도도 높고 맛있다고 한다.



다양한 작물 재배로 수익 높이고자

박미선 씨는 초보 농사꾼이지만 의욕만큼은 여느 농사꾼에 뒤지지 않는다.

“농사지며 힘든 일은 남편이 맡아주고, 경험이 많은 시누이가 옆에서 조언 해주니 별다른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직은 딸기 육묘장이 없어서 올해 육묘장도 지을 계획이며, 메주콩도 재배 하여 한가지 농작물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최소화할 참이다.

“주변의 선배들을 보니 다양한 작물 재배로 수익을 내더라고요. 한가지 작물만 하면 판매와 동시에 가계경제도 어려움에 처한다고들 해요. 저희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희에게 적합한 또 다른 작물도 찾아보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힘은 들지만 농사짓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그녀는 딸기 재배동도 조금씩 늘리고픈 마음이다. 하지만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선배의 경험을 믿고, 여러 농사법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희는 육묘작업도 저희 나름대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열흘 걸릴 일을 10여명 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진행하여 세균감염도 최대한 방지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마치도록 했죠.”

처음에는 농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녀.

“모르고 시작했던 알면서 진행하던 긍정적으로 자신과 주변 멘토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생활하는 자세도 필요하구요. 어르신들과 융화하려면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여야 귀농생활이 즐거워요.”

귀농생활을 시작하려고 결심한다면 사전 준비부터 하라는 그녀는 “정부 정책도 살피고 원하는 지역의 작목도 알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며 멘토에게 자문 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꼼꼼히 단계를 밟고, 강소농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녀의 야무진 포부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숫자로 보는 박미선 씨 이야기

경영규모(3인)

| 딸기 농장 4,958㎡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딸기 재배기술, 보일러, 온습도관리기,
이산화탄소발생기 등

경영규모



3인

(부부 + 직원 1인)

초기투자비



2억 5천만 원

연간운영비



4천만 원

(2018년 기준)

연평균수입



1억 5천만 원

(2017년 기준)

김정석

전라남도
함평



은은한 차향으로 건강 나누는 삶 실천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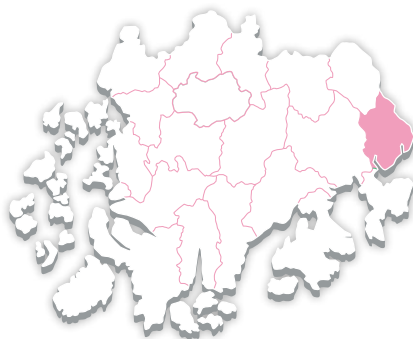
월인천강 나비황차원 김정석 씨

차를 좋아한다는 사람 사이에서는 나비황차 효천 스님을 모르면 간첩이다. 도시에서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불현듯 불가에 귀의한 월인천강 나비황차원 김정석(55)씨.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귀농한 그는 세상으로 다시 나와 은은한 차향에서 전해지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
| · 귀농 전 직업 | 승려(효천 스님) |
| · 귀농 결심동기 |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
| · 귀농 선택 작목 | 차나무 및 약용식물 |
| · 귀농 연도 | 2000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교육, 농업대학 등 |

귀농귀촌 Key Point!

내 몸을 지켜주는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는
삶으로 행복해지자



차가 좋아서 시작한 귀농

흔히 알고 있는 녹차, 그리고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든 황차. 차도 사람만큼이나 다양하고 향기도 저마다 다르다. 나비황차 역시도 발효도에 따라 청향과 단향, 중향, 여래향, 묵향이 있다. 청향은 발효도가 30%로 풋풋한 청향이 나며, 단향은 50%의 발효도로 깔끔한 단향이 난다. 중후한 머스크향이 매력적인 중향은 발효도 70%에 이르고 그 이상을 웃돌아 90% 이상 발효되면 홍차향이 나는 여래향과 발효차를 10년 이상 숙성시킨 묵향으로 구분된다.

전라남도 함평의 나비황차원 김정석 씨는 차의 발효정도에 따라 제각기 다른 향과 맛을 지닌다고 말한다.

“제품이 표준화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비황차도 처음에는 한 가지였지만 발효 정도에 따라 맛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차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석 씨는 지난 2000년에 귀농했다. 처음부터 지금의 함평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차 마시던 일을 즐겨하던 그는 절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와 농사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자립할 수 있도록 농사일과 집짓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귀농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던 그 당시는 귀농 제도나 교육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절을 나와서는 제가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지리산 인근에서 차에 대한 공부부터 한 거죠.”

그는 지리산 화개골 목압마을에서 차 만드는 것을 배우기 위해 부춘골 산속에 움막을 짓고 3년간이나 차에 대해 공부를 했다. 전남 함평에 정착하면서부터 전통적인 방법으로 녹차를 만들기 위해 손수 나무를 베어서 초가집을 지었다. 또 차산을 조성할 때에도 녹차로 유명한 화개나 보성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 함평 지역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나비문양, 꽃문양, 박쥐문양, 법계도문양)을 적용했다. 그리고 차씨와 각종 약용 초목들을 함께 심어서 자연생태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차산을 가꾸어가고 있다.

“처음에 귀농하여 초가집을 지었더니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전통방식의 초가집에 혼자 귀농하여 차를 만들고 있으니 관심을



끝었던 거죠. 당시에는 이런 점을 홍보에 적용하겠다는 생각도 미처 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좀 귀찮다고 여겨졌죠. 그러다 몇 년 후 초가지붕을 양철지붕으로 교체하니 언론의 관심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함께하니 더없이 향기로운 시간

김정석 씨가 사는 전라남도 함평의 작은 시골마을(성정마을)에는 여섯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마을 입구에는 상수원인 대동정수원이 있고 주변의 산들은 황금박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정한 곳이다.

그는 “저희가 오기 전에는 단 네 가구 였는데 제가 오고 난 뒤 부모님도 내려와서 함께 살면서 여섯 가구가 되었죠. 15년이 지나도록 두 가구만 늘어난 거예요.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가 찾았을



따기 위해 일손을 구하고 일당을 높게 책정해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시골에서는 마음먹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 품만 팔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김정석 씨는 차 마시는 일이 좋고 지인들과 나누어 마시는 차의 향이 좋아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를 구매하겠다는 이가 생기고 판매로 이어지면서 수익금이 생겼다. 초기에는 절반 이상을 덤으로 주거나 나눠주고 하니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차를 나눠주고 퍼 주었던 것이 현재의 저를 유지하게 해준 겁니다. 차는 기호식품이에요. 이렇게 마음과 가슴으로 마신 차는 분명 다시 찾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거죠.”

현재 나비황차원의 차들은 직거래가 대부분이며, 함평 로컬푸드와 일부 매장에만 한정해서 소개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귀농 초기에 차는 마셔야 하고 가진 것은 넉넉지 못한 그는 차 농사를 직접 지었다. 10년 넘는 시간을 차에 대한 공부와 약용 식물 연구를 하다 보니 수익도 발생했다. 그가 우린 차의 진한 향기가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고 마니아 층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2011년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소농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더군요. 교육은 정말 필요해요. 농업대학도 있어서 농업대학 유기농반에서 교육받고 약용작물반도 수강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계기로 농업에 대한 방법은 물론이고 인식의 폭도 넓어졌어요.”

또 그는 최근 농업에 ICT 등의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것처럼 강의 수준도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료를 객관화하여 데이터를 제시하는 강의는 농업인들이 실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농사짓는 과정을 객관화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집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햇차인 ‘산사의향기’ 우전 녹차를 마시며 연록의 기운을 온 몸으로 느끼다

나비의 꿈 효천 블로그 글 중에서

에서 차를 우려서 맛을 내지만 똑같은 여건을 재현하여 다른 장소에서 차를 우리면 그 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 최적의 비법이 있어도 그것이 다른 이에게 그대로 적용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객관화된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의 좋은 점은 지식의 확대는 물론이고 뜻이 맞는 사람과의 인프라 형성이다.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가진 바를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유대감을 쌓는 과정이 너무 즐겁다고 한다. 그는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허물없이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이 귀농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를 좋아하고 약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인 ‘약초사랑’을 결성하여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고 있다. 약초사랑은 약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약초도 캐고, 정보도 나누며 견학도 즐긴다.

바람 타고 차향 따라 나비처럼 훨훨~

봄이 찾아오는 4월 말부터 5월까지의 집중적으로 차를 수확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차를 만드는데 생산된 제품들은 모두 지역의 특성과 스토리를 담아서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상표의 출원도 변리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하였다고 한다. 현재 등록된 상표는 산사의 향기(녹차), 나비차(나비향차 5종), 월인천강(홍차), 황금박쥐(떡차), 대숲에 이는 바람(죽통차), 내몸지기(약용작물)가 등록되어 있다.

블로그와 카페에서도 꽤 알려진 ‘나비의 꿈 효천’ 김정석 씨. 자유롭게 사는



삶에서 차를 향한 그의 진한 마음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베어 나온다. 그래서인지 그는 대량 판매도 단체 고객의 방문도 꺼린다.

“대학 시절 전자공학을 공부했기에 인터넷 활용도는 뒤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판매는 직거래만 생각했어요. 지인들을 통한 소규모 판매만 했는데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지인의 소개로 단골도 늘었습니다. 현재는 다례교육과 차 만들기 체험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차융복합산업화를 위해서 다양한 약용초를 활용한 힐링농장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가끔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10년 이상 숙성시킨 차의 효능을 물어 오기도 한다. 김정석 씨는 그런 상담을 해 올 때면 몹시 난처하다. 차는 의약품이 아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소연하는 이를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여도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농산물을 재배해서 우리 가족과 주변사람, 그리고 나비향차원을 찾는 모든 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한 톨의 곡식도 그냥 내 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농사는 풀 관리에서 시작하여 풀 관리로 마친다”는 김정석 씨. 2006년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비향차원 차산에는 차나무와 함께 산초, 제피, 꾸지봉, 황칠나무 등 다양한 약용수목들과 영경귀, 고들빼기, 산마, 천문동, 민들레 등 다양한 약초들이 공존하고 있어 풀을 벨 때에도 적절히 개체수를 유지시키며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쓸어내릴 수는 없는 거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으며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전하는 묵직한 한마디에서 나비향차원에서 마시는 차향이 그토록 깊고 진한 이유를 알았다.

숫자로 보는 김정석 씨 이야기

경영규모(2인)

| 나비황차원 농장 19,834㎡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제다기술 및 제다시설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5백만 원
(토지 구입비 등)

연간운영비



3천만 원
(인건비+생활비 등)

연평균수입



6천만 원
(2017년 기준)

김미정

전라북도
김제



‘농촌체험학습지도사’로 불러주세요



딸기체험학습지도사 김미정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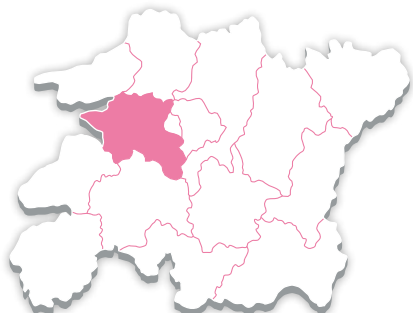
“친구 여러분, 빨간 딸기 옆에 파랗고 조그만 딸기도 있지요? 조그만 딸기는 왜 조그마할까요?”

올해 3년 차 귀농인 김미정(42)씨의 낭랑한 목소리가 딸기체험농장 안을 가득 채운다. 호기심에 반짝이며 집중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김미정 씨의 열정 가득한 목소리에 딸기체험이 흥미롭기만 하다. 지난 2015년 전북 김제에 딸기 체험농장을 열어 운영 중인 귀농인 김미정 씨의 딸기사랑 스토리를 들어본다.

- 귀농 전 거주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 귀농 전 직업 피아노 학원 선생님
- 귀농 결심동기 아이들과 찾은 딸기체험농장에서 딸기를 보고 반해서
- 귀농 선택 작목 딸기체험농장
- 귀농 연도 2015년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전북마이스터대학 교육

귀농귀촌 Key Point!

귀농은 실전이다



딸기를 보고 설레인 순간, “아! 이거다”

호남평야의 중심에 위치한 김제는 쌀의 주요 생산지이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서깊은 벽골제, 그리고 최근 체험농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딸기코빨강코’ 체험농장에는 입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귀농과 동시에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자격까지 갖춘 김미정 씨는 자신은 농사꾼이기보다 ‘교육자’로 불리고 싶다고 말한다.

“저희 체험농장의 경우 한 달 전에 예약은 마감되고,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다른 농장에 비해 가격이 두 배나 높은 데도 말이지요. 이유는 바로 저랍니다. 제가 다른 농장과 차별화되는 점이죠.”

인터뷰 내내 딸기 같은 환한 미소를 잃지 않은 김미정 씨는 전직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던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체험 이벤트를 마련했고, 딸기 농장 내에서는 잼과 풍뎉이 만들기는 물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 즐거움도 덩어리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세 아이의 엄마로 여느 도시 엄마들과 별다른 것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가 어느날 문득, ‘귀농’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대학에서 음악교육학을 전공하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자랑스런 딸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친정부모님의 반대는 예상보다 심했다. 피아노 학원 문을 닫던 날 새벽에는 친정아버지가 찾아와 돈다발을 던지며 돈이 필요하면 이 돈으로 살림이나 하라며 호통을 치기도 하셨다. 그러나 한번 꽃히면 끝을 봐야 하는 그녀는 오히려 오기가 발동했고 귀농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딸기와 사랑에 빠진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딸기 엄마가 되기로 한 것이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했기에 귀농 초기에는 힘든 농사의 전과정을 오롯이 혼자 힘으로 견뎌내야 했다.

“농사의 ‘나’자도 모르던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딸기재배에 관한 전과정을 밟고 지자체와 주변 농가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딸기 농장을 하시는 멘토 분의 도움





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세 아이의 엄마로 바쁘게 살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미정 씨가 굳은 각오로 딸기 농장을 찾았지만 선뜻 반기는 이는 없었다.

피아노 선생님께서 농촌체험지도사로

일상 속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평범하던 삶을 바꿔버린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조그맣고 하얀 딸기꽃과 빨갭게 익어가는 탐스런 딸기에 매료된 것이다. 딸기에 반해버린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농장을 찾았다.

“처음엔 농장 예약을 하려 했는데 예약이 안된다, 예약이 만료됐다고 여러 번 거절당한 거예요. 딸기 농장이 이렇게 잘되나 싶어서 피아노 학원 학생들이 없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 농장을 매일 찾아갔어요. 무언가 알고 싶고 딸기를 매일 보고 싶었던 거죠.”

딸기농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딸기 휴식기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체험도 시기마다 다르다는 것을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도시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농사를 시작한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했죠. 그때부터 일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농장을 찾았어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시작했기에 ‘될 때까지 하리라’ 마음먹은 그녀의 의지에 농가도 굴복했다.

“익산에서 딸기농장을 하시던 멘토 분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체험농장 운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단순히 일복에 장화 신고 딸기 재배에만 몰두해 있었겠죠.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주변 선도농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귀농 초기부터 딸기체험과 관광을 결들인 6차 산업에 뛰어든 김미정 씨.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체험농장은 그런 그녀의 성향에 딱 들어맞았다. 딸기와의 인연만큼이나 소중한 멘토와의 인연 덕분에 체험농장을 과감히 열게 된 것이다. 게다가 블로그 활용을 가르쳐 준 멘토의 가르침에 농장 일지를 꾸준히 써 내려간 미정 씨의 진솔함이 더해져 체험농장의 인기도 날로 높아졌다.

농사는 실전이다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준비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다른 직종보다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꼬집었다. 새로운 분야이며 처음 시작하는 일인 만큼 타 분야와 다름없이 꾸준한 공부는 필수라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농업체험학습지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딸기반 총무도 맡고 있는 그녀는 교육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이 점을 강조한다. 농사는 실전이며, 모든 과정을 알아야 비로소 농사지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다.

“딸기반 교육생은 5월부터 10월까지 과정을 경험하는데 시설하우스 안에서 땀을 비오듯 쏟아내는 8월의 가장 고된 단계를 버텨야 다음 해 딸기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한 과정이라도 소홀히 하면 다음해 딸기 농사는 기대하기 힘들죠”

지난해 그녀의 농장에서 실습한 딸기반 교육생 10명 가운데 3명은 중도 포기했으며, 7명만이 고된 과정을 이겨냈다.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준비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다른 직종보다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꼬집었다. 새로운 분야이며 처음 시작하는 일인 만큼 타 분야와 다름없이 꾸준한 공부는 필수라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

조금힘은 금물, 작물 재배부터 마케팅 방법까지 연구

고향인 김제에서 체험농장을 시작하기로 한 그녀는 특유의 쾌활함 덕분인지 마을 주민과도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해나갔으며, 지내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다만, 시설하우스를 받기 위한 과정이나 딸기 재배방법 등이 익숙지 않아 2년이란 준비과정을 거치며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딸기를 정성스럽게 키우는 마음 그대로 농사일지를 적었고, 공감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마케팅이라는 방법으로 체험농장 성공의 한 축을 이뤘다.

체험농장에서 딸기를 재배하며 ‘과연 내가 재배한 딸기를 사람들이 찾아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주변 농가에 딸기를 팔아주겠으니 한 달간 농장 체험을 하도록 허가해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 딸기 공판장 가격이 500g에 7천 원 정도의 가격일 때 체험비 1만 원에 농장 체험을 건의했다. 흔쾌히 허락해 준 농장주 덕분에 첫 주 두 가족을 시작으로 여덟 가족, 열 가족, 온 마을이 주차전쟁을 치를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그때 그녀는 확신이 섰다. ‘딸기체험농장이 내가 앞으로 가야할 인생’이라고 결심한 것이다.

드디어 2015년에 4,000㎡ 농지에 1,600㎡ 비닐하우스와 2,400㎡에 달하는 체험농장과 주차장을 갖춘 ‘딸기코빨강코’ 농장을 오픈했다. 모든 과정을 겪어봐서인지 아직은 후회되거나 슬럼프를 겪지는 않았다. 그녀가 조금 힘들고 어께가 처질 때 주위에서 “딸기가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기운 나는 천상 딸기 엄마다.

여성 농사꾼? 여성 CEO!

귀농을 결심했을 당시 자녀가 세 살이었다. 직장 생활하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녀 어린이집 등학교에 집안일을 하며 농사일까지 감당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힘든 하우스 시설 작업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매일 시간을 지켜 문을 여닫는 문제였다. 남자라면 가사일의 무게가 없으니 시설하우스에서 기거해도 상관없겠지만 아이들과 집안일을 의무적으로 맡아야 하는 여성 귀농인에게는 여간 고민되는 일이 아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민을 들던 남편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대기업 L사 IT계열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문을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폭넓은 IT 분야에서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적용한 거죠. 그래서 시설 투자비도 200만 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설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은 즐겁게 헤쳐 나가는 그녀는 지난해 농림부 주관 청년 농업인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사가 반드시 남성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면서 섬세하고 모성이 강한 여성에게 더욱 잘 맞는다고 그녀는 조언한다. 여성들도 얼마든지 가정과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녀는 다음 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체험농장까지도 활기를 불어 넣으며 여전히 농장을 가꾸고 있다. “작물 재배는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제가 가꾼 딸기를 선보이는 것은 체험농장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이죠. 무언가 꾸미고 치장해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함께 즐거우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딸기코빨강코란, 딸기에 빨간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딸기코가 빨개지네~’ 라고 생각하며 지었다는 농장이름에서도 그녀의 섬세한 사랑이 묻어난다. 이런 그녀의 딸기사랑은 조만간 더욱 큰 꿈으로 실현될 듯 하다. 현재 있는 600평형의 체험농장을 조금 더 확대하고픈 게 그녀의 소망이다. 지난해 딸기 체험을 위해 찾은 관광객이 8천 명에 이른다. 이런 사람들의 수요와 벽제와 인근 김제 관광시설과의 상생, 지역과의 연계까지 큰 포부를 세운 그녀의 당찬 계획도 조만간 현실로 이뤄지리라 기대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돌렸다.

숫자로 보는 김미정 씨 이야기

경영규모(1인)

| 비닐하우스 1,600㎡ / 체험농장 2,400㎡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딸기재배기술, 보일러, 온습도관리기,
이산화탄소발생기 등

경영규모



1인

초기투자비



1억 2천만 원

연간운영비



1억 2천만 원
(2015년)



3천 400만 원
(2016년)



4천 500만 원
(2017년)

연평균수입



6천만 원
(2015년)



8천 500만 원
(2016년)



1억 2천만 원
(2017년)

주태관

충청남도
서산



나만의 귀농 스타일 찾아 행복도 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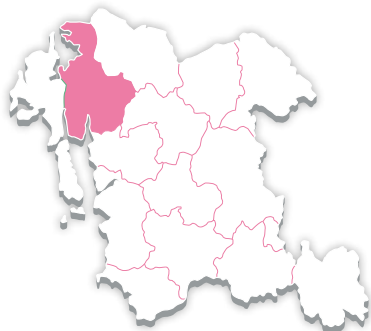
킨포크 힐링팜 주태관 씨

중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준비한 남편이 있다. TV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의 쾌유를 위해 충남 서산에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남편 주태관(62)씨. 서산 잉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한 주태관·임혜숙 부부의 싹틔 나는 귀농이야기를 들어본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
| · 귀농 전 직업 | 항공사 근무 |
| · 귀농 결심동기 | 은퇴 후 삶과 아내 건강 회복을 위해 |
| · 귀농 선택 작목 | 고추, 고구마 |
| · 귀농 연도 | 2015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충남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 농업체험학습학과
농업인대학 강소농교육 |

귀농귀촌 Key Point!

소망의 완성이다!



푸르른 서산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은퇴 후 제2의 삶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주태관 씨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가평과 청평 등을 찾았지만 봄에도 눈이 쌓인 광경을 보고 충청도로 발길을 돌렸다. 겨울이 길고 추운 우리나라 특성상 추운 지역보다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남쪽 지역이 생활하기에 좋을 듯 했다. 그리고 그간 생활해 온 수도권에서도 멀지 않은 지리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곳을 찾아보니 서산 지역이 떠올랐다.

퇴직 전 항공정비 일을 하던 주태관 씨는 해마다 열리는 건축박람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평소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 2막을 펼칠 서산의 집을 손수 짓기로 결심했다. 폐를 적출하는 큰 수술로 투병 생활을 하고 퇴원 후 회복기 아내를 위한 선물이기도 했다.

“건축박람회도 다니고 캐나다 우드협회에 협조를 구해 집짓기 자료도 모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넘치는 혈기와 의욕이 있었으며 주변 농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집짓기 전, 찜질방에서 잠자는 불편을 감내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문가 손을 빌어 샌드위치판넬로 창고를 먼저 지었다. 견고한 창고 덕분에 때서운 겨울 찬바람을 견디고 숙식도 해결하며 집짓기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창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애초에 목조주택을 짓고자 했던 계획을 바꿔 샌드위치판넬 집을 짓기로 했다. 샌드위치판넬도 이음새 부분을 견고히 하면 단열이 우수해 겨울철 외풍 걱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땅을 활용해서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땅 한가운데 집을 지어 땅을 양쪽으로 딱 갈라 놓았으니 실수한 거죠. 저쪽 초입에 집을 짓고 땅을 넓게 활용해야 하는데 말이죠. 지켜보던 원주민들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즐겁게 받아들인 주태관·임혜숙 부부. 한정된 자본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집을 손수 지으며 지출을 최소화했다. 귀농 초기엔 아내의 병간호가 중요했기에 농사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수입이 없으니 더욱 그랬다. 이런 이들



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산 사기리 마을 주민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싹틈과 동시에 확신에서였다.

아내 임혜숙 씨는 “제가 서산에 내려왔을 때에는 성대마비로 말도 못하고 몸이 깡마르고 여윈 상태여서 누가 봐도 중증 환자였죠. 그런 제가 1여 년이 지나면서 얼굴빛이 돌아오고 살도 붙고 하니 마을 주민 분들이 건강해져서, 살아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저에게 인사를 건네오는 거예요. 주민들은 참 따뜻한 분들이지요.”

농사짓지 않아도 마을 주민들이 나눠주는 농산물로도 풍성한 식탁이 가능하다는 주 씨는 도시처럼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니 적게 벌어도 행복할 수 있는 생활이 귀농인 것 같다고 귀땀한다.



귀농생활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2015년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구마와 누구나 필요한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해에 고구마 크기가 팔뚝만 하고 수류 탄처럼 너무 컸는데 농사가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신나서 주위에 자랑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비웃듯 코웃음 나는 참으로 한심한 거죠. 그래도 좋아요. 모양은 나빠도 맛은 같거든요.”

익숙한 도시생활에서 오는 일상의 평화로움을 뒤로 한 채 귀농을 선택한 주태관 씨의 서산생활은 모든 것이 처음이자 시행착오였지만, 그 또한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시켰다. 도시에서 상담일을 하던 아내 임혜숙 씨 역시도 감성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태도로 귀농생활을 즐겼다.

고구마 수확 후 선별 작업에서 고구마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나눠 담아야 하는데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 작업이 지체되고 힘들었다. 그래서 아내 임 씨는 나름의 방식을 모색했다. 농지에서 바로 캐서 바로 보내는 고구마를 크기 구별 없이 네 가지 종류의 고구마를 직거래 판매했다.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농지에서 바로 캐서 판매하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또 소비자에게 고구마의 크기가 각기 다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아내 임 씨의 친절함도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데 한몫했다.

작년에는 병충해로 1천 주 심은 모든 고추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2년 전에는 고춧가루도 인기리에 판매됐다. 도시생활 방식을 잊지 않고 있었던 아내가 소포장과 퀄리티를 높이는 포장을 제안했고, 이 방법이 소비자의 니즈와 성향에 적중했다.

“판매도 농사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간단했어요. 도시생활로 일하는 주부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저장과 사용 시 접근이 쉬운 방법을 찾았던 거죠.”

‘판매’보다는 소비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이 통했던 것이다. ‘많이 팔겠다’보다는 ‘어떻게 전할지’ 생각했다는 주 씨는 고구마의 품질과 신선함을 고객에게 그대로 전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한다.





판매도 농사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간단했어요.
도시생활로 일하는 주부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저장과 사용 시
접근이 쉬운 방법을 찾았던 거죠. ●●

재능 살리니 즐거움도 나누게 돼

욕심내지 않으면 둘이서 농사지어 직판으로 판매해도 소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인 대상의 직판에도 한계가 있었다. 판매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수확되는 농산물이 특성상 매번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정을 모르는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부정적 피드백이 생겼다. 이런 상황까지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주태관·임혜숙 부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귀농 생활의 설계를 조금씩 변경해 갔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귀농의 집’ 운영이었다. 지난해 서산시에서 지원받은 6천 500만원으로 예비 귀농인과 함께 단 두 달 만에 ‘서산시 1호 귀농의 집’을 손수 지어 완성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래도 저희 집 지으며 한번 겪어봐서인지 60일도 안되는 기간에 집이 한 채 딱딱 완성되더라고요. 서산에 정착한 예비 귀농인의 집도 짓고 시에서 지원해준 귀농인의 집도 짓다 보니 작년에는 농사일에 매진하기 힘들었습니다.”

탄저병으로 고추 농사가 절반의 실패로 돌아간 지난해지만 집을 지었다는 뿌듯함에 그런 시름은 가뿐히 넘겼다는 주태관 씨. 집 짓는 일이 직업이었다면 돈에 얽매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겠지만 서로 돕는 관계 속에 집을 지으니 이웃과 오히려 돈독해져 즐거움이 생겼다고 한다.

주태관·임혜숙 부부는 장차 집 터 옆에 유리온실을 만들어 허브와 약초를 가꾸고 족욕을 하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팜스테이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면 저절로 되는 소통

“도시에서 왔기에 마을주민들과 나를 차별화하며 도시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주민들과 벽을 쌓게 됩니다. 제 경우는 잡초인 들꽃을 심으면서도 혼계하지 않은 주민께 꽃은 어떻게 심고 가꾸는지 물었어요. 마을 주민들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되 도발적 질문으로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경청하면 주민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거든요.”

귀농 초기 집 짓고 두둑을 만들 때에도 주 씨는 마을 이장님의 도움을 받았다. 혼자서 두둑을 만들겠다고 삽 들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던 이장님이 트랙터로 순식간에 두둑을 완성해 주었다. 지금도 이웃이 해마다 대가 없이 해주고 있다. 우리도 모판 만들 때, 모내기, 수확 시 품을 돕는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집을 지으며 나름의 고충도 있었다.

주 씨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레미콘이 마을 안쪽으로 레미콘이 들어와야 하는데 마을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중형 레미콘이 들어오면 오래된 주민의 집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집주인의 노파심에서였다. 난감한 상황에서도 주 씨는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용하고 레미콘이 마을 주변을 돌아서 진입하도록 조치했다. 마을 전체에 떡을 돌리며 신고식도 했다. 서산시에서 ‘귀농인 집들이 사업’을 지원 받아 마을 전체에 식사 대접도 했다. 이런 그의 현명한 기지 덕분에 마을 주민과의 관계는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형성됐다.

아내 임 씨는 말한다. “이제 마을회관에서 전기나 시설 관련 고장수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집으로 연락이 옵니다. 집을 지었고 서울에서 기계 관련 일을 했으니 마을 주민들이 전문가라 생각하고 도움 요청이 오는 거죠. 저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대처 합니다.”라며 마을 주민이 되는 건 ‘네’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한다. 선입견을 가지고 촉각 세우지 말고 한 개를 주면 열 배로 돌려주는 소박한 농촌 주민들이라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한 귀농 생활의 소박한 행복을 자신들의 모양새로 빚어내며 주위와 나누는 그들의 향기 있는 삶. 유리온실을 짓는 주태관 씨와 허브를 가꾸며 농장을 찾는 이들에게 심신의 치유를 제공하는 임혜숙 씨의 머지않은 미래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숫자로 보는 주태관 씨 이야기

경영규모(2인) | 고추, 고구마 2,975㎡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고추, 고구마 재배기술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1억 5천만 원

연간운영비



30만 원
(2015년)

70만 원
(2016년)

50만 원
(2017년)

연평균수입



1천 500만 원
(2017년 기준)

백수흠

경상남도
고성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구마’ 라는 자부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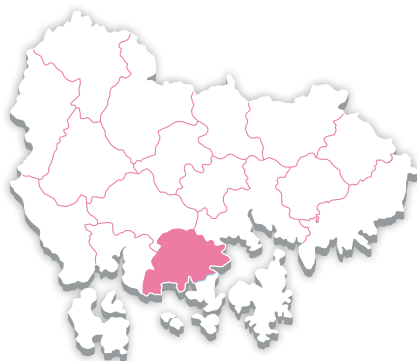
백선생고구마농원 백수흠 씨

‘집밥 백선생’으로 잘 나가는 요리계의 대부 백중원이 있다면, 고구마 분야에는 ‘백선생고구마농원’으로 유명한 귀농 5년 차 백수흠(61)씨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맛있고 건강한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 바닷가 황토를 복토하여 유기농약제로 재배하는 고구마다. 귀농 5년 차에 불과하지만 백선생일품고구마는 수확과 함께 완판되는 온라인 인기상품으로 등극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백수흠 씨를 만나고 왔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부산광역시 |
| · 귀농 전 직업 | 보험회사 |
| · 귀농 결심동기 | 부모님을 모시고자 |
| · 귀농 선택 작목 | 고구마 |
| · 귀농 연도 | 2013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경남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교육 수료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자치대학 수료 |

귀농귀촌 Key Point!

나만의 특화된
재배기술을 만들어라



귀농, 조급한 마음 버려야

부산에서 보험회사에 근무한 백수흠 씨는 차근차근 은퇴 이후를 준비를 하였다. 고향인 경상남도 고성으로 귀농할 준비를 하며 재배할 품목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부산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에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 밭품을 팔며 직접 농지를 살피고, 작목 선택을 위해 주변 농가도 방문했다. 은퇴하고 도시에서 생활하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남은 제2의 인생을 보람 있고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었고, 그 일을 고향에서 하고 싶었다.

“소일거리나 하며 시간을 보내는 노후는 제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처럼 힘쓰고 밤새 일하는 작업은 하지 못해도 고향으로 귀농하여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농사에 활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도 인생 2막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귀농을 결심하자 ‘어떻게 하면 귀농하여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전제 아래 귀농 인생설계를 다시 하였다. 인생 2막의 목표는 ‘80%만 달성해도 만족’이라는 전제로 농촌의 노후생활에 대한 건강, 가정의 수입과 지출, 하고 싶은 일, 취미 등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는 인생 2막의 목표를 귀농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작목 선정, 재배기술 등의 준비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등에서 각 작목의 재배기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선도농가를 방문하여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였다.

“귀농 준비하는 분을 보면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연해 하는데, 무조건 마음만 앞서 집을 사고 농지를 구입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귀농 준비 할 때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귀농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귀농 결심이 서면 현지에 가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선택 작목을 재배하는 선도농가에 가서 재배기술을 익혀서 시작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와 주택은 작목을 선택한 후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백수흠 씨 역시 고성이 고향이긴 했지만 작목 선정을 위해 온라인에서 정보





를 수집하고 전국의 선도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고 재배기술도 익히며 늦깎이 공부에 전념했다. 여러 작목을 연구하고 특성을 비교한 결과 최근 웰빙식품으로 떠오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먹는 고구마가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목 선택이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구마는 1작기가 1년이지만 다년생의 경우 몇 해 지나야 수확하는 작물도 있어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여 작목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백선생고구마 브랜드가 되다

사전 정보가 있었던 고향으로의 귀농이기에 위험부담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모두가 성공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운도 내편으로 만들었던 그에게는 남다른 비법이 있었다.

건강에 좋은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 유향과 바닷물, 예덕나무 엑기스로 직접 만든 약제를 1년에 3회 본밭에 시비하고 있다. 항암작용과 콜레스테롤 분해작용이 뛰어난 ‘정제유향’을 만들어 500배, 미네랄의 보고인 바닷물을 30배, 위와 장에 좋은 예덕나무 엑기스를 30배 희석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옆면 시비한다. 그는 “힘들지만 굳이 이런 농법으로 고구마를 생산하는 이유는 제가 생산한 고구마를 드시는 모든 분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려도 보람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서’를 받았다. 서류 제출은 물론이고 경남도에서 담당 공무원이 농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적격성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된 자료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농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전국 저탄소 인증 5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농산물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로 인해 진주국제식품박람회에 재단에서 마련한 부스에서 백선생고구마를 홍보할 기회도 얻었다.

저탄소 인증제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이런 인증 제



먼저 자신의 귀농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귀농 결심이 서면
현지에 가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선택 작목을 재배하는 선도농가에 가서
재배기술을 익혀서 시작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와 주택은 작목을 선택한 후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

도에 앞서 26브릭스(Brix)라는 믿기지 않는 당도와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이
라는 점이 소비자 취향저격에 성공한 것이다.

*브릭스 :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 딸기 평균 당도(15~18브릭스)

많이 버려야 빨리 성공한다

도시생활에 익숙한 습관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귀농에 성공한다고 그는 말
한다. 도시생활에서는 옆집이 누구든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않지만 농촌생활
은 완전 다르다. 일손이 필요하고 주민들 모두 협동해서 처리할 일이 대부분
이기에 주민과의 친분은 귀농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있으니 고령이신 마을 어르신들 밭 가는 일 등을
도와 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시고 자신이 생산한 농작물도
가져오시며 마음을 열어주시죠.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야 농촌생활이 즐겁습
니다.”

마을 주민들과 친분을 쌓고 정을 나누다 보니 마을 일에도 빠질 수 없게 되
었다. 현재 그는 금융업 일을 맡았던 재능을 살려 마을 재무를 맡아 마을 심부
름꾼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농사현장에는 토양, 날씨, 환경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표준화된 재배
매뉴얼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농부는 스마트
해야 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모든 요소를 잘 결합하고 조화시켜야 하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위해 함께 하는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명품 고구마가 목표인 귀농인 백수흠 씨는 이제 또 다른 목표를 준비 중이다.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고성고구마작목반’을 만들어 고성군 고구마 작목의 저변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반원들과 품종,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그의 생고구마는 매년 완판되지만 작목반원들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는 생고구마를 가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사대용 고구마 식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구마는 자체로 좋은 식품이지만 가공해서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품에는 아직 종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그는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식사대용 간편 고구마 식품을 선보이고자 한다. 백선생고구마의 이미지를 더욱 업그레이드 해줄 세컨브랜드를 기대해 본다.

숫자로 보는 백수흠 씨 이야기

경영규모(1인) | 고구마 26,446㎡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고구마 재배기술, 약제 조제 기술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1억 5천만 원

연간운영비



2천만 원
(2015년)



3천만 원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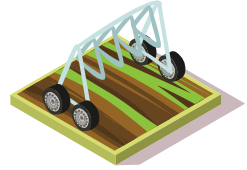
3천만 원
(2017년)

연평균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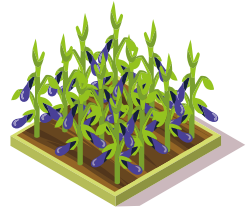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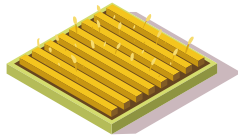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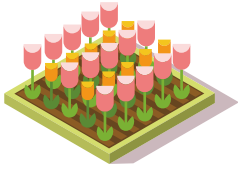


5천만 원
(2017년 기준)

3



특성별



갈등해결

충남 청양 - 석두환 · 박희순 132

경북 예천 - 김선엽 142

실패극복

경북 청도 - 김형표 152

전남 장성 - 이남국 162

6차산업

충남 부여 - 하미경 172

전북 정읍 - 김창희 182

마을공동사업

강원 홍천 - 이정호 192

ICT활용

전북 부안 - 최진섭 202

석두환
박희순

충청남도
청양



어딜 가든 먼저 그 마을 주민이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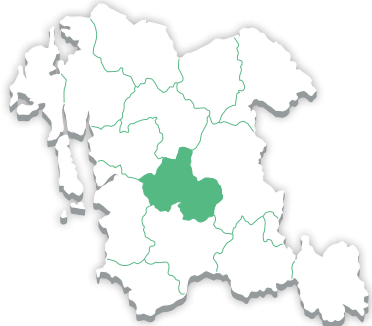
하니수니 블루베리 농장 석두환 · 박희순 부부

2014년 정년퇴직 후 충청남도 청양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석두환(61) · 박희순(58) 부부. 하니수니 블루베리 농장 운영과 동시에 SNS ‘석이요(별명)의 시골살이 이야기’라는 예비 귀농인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귀농 후 주민과 함께하는 집들이를 열면서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교류하며 아내는 부녀회장으로, 남편은 마을 총무로 활약하고 있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
| • 귀농 전 직업 | 대기업 임원 |
| • 귀농 결심동기 | 퇴직 후, 퇴직 없는 제2의 인생을 살자 |
| • 귀농 선택 작목 | 블루베리 및 체험농장 운영 |
| • 귀농 연도 | 2014년 6월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여주농업전문학교 귀농대학, 농협대학 귀농대학
청양군 귀농귀촌학교 등 다수 |

귀농귀촌 Key Point!

삶의 스타일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나에게 맞는 것, 그것이 최고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일상에 자녀를 키우며 한해 두해, 세월이 흘렀다. 대기업에 근무하던 석두환(61)씨는 제2의 삶인 퇴직 후 생활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여러 판매 대리점이나 요식업 등을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귀농이었다.

30여 년이 넘는 대기업 임원 생활을 정리하고, 2015년 충청남도 청양에 정착하기로 했다. 퇴직 전 강원도부터 경상남도까지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고, 지역 작목 선정에도 꽤나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귀농 전 연습 삼아 동네 텃밭에서 농사도 지어보고, 여주농업전문학교 귀농대학에서 주말마다 귀농과정을 배웠다.

그러던 2014년 4월, 퇴직 후 다닌 청양군 예비 귀농·귀촌학교 교육이 청양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 비봉면에 위치한 블루베리 농장이 급한 사정으로 매매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농장을 인수하면서 그해 6월 마침내 청양 사람이 됐다.

“쓰러질 듯한 농가주택을 수리하고 시골생활을 시작하며 주변 블루베리 농장에 견학도 가고 청양블루베리연구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서툴고 힘은 들었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내가 그리던 대로 내 생활을 가꾸어 나간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퇴직 후 시골생활을 적응해가던 석두환 씨와는 달리 도시생활에 부족함이 없던 아내 박희순 씨는 남편 결정에 걱정이 앞섰다.

“처음엔 남편이 먼저 청양에서 자리를 잡았죠. 남편을 만나러 청양에 내려왔더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평소 전기밥솥이며 세탁기 근처에는 가지도 않던 남편이 끼니는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얼굴도 초췌한 모습을 보고 그때 결심하게 됐죠. ‘저 사람 옆에 있어야겠구나’하고 말이죠.”

외향적인 석두환 씨와는 달리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의 박희순 씨는 남편 따라 청양으로 오면서 성격에도 변화가 생겼다. 시골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친근하게 다가가고 말이라도 한마디 먼저 건네는 것이 시골살이의 지름길임을 터득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청양 비봉면 양사리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GAP인증도 받아

석두환 씨의 블루베리와 잘 어울리는 ‘하니수니 블루베리 농장’은 석두환의 ‘환’과 박희순의 ‘순’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주변 농가 견학도 하고 블루베리연구회에도 가입했지만 초보 농사꾼에게 하우스 800여 평에 노지 500여 평, 총 1천 300여 평의 블루베리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북부, 남부와 래빗아이 등 품종도 다양하고 여러 종류로 나뉘는 블루베리 종류 덕분에 뒤늦게 머리를 싸매고 공부에 몰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GAP인증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장들과 연계해 체험농장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배, 오미자, 사과 등 여러 우수 농산물을 도시 사람들에게 선보이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일이다. 하지만 1년 내내 고생한 농사를 체험농장으로 오픈하면서 내 마음 같지 않은 방문객으로 인해 마음 상한 적도 있다.

“저희 블루베리 농장 뿐 아니라 배 농장이나 오미자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한번 먹고 버린 농산물이 여기저기 뒹굴고 정해진 구역 외에 다른 구역까지 들어가서 농산물이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체험농장 방문객들의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더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석두환 씨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석 씨는 요즘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귀농을 앞둔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해 더 바빠졌다. 농사일을 하면서 자신과 같이 귀농을 하겠다는 후배들을 보니 세 부류 정도가 있었다. 첫 번째는 무턱대고 땅 먼저 사서 마을 길이던 곳에 말뚝을 박고 길을 막아 통행에 불편함을 야기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부류는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번 오면서 가끔씩만 들르는 사람도 봤다. 이런 사람은 농사는 커녕 지역 주민들과도 정을 쌓지 못하고 정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석두환 씨처럼 귀농을 위해 농사도 부지런히 하며 지역 주민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경우다.

“청양군 기술센터에서 귀농하러 온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농장에서 견학도 시키고 임대정보도 공유하고 합니다. 귀농인 사이에 선 석두환이 좀 유명합니다.(하하)”



나누며 생활하니 더욱 풍요로운 삶

블루베리 농장을 소개하는 블로그는 물론 귀농인들에게 정보 제공까지 하기
에 석 씨는 밤낮없이 바쁘다. 그도 그럴것이 귀농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으
며 마을 조정사업과 새마을 운동 등 마을 일에도 빠지지 않고 나서는 그이기에
마을에서는 이미 신뢰도가 높다.

얼마 전, 집을 구하려던 예비 귀농인이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석두환 씨
소개로 왔다면 인사를 건네자 마을 주민은 대뜸 “석 씨 소개로 왔으면 틀림없
는 사람이겠구만.”이라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예비 귀농인을 보면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석 씨는 “귀농귀촌이라는 단어도 불필요하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별다를 것 없이 그 마을 주민이어야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왜 자꾸 구별을 하는지
 그게 더 이상할 따름”이라며
 “시골 생활은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내 삶이 즐겁고 마을 주민 전체가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

강의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무료로 집을 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이죠. 저는 쉽게 설명합니다. 용자를 정부에서 저렴하게 해주는 거라고 말이죠.” 석 씨는 자신과 같이 퇴직예정자를 위한 회사의 교육과 MBC아카데미(청양군), 농협대(야간과정), 여주농협경영전문학교(귀농과정) 등에서 귀농관련 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마을에서 제가 강의하면 지역 주민들과 오셔서 경청도 하시곤 합니다. 성격 상 외향적이라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진 점도 있지만 동네 인심도 훈훈하고 저도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다행히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동네에서 총무 일도 맡아서 하고 마을일에 적극 나서니 좋아들 해주셨죠.”

하니수니 블루베리 농장은 길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 길을 다니다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풀베기부터 복숭아 따기 등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마을 일에 적극 나서는 석 씨를 흔쾌히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였다.

석 씨는 “귀농귀촌이라는 단어도 불필요하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별다를 것 없이 그 마을 주민이어야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왜 자꾸 구별을 하는지 그게 더 이상할 따름”이라며 “시골 생활은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내 삶이 즐겁고 마을 주민 전체가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힐링팜 조성부터 청양 농산물 유통센터까지

석두환 씨의 부지런함은 초보 농사꾼에서 중견 농산업 종사자로 일으켜 세웠다. 예비 귀농인을 위한 체험농장을 비롯해 귀농인의 집을 꾸밀 계획도 있으며, 무엇보다 마을 사업을 위한 체험농장을 확대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야 농산물 인지도도 높아지고 마을 사람들도 더욱 부지런히 일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석 씨는 마을 주민들이 길러낸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무인판매대 운영도 고심 중이다. 마을 시내 버스 길인 하니수니 블루베리농장 앞에 무인판매대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 수익창출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저희 청양군에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가 없어요.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니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관리해서 가락동에서 청양 농산물 센터로 구입하러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껏 힘들게 농사지어도 판로도 쉽지 않고 직판도 한계가 있으니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석 씨는 직접 농사짓고 판매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과 동시에 해결책도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석 씨가 처음 청양에 왔을 당시부터 써 내려간 SNS의 ‘석이요(별명)의 시골살이 이야기’는 많은 예비 귀농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젊을수록 귀농은 매력적입니다. 시골은 기회의 땅이죠. 물론 몸은 힘들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겐 해볼 만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면 발전 가능성도 높은 게 시골살이의 장점입니다.”

쉽 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석 씨의 분주함에서 하니수니 블루베리 농장이 힐링 팜으로 거듭나고 청양군의 신선한 농산물이 무인판매대에 모습을 드러낼 날도 머지않은 듯 하다.

숫자로 보는 석두환 · 박희순 씨 이야기

경영규모(2인)

| 하우스 2,644㎡, 노지 1,652㎡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블루베리 재배법, 비가림 하우스 시설,
신품종 묘목 구입비, ICT시설비, 농장 운영비용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3억 400만 원

(하우스 임대료 400만 원 <1년>,
체험농장 구입비 <산 3천 평>1억 원,
체험농장 조성비 5천만 원, 주택신축 1억 5천만 원)

연간운영비



2천 500만 원
(2015년)



2천만 원
(2016년)



1천만 원
(2017년)

연평균수입



2천만 원
(2017년 기준)

김선엽

경상북도
예천



농사는 작물이 아니라 사람보고 하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 예천한약초(주) 김선엽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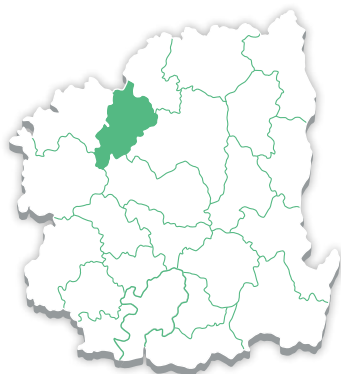
2015년 편찮으신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귀농한 김선엽 씨. 첫 작목으로 왕대추를 식재하고 기대만큼 좋지 않았던 결과에 좌절할 즈음, 8년째 작약 농사를 짓던 전인하 씨를 만나게 됐다. 이들의 만남이 예천군 작약 축제로 이어지며 작약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작약을 만나 즐거운 예천군귀농인회 김선엽(63)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그들이 관리하는 '귀농의 집'에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인천광역시 |
| • 귀농 전 직업 | 회사원 |
| • 귀농 결심동기 | 부모님 병간호 |
| • 귀농 선택 작목 | 왕대추 → 작약 |
| • 귀농 연도 | 2015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예천군 귀농학교 |

 **귀농귀촌 Key Point!**

귀농은 어울림이다





작물도 사람도 특성이 있다

2015년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마지막 도리를 다하겠다 다짐하고 고향인 경상북도 예천으로 내려온 김선엽(63) 씨. 고향으로 귀농하여 부모님을 모시며 왕대추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 당시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던 마을 주민들은 눈을 밭으로 변경하며 왕대추를 식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미덥지 않게 생각했다.

“부모님을 모시고자 내려왔는데 농사를 망치게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들이었습니다. 특히 농사에는 초보자인 사람이 유통이나 판매처도 없이 대추를 식재하니 그럴 만도 했죠.”

마을 주민들의 염려처럼 김 씨는 첫해 왕대추 농사를 실패하고 말았다. 작목의 특성 파악이 미흡했고 힘든 농사일을 감당할 준비가 부족했던 김 씨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쳤다.

“누군가의 말만 믿고 시작했던 제 잘못이 컸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작물은 없어요. 사람도 그러하듯 작물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자신과 맞아야 하는데 그걸 미처 알지 못한 겁니다. 소개해 준 사람이 대추는 농사짓기 쉽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은 거죠. 그 분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1,600여 평의 농장에 식재한 왕대추는 생각했던 것보다 고도의 재배기술력이 필요했고, 보관상의 어려움도 존재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작약을 만나게 되었다.

작약을 만나고 농사의 즐거움을 깨닫다

김선엽 씨가 2015년 귀농한 후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7기를 수료했고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때 만난 인연으로 이선화 씨와 사무국장 김세영 씨 외 현재의 임원진들과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귀농교육의 가장 큰 결과물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귀농학교를 통해 알게 된 후배가 집 앞 경관 조성을 위해 작약을 심으려 하니 작약 종자를 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작약을 구하기 위해 예천군청은 물론이고 봉화군청 전담 공무원에게도 문의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 봉화 담당 공무원의 말이 예천이라면 작약 전문가가 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것이었다. 그가 현재 농업회사법인 예천한약초(주)의 기술고문직을 맡고 있는 전인하 씨다. 전인하 씨는 예천 토박이로 예천 은풍면 작약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었다. 김 씨가 전인하 씨를 만나 느낀 것은 작약의 가치보다는 그가 주는 진정성이었다. 귀농 전 오랜시간 영업직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직감적으로 그의 인간성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약에 대해 그리고 그가 아는 사실 모두가 진실로 느껴졌고 그래서 귀농학교 동기에게 연락해 기술고문님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작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표정이 이내 밝아졌다. 작약의 특성상 농사를 시작하는 처음에만 수확이 3년 걸리는 단점이 있을 뿐 여타 작물보다 손이 덜 가기 때문에 농사에 익숙지 않은 예비 귀농인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애초부터 작약은 한약재로 익히 알려져 왔으며, 한방재료상으로 유통되었다. 시대가 변화하고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작약의 쓰임새도 다변화했다. 한약재에서 화장품 원료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 구매하며 발 전체로 거래되고 있다. 거래가는 평당 4만2천 원 정도로 다른 작물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지어도 막상 수확한 뒤 가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조바심 내는 것보다 이렇게 판로가 형성돼 있으면 농사지를 때에도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작약을 만나고 농사에 대한 즐거움을 알았어요.”

김선엽 씨는 자신에게 맞는 작약을 만난 후로 농사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으며 사람보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제가 작약을 접할 때만 해도 후배가 구해달라는 요청에 수소문으로 작약을 알게 되었고, 그때도 작약을 농사지어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요. 전 기술고문님의 작약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진솔함이 저를 움직인 겁니다. 저와



누군가의 말만 믿고 시작했던 제 잘못이 컸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작물은 없어요.
사람도 그러하듯 작물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자신과 맞아야 하는데 그걸 미처 알지 못한 겁니다.
소개해 준 사람이 대추는 농사짓기 쉽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분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





함께 기술고문님을 만난 귀농학교 동기들도 마찬가지로 느꼈고요.”

그때부터 귀농교육 7기생들을 위주로 전인하 씨 집에서 합숙하다시피하며 작약을 공부하기도 하고 봉사단을 꾸려 긴 겨울을 의미 있게 보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2017년 9월에는 농업회사법인 예천한약초(주)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작약꽃 축제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봉사단과 작약 축제 등 함께 하기에 즐거운 귀농

귀농 후 긴 시골에서의 겨울을 훈훈하게 지낸 방법이 바로 ‘나눔’이었다. 시골마을에서 연탄 나르기는 물론 마을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처음에 홀로 시작했던 나눔이 귀농학교 동기들과 함께 하며 더욱 활성화되었다. 현재 ‘예천귀농인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귀농교육 동기들은 봉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더욱 얻는 게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더욱 효도해야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김선엽 씨는 자신과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자 귀농한 사람이라면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모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좌지우지 됐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도 지어야 일도 즐겁고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귀농학교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는 그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5월 19일 작약 축제도 열었다.

“농사가 천직은 아닙니다. 농사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고문님이 담당하시고, 저는 마케팅 관련 여러 다양한 판로를 시도하는 거죠. 시대도 변화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치러지는 여타 다른 지역축제와 달리 제1회 예천 작약 축제는 작약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들과 농업회사법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탄생했다. 작약 꽃 축제는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고 예쁜 작약 꽃을 타 지역 주민과도 나누자는 소박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축제 이틀 전에도 한 사람당 몇 명에게 홍보할 수 있느냐고 협박도 하고 격정도 했죠. 그런데 축제를 연장할 정도로 대박이 날 줄 몰랐죠.”

올해는 시범 삼아 3천 평 정도의 부지에 만개한 작약 꽃을 선보이며 방문객의 호평을 얻었다. 지난 해 작약순을 치지 말고 체험농장으로 바꿔보자는 그의 제안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준 전 기술고문과 귀농교육 동기들의 훌륭한 팀 워크가 이뤄낸 성과였다.

“예천군 7기 귀농학교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작약도 좋지만 귀농학교 동기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작약꽃축제와 봉사 활동 등 의미있는 일 모두를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축제 현장을 방문한 예천군으로부터 작약 축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만큼 올 가을엔 3만여 평 농장에 추가 식재를 하여 내년 축제에서는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작약 꽃을 선보일 계획이다.

작약의 가치 알리는 선구자 역할 하고파

작약은 식재 후 3년만 기다리면 다른 꽃보다 4~5배 많은 양의 화분이 수확되고, 한약재나 화장품 원료로 인기리에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작목이다. 이에 비해 식재 후에는 작약이 자라며 풀베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관리는 수월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딱 맞는 작목이라고 한다. 특히 예천군에는 작약에 대해 내로라하는 기술고문이 멘토 역할을 하며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우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에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게 김선엽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작약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아 30만 평의 광활한 작약 꽃 단지화를 선보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그는 작약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예천군만의 특화된 작약 종자를 개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예천한약초(주) 김선엽 대표와 임원들, 기술고문인 전인하 씨의 단합된 의지가 벌써부터 내년 작약 축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역시 농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숫자로 보는 김선엽 씨 이야기

경영규모(6인) | 작약 및 목단 19,834㎡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작약 식재와 관리 기술

경영규모



6인
(법인 직원)

초기투자비



4천만 원

연간운영비



5백만 원 (법인)
(2017년)

연평균수입



4천만 원
(초기 수확까지 3년 소요)

김형표

경상북도
청도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엔젤베리 농장 김형표 씨

흙이 묻은 손에, 붉은 뺨방울로 얼굴이 뒤범벅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부의 이미지는 어쩌면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실용적이며 눈에 띄는 패션 감각, 열색한 헤어스타일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농부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경상북도 청도의 엔젤베리 농장에서 만난 김형표(52)씨가 그랬다. 패션 감각만이 아닌 농사 감각도 남다른 김형표 만의 농사 철학은 어떨지 궁금했다.

· 귀농 전 거주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 귀농 전 직업

물류업

· 귀농 결심동기

부모님을 모시고자

· 귀농 선택 작목

딸기

· 귀농 연도

2010년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청도군 복숭아 아카데미 수료, 청도군 반시 아카데미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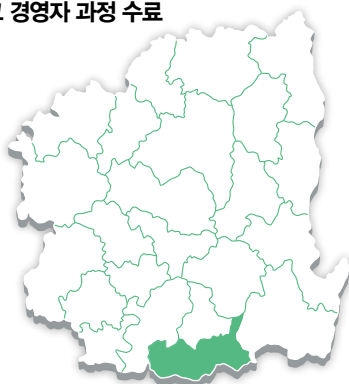
경북 농민사관학교 딸기 수경재배 과정 수료

경북 농민사관학교 농식품 상품화 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귀농귀촌 Key Point!

귀농은 나를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만 하면 발전 없어

경상북도 청도에서 딸기농장을 하고 있는 김형표 씨는 딸기 고설수경재배에 푹 빠져있다. 청도의 반건시가 유명한 만큼 감과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도 눈에 띄었다. 그도 귀농 초기인 8년 전에는 반시와 복숭아를 재배 작목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청도로 귀농한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농사짓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세월이 많이 변했죠. 그리고 농사는 더 이상 어깨너머로 하는 일이 아니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고향으로 귀농했지만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었다. 부모님께서 농사짓던 방식으로 하자니 소비자의 니즈도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농업 기술도 배우기 위해 청도군에서 주관하는 복숭아 아카데미와 청도반시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부모님 농사기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역적 특성만 생각하고 작목을 선택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제 성향과 맞는지, 자본 사정과는 어울리는지를 살펴야 했는데 말이죠. 복숭아는 딸기와 달리 그해 수확이 불가능해 귀농 초기 작목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4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니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힘들죠.”

청도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것이 바로 반건시이다. 청도 특산물로 유명세를 떨치는 반건시 이기에 김형표 씨 역시 어릴 적부터 집 앞마당과 논둑에서도 흔하게 감을 접했다.

“감은 정식이 아니라 논둑이며 집 앞마당 등 여기 저기 있었는데 다 합하면 800여평 정도 규모에서 감이 열렸습니다. 청도의 특산물이니 육십내서 더 늘려서 농사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판로도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수요도 늘지 않을 듯 하다는 주위 선배들의 조언에 딸기에만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런 결정에는 주변 멘토들의 조언이 컸다. 이로 인해 큰 손해 없이 자신에게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주변 도움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을 살





려 그는 현재 청도군 청도읍 내리 마을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예비 귀농인과 마을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남다른 학구열로 위기를 극복하다

그는 딸기 재배의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귀농 초기에도 작목 선택을 결정짓기 전에 교육을 우선으로 수료했으며, 경북 농민사관학교에서는 딸기 수경재배 과정을 마쳤다.

“어릴 적 환경이 농촌이었으니까요. 선배나 주변 어르신들이 하시던 일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고향이다 보니 여러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도 하게 되었구요.”

딸기 수경재배 이야기가 나오자 신이 나서 설명하기에 바쁘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촌에서 딸기 수경재배를 통해 일손도 줄이고 청결한 재배 환경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토경재배는 쪼그려 하는 작업 환경으로 귀농 초기에는 허리도 아프고 적응하기에도 힘듭니다. 당연히 일손 구하기도 어렵구요. 그러나 수경으로 재배하면 흙 없는 환경으로 병해충 걱정도 덜 수 있고, 수확량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는 200여 가구이며 이 중 수경재배 방식은 김형표 씨를 포함한 25가구 정도라고 한다. 새로운 방식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하기에 시행착오를 거친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꺼린다면 발전은 늦춰지고 과거만이 반복될 뿐이다. 이런 그의 도전정신에 가족들도 말없이 그를 지지해 줬다. 아내 김선주 씨도 익숙했던 도시생활을 접고 남편의 선택을 믿고 따라왔다. 무엇보다 귀농 당시 초등학교 이었던 자녀들이 불편했을 시골생활에도 불평없이 감내해줬던 것이 고맙기만한 그다.

“우선은 부모님을 모시고자 귀농했지만 가장의 판단을 믿고 따라준 가족에게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농사 기술을 익히고, 변화를 터득하려고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농사짓는다고 작년과 올해 같은 방법으로 마케팅 하면 시대에 밀려나는 게 요즘이예요. 시간 내서 기술센터 방문하여 교육도 받고 선배 멘토들과 정보도 교류해야 합니다.”





부모님 농사기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역적 특성만 생각하고 작목을 선택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제 성향과 맞는지, 자본 사정과도 어울리는지를 살펴야 했는데 말이죠. 복숭아는 딸기와 달리 그해 수확이 불가능해 귀농 초기 작목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4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니 지금의 여유가 없으면 힘들죠. ●●

다양한 시도로 발전 모색해야

농사짓는다고 농장에만 머무르면 그야말로 시대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형표 씨의 주장이다. 각 지자체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도 활발하다고 한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 60개 과정의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센터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안하면 농촌 발전이 더욱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바쁘다고 자신만 생각하고 정책사업에는 뒷집지고 있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건 당연하죠.”

김형표 씨는 농촌에서도 농민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부하는 농민이 발전된 농촌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그는 농민 스터디그룹을 조직할 참이다. 재배기술과 마케팅 등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뜻이 맞는 농부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엔젤베리 농장의 설향 딸기는 농협 공판장과 온라인 판매와 청도지역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학교 급식에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청도군에서 도농 연계 사업인 ‘천사들의 딸기 팜파티’가 열리기도 했다. 팜파티 행사는 농장주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신선한 농산물을



주제로 농산물에 대한 정보제공과 직거래를 추진한 자리였다. 대구 등 도시 소비자 1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된 팜파티 행사에서 김형표 씨는 딸기 따기 체험, 미니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청도군에서 농가들을 위해 마련해준 좋은 자리인 만큼 마케팅에 취약한 농민들이 이런 계기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소비자가 생각하는 농산물에 대한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청도군 강소농 2기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농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량자원을 책임진 농부들이 야말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말이다.

“지자체와의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이나 정책 수혜만 생각하기 보다 후배들을 위해 발전된 방안을 내놓은 것도 필요하구요. 저 혼자 어려워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해마다 하고 싶은 과제가 떠오르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머쓱해 하는 그는 올해도 농민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고, 딸기 체험농장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숫자로 보는 김형표 씨 이야기

경영규모(2인)

| 딸기 농장 3,967㎡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딸기 재배기술 및 온습도관리기 등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2억 5천만 원

(2010년 귀농 당시)

연간운영비



3천만 원
(2015년)



3천만 원
(2016년)



3천만 원
(2017년)

연평균수입



7천만 원

(2017년 기준)

이남국

전라남도
장성



실패를 넘어서 포도 알알이 희망이 영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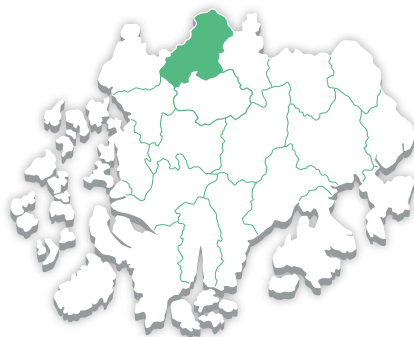
반석힐링팜 이남국 씨

전라남도 장성군 반석힐링팜을 운영하는 이남국(51)씨는 지난 2011년 귀농 후 6년 차가 되던 2017년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에 장성군 대표로 참가해 전라남도에서 2등을 수상했다. 조경업에 종사하면서 우연히 감나무를 접하고 농사를 시작한 이남국 씨는 미흡한 준비로 첫째 농사는 실패의 쓴맛을 톡톡히 보게 됐다. 귀농 7년차 그가 들려주는 시행착오와 새롭게 시작한 포도 농사에서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본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광주광역시 |
| • 귀농 전 직업 | 조경업 |
| • 귀농 결심동기 |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
| • 귀농 선택 작목 | 감, 포도 |
| • 귀농 연도 | 2011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장성미래농업대학 포도학과 |

귀농귀촌 Key Point!

인내심과 열정의 산물이다



준비 없이 시작한 결과는 참담해

전라남도 광주에서 조경업에 종사하던 이남국(51)씨는 어느 가장과 다름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아빠이자 남편이었다. 조경업종 특성상 한 가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평일과 주말 없이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 가족과의 평범한 주말을 보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은 쑥쑥 커가는데 가족 여행은 커녕 주일에 교회도 함께 가지 못해 아쉽고 속상하기만 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남국 씨의 소망은 주일이면 남들처럼 가족과 오붓하게 교회에 다녀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투병중인 지인으로부터 감 농사 제의를 받았다. 평소 나무 식재도 했기에 농사에 두려움이 없었고, 농장도 집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별다른 준비 없이 털썩 감 농사를 수락해 버렸다. 지자체 교육은 커녕 가장 중요한 가족의 동의도 구하지 못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학교며 학원에 등원시키는 문제도 보통이 아닌데 말이다.

“아내는 작년까지도 포도 농사가 안되면 농사일을 그만두자고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 학생이기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농사에 매달리며 경제적 수입도 뒷받침되지 못하면 회의가 드니까요.”

옆에서 조용히 남편을 주시하던 아내 오은아(44)씨는 “여성들이 시골로 귀농하는 문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일이 힘들어서 였다면 지금은 아이들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이가 어리면 유치원 등학교 문제 그리고 아이가 크면 학원 등학교 문제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이남국씨는 2011년 감 농사를 시작한 뒤 체질에도 맞고 재미있어 농사에 푹 빠졌다. 하지만 임대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전정작업이며 감별작업도 주인 눈치를 보며 진행해야 했다. 그렇게 힘들게 작업하며 수확해서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수확철 인건비만 4천 500만원이 지출됐다. 아내 오 씨는 “농사는 지극히 현실이에요. 다들 우스게 소리로 그러합니다. 수확한 작물이 떨어지면 생활비도 떨어진다구요. 계획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우리는 더 그랬던 거 같아요. 남편이 열정적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는 거고요.”

호되게 감 농사 신고식을 치른 이 씨는 이왕 농사를 지을 것이라면 내 땅에서 시작하겠다는 포부로 땅을 매입했다. 2013년 포도 농장 시작 당시, 진원면에서는 포도 농장 조성이 한창이었고, 지원 사업도 있었기에 이 씨는 고민 없이 포도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처럼 쉽게 작목을 선택한 것이 문제였다. 캠벨을 선택해 농사를 시작한 첫해에 착색도 안되고 병으로 인해 포도 수확량의 절반을 버려야 했다. 준비과정 없는 농사는 처참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빚만 커져갔다. 조경업으로 목돈 만지던 도시생활과는 천지차이었다. 같은 시간을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은 빚뿐이기에 힘든 나날이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면 포도의 실패를 감 농사의 수확으로 조금은 채워질 수 있었다.

실패도 타고난 근성으로 극복

현재 7,200평의 감 농장과 2,800평의 포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남국 씨는 포도 농장을 시작하며 겪었던 참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한다.

“무턱대고 시작했어요. 작목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작목마다 사람에게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에게는 포도가 적합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본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택해야 합니다. 초창기 자본이 없는데 다년생인 포도를 시작한 저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죠. 이처럼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귀농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미천한데 타고난 근성 하나로 버틴 시간이었다. 그러다 전화위복이 된 계기가 장성군 지원사업이었다. 포도 농지 구입 시 구입비 50%를 장성군에서 지원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장성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인 고초균과 유산균, 광합성균을 주1회 무상지원해 친환경적이며 땅을 살리는 포도 농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샤인머스켓 좋은 캠벨과 달리 고가의 종이다 보니 지난해에는 물량이 적어서 수출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 였습니다”

포도 농사의 매력에 한껏 빠져 있는 이 씨는 샤인머스켓에 대해 설명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초보 농사꾼인 이 씨에게 용기를 북돋워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박진홍 계장에 의하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장성군의 지원사업이 161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장성군 색깔 마케팅인 ‘엘로우시티 장성’을 내세우며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장성군 귀농귀촌 인구는 전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체 인구의 10%가량을 귀농귀촌 인구가 차지하더니 2018년 올 3월까지 346명으로 지난 한해만 귀농한 인구가 400명에 육박한다.

이에 이 씨는 “장성군 귀농귀촌 담당자가 행정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추어 귀농상담 시 귀농인의 자본과 성향, 귀농형인지 귀촌형인지까지 파악하며 자세하게 살펴주기에 많은 인구가 장성을 찾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포도송이마다 맺힌 땀방울이 기쁨으로

이남국 씨는 지난해 전남농기원에서 주최한 저비용 고소득 농업실현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 장성군 대표로 참가해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경진대회 참가 내용은 생산비 절감이며 이 씨는 시설재배 시 수확시기를 60일 정도 앞당겨 판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조기재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름보일러 대신 축열주머니를 이용해 난방비를 절감하는 한편 작업 레일과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kg당 생산비를 33%절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시설재배 시 월 300~4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난방비와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포도의 경우는 연중 가온도 아니고 작업 레일과 무인방제 시설이면 노동력도 부부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제 덕분에 농약비 절감은 물론 포도 저장성도 길어지고 친환경이라서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감 농사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작했던 이남국 씨는 농사에도 교육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장성군 미래농업대학 3개 과정을 공부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포도학과 교육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 배우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한 지난해 이남국 씨 포도 농장에서는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2017 포도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연사회’가 열렸다. 저비용·고소득 농업경영 모델로 이 씨의 포도 농장이 선정돼 갈수록 고령화로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요즘, 새로운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귀농 시작할 때부터 교육도 받고 철저히 준비했다면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실에만 급급해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야 하는 것, 그것이 농사고 귀농입니다.”





귀농 시작할 때부터 교육도 받고 철저히 준비했다면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실에만 급급해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야 하는 것,
 그것이 농사고 귀농입니다. ”

뿌린 만큼 거두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장성군에 귀농인구가 많은 만큼 주위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한다는 이남국 씨.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간에 안정된 삶을 누리는 귀농인이 있는 반면, 귀농생활에 대한 환상만 가득해 현실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다시 생활 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아내 오은아 씨는 “요즘은 땅도 정직하지 않아요. 기후 변화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손쓸 겨를도 없고, 병충해를 입으면 막무가내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농사일이에요. 욕심이 앞선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라고 담담히 말했다. 도시에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단번에 목돈도 생길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는 교훈을 배우는 중이라는 이 씨는 귀농 7년 차지만 아직도 적응 중이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보였다.

포도 농사 처음 시작 당시 장성군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이 씨는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후배들, 주위 농장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아직은 보여줄만한 결실이 없지만 포도 농사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게 되면 조합원들과 함께하며 진원면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도 좋은 귀감이 되고 싶은 게 이 씨의 바램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씨 뿌리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거두는 과정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라는 거죠. 내일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작업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숫자로 보는 이남국 씨 이야기

경영규모(2인)

| 감 농사 23,801㎡, 포도 농사 9,256㎡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포도재배기술, 전기난방시스템, 배양제 등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1천 800만 원
(임대비)

연간운영비



2천만 원
(2015년)



1천 500만 원
(2016년)



1천 500만 원
(2017년)

연평균수입



6천 500만 원
(2017년 기준)

하미경

충청남도
부여



딸기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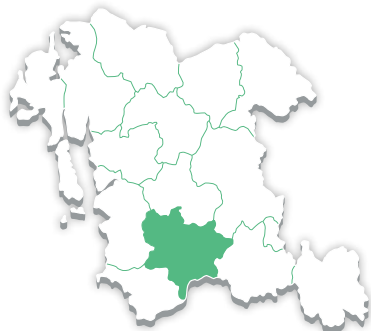
설레임 딸기정원 하미경 · 김명덕 부부

어린 아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하미경(35) · 김명덕 부부. 집안의 가장인 김명덕 씨는 반도체 · LCD 분야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왼쪽 눈 실명 위기까지 경험했다. 그 순간 삶의 가치에 천착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에 대한 고민에 휩싸인다. 부부는 결국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가꿔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귀농을 선택했다. 그리고 농촌에서 부부가 함께 만들어갈 '6차 산업'이라는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의 귀농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부여군 구룡면에 있는 '설레임 딸기정원' 농원을 찾았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귀농 전 직업 | (남편) 반도체 총괄관리자, (부인) 전업주부 |
| · 귀농 결심동기 | 삶의 가치와 평생직장을 찾아서 |
| · 귀농 선택 작목 | 설레임 딸기정원 |
| · 귀농 연도 | 2016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딸기 농가에서 1년 정도 현장 체험 |

귀농귀촌 Key Point!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딸기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의 핵심동력 ‘충진 완료’

최근 사회를 주도하는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와 맞물려 농촌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차 산업이다. 이러한 변화를 일찍이 인지한 하미경·김명덕 부부의 귀농 결심에는 6차 산업이라는 밑그림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들 부부의 딸기농원에 들어서면 체험교육장이라는 이색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공간은 딸기를 비롯하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제철 농산물을 소재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딸기체험이라고 하면 보통 5~10분 사이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체험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딸기체험을 포함한 미니 동물농장까지 오픈할 계획입니다. 미니 동물농장에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동물을 만져보고, 동물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사계절 체험 농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체험 농장에서 토끼 잡기 놀이와 강아지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비롯한 소근육 발달과 대근육 발달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미경 씨는 행여라도 체험놀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김명덕 씨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IT 기술과 체험농장을 융합하여 눈으로 보는 IT와 실제 만져보는 IT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하미경 씨의 남동생 부부와 여동생 부부가 귀농 의사를 밝혀왔고 이들도 곧 귀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가족이 이 부부와 합류하게 되면서 하미경·김명덕 부부가 구상중인 6차 산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6차 산업으로 출발하는 설레임 딸기정원의 계획은 우선 피자체험, 다크 초콜릿 풍뎉, 미니 동물농장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외 시간은 주 1, 2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도자기 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부여 지역의 제철 과일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예를 들면 부여의 대표 과일인 수박과 멜론을 이용한 팥빙수 체험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민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





농사는 이론이 아닌 육체화된 체험이다

이 부부가 귀농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 직장인으로서의 피로 누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부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분야 총괄 관리자로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김명덕 씨는 스트레스와 과로 누적에 의한 왼쪽 눈 실명 위기까지 경험했다.

“병원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퇴근 후 시장을 봐서 가족들에게 먹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또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밤낮없이 일하다가 실명 위기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년퇴직한 선배가 ‘명덕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네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일을 해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김명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정년퇴직한 직장 선배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다. 정년이 되면 아들이 대학생이 되는데,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정년이 없는 귀농에서 찾아낸다. 농업은 아직 미개척 분야이고 안정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판단이 선 것이다. 하지만 귀농계획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하미경 씨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다.

“아내가 저에게 제시한 첫 번째 숙제는 직접 농사를 체험하고 검증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컴퓨터만 만지던 사람이 몸 쓰는 농사일을 할 수 있을지 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직접 농가에 가서 손으로 퇴비를 만져가며 머리가 아닌 몸으로 농사일을 하나씩 배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1차 테스트를 통과한 후 다시 주어진 2차 테스트까지 무리 없이 통과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온몸으로 딸기 농사기술을 습득하자 하미경 씨도 남편인 김명덕 씨의 귀농 결심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귀농 승낙을 받고 나서도 6개월 정도 논산에 있는 딸기농장에서 실질적인 농사체험을 자처했다. 딸기 농사 체험 과정에서 딸기 농사가 대중화되어 있는 논산 지역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귀농지역을 부여군 구룡면으로 선택한다.

10년 동안 겪을 일을 1년 만에 다 겪었던 시련의 나날들

귀농지역을 결정한 후에는 농토 구매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딸기 농사에 알맞은 좋은 농토를 구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시간만 무려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땅 구매부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땅 구매가 어려워서 포기하려던 순간에 구룡면 주정리 이만훈 이장님의 소개로 현재 딸기 하우스 시설을 갖춘 땅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 구매 이후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또 다른 일이 터져버렸다. 땅을 구입하고 시설하우스와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집과 하우스 설치를 도맡은 건축업자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면서 시작됐다.

딸기 정식 날짜까지 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이미 딸기 육묘 값 1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딸기 정식이 미뤄지면서 추가로 육묘 보관비를 지불해야 했다. 또 예정보다 하우스 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딸기 농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국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양의 딸기를 수확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구룡면 주정리에 건축 중인 살림집이 이사 날까지 완공되지 않은 것이다. 살고 있던 집에서는 계약 날짜가 지나서 나와야 하는데 이사 갈 집은 완공되지 않았으니,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단순히 농사일에 몰두하며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농사일은 기본이고 토지와 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착할 곳의 지역적 특성도 알아야 했다.

“저 혼자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아내와 어린 자식까지 고생시킨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싼 값에라도 땅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더니, 아내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저를 위로 했습니다.”





귀농을 결심할 때는
정말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시작해야 한다. ●●

“농사나 짓겠다? 천만의 말씀”

부부가 힘을 합쳐서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도중에 충청남도에서 진행한 귀농인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생겼다.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프로젝트에서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면서 1천만 원이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멘토·멘티 프로젝트에서 만난 문진호 멘토를 통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문진호 멘토는 귀농 생활에 꼭 필요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

하미경·김명덕 부부가 귀농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마인드, 땅 구매, 업자 관리라고 간략하게 정의한다. 먼저 도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농사나 짓겠다고 귀농을 생각했다면 만류하고 싶다. 귀농을 결심할 때는 정말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은 땅 구매에 대한 정보와 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처음에 마을주민 중 한 분에게 보조사업에 대해 문의했는데 그 분 대답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돌아갈 보조사업은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조사업을 받으면 지역민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모든 시설을 자부담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희망한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미경·김명덕 부부가 그리는 6차 산업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부여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날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숫자로 보는 하미경 씨 이야기

경영규모(2인)

| 비닐하우스 4,600m², 체험농장 1,000m²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딸기 재배기술, 보일러, 온도·습도 관리기
자동 안개분무 등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1억 5천만 원

연간운영비



0 원
(2016년)



6천만 원
(2017년)

8천만 원
(2018년)

연평균수입



7천만 원
(2017년 기준)

김창희

전라북도
정읍



소규모 다품종으로 1년 내 수익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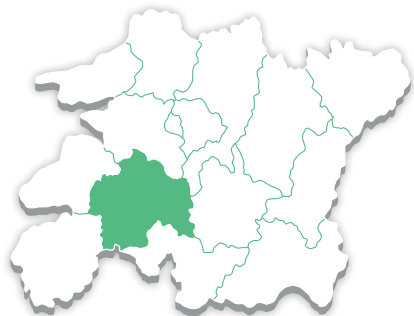
정읍 구아바 농장 김창희 씨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김창희(63)씨의 비닐하우스에서는 구아바나무가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며 열대와 일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은 수확기가 아니라서 구아바 열매의 달콤한 향내는 맡을 수 없었지만, 하얗게 핀 구아바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잘 익은 구아바 열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다.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라는 CF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구아바 재배로 인생의 황혼기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는 김창희 씨를 만나러 정읍시 신태인읍으로 달려갔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경기도 부천시 |
| · 귀농 전 직업 | 대기업 및 중소기업 회계 담당 |
| · 귀농 결심동기 | 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여유있는 농촌 생활을 위해 |
| · 귀농 선택 작목 | 구아바, 포도, 프룬, 피칸 |
| · 귀농 연도 | 2013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선도농가 탐방 및 자료 조사
경기도 안성에서 유기농, 친환경 수출 교육 이수 |

귀농귀촌 Key Point!

정확한 수익 시기를
고려하라!



귀농을 위한 첫걸음은 귀농 작물에 대한 철저한 정보 조사부터

약속시간보다 삼십분쯤 일찍 도착한 구아바 농장에서 주변 풍경을 둘러보면서 김창희 씨를 기다렸다.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김창희 씨의 안내에 따라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1,120㎡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구아바 나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구아바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열매나 생육환경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서 김창희 씨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구아바 열매는 물론이고 잎과 나무껍질 및 뿌리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작물입니다. 잎은 말려서 차로 끓여 먹을 수 있고, 나무껍질은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상록수과에 속하면서 동시에 약용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수로도 키우는 구아바나무잎은 탄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걱정될 때 차로 끓여 마시면 매우 좋습니다”

비타민 C를 비롯하여 좋은 영양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구아바잎에는 피부미용, 항암, 위장기능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병충해에 강해서 재배가 쉽고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나무에서 바로 따서 섭취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다.

김창희 씨는 2005년부터 귀농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귀농 작물을 선택하기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섰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구아바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인터넷에서 구아바 생육조건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구아바 재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구아바 농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후에 귀농 작물을 구아바로 선택했다는 김창희 씨. 그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조사를 마쳤던 만큼 작물 선택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머리 아픈 숫자 감옥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찾은 안식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어요. 매일 숫자 속에 갇혀 살다 보니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 마을에 ‘귀농’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고 차분히 귀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귀농귀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경







귀농하고 나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공기도 좋고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하다 보니
농사도 당연히 재미있어요. ●●

기도 안성에서 유기농, 친환경, 수출관계 교육을 들었습니다.”

2005년, 김창희 씨가 처음 귀농을 결심할 당시만 해도 예비 귀농인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서 직접적인 귀농 교육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품은 뜻을 접을 수도 없었기에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옛 속담처럼 몸과 머리가 고생을 해야 했다.

“마음속에 귀농 계획을 세워놓고 바로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귀농에 앞서 작물을 선택하고 그 작물의 생육환경에 대해 먼저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아바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 전국에 구아바 재배농가가 10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구아바 농장들을 찾아다니며 재배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생산품에 대한 마케팅 개념과 유통구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년여의 시간 동안 귀농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던 김창희 씨에게 귀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은 바로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그는 안 그래도 귀농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라 대답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그렇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돕기 위해 신태인읍으로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귀농을 동시에 실천할 기회를 포착한다.

하지만 처음 귀농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만한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약 5년간은 투잡을 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귀농에 대한 워밍업을 충분히 한 후에 본격적인 귀농은 2013년에 이루어졌다.

생과, 건과 등 작물 특성 따라 다양한 유통 경로

2013년 본격적으로 귀농을 단행한 김창희 씨는 거주할 집과 농사지를 땅을 구입해야 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예산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딱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영농시설 정부지원금 4천 600만 원과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택과 농지를 구입했다. 그리고 정읍농업기술센터에서 마케팅 교육, SNS 및 블로그 운영, 농기계 작동방법 등을 배워서 현재는 홈페이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부 지원이 도움이 됐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어요. 지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제가 소규모 다품종 농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수가 작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구아바는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 작목이 아니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비록 지자체 지원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었으나, 그는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개척한다는 정신으로 자신만의 가공 방법을 찾아낸다. 우선 생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아바가 있다. 프룬의 경우에는 생과와 건과 두 가지 다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그리고 피칸 또한 건과류이기 때문에 수확기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유통시킬 수 있다. 또 최대한 지역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정읍시 로컬푸드 네 곳에 판매 등록을 하고 판매중이다.

“귀농하고 나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공기도 좋고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하다 보니 농사도 당연히 재미있어요.”

김창희 씨는 판로 개척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병행하며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정읍 구아바농장’에서 매니아층 확보는 물론 지역 로컬푸드를 통한 오프라인은 입소문을 타고 인기 가공행진 중이다. 작물의 특성상 생과와 건과 그리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기에 판로도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다.

귀농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표현하는 김창희 씨.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 갈등 없이 매우 순조롭게 풀려나갔다고 한다.



틈새시장 공략과 소규모 다품종 농법으로 연중 수익 창출 가능

김창희 씨는 구아바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색 작물들도 전략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작목이 아닌 세 가지, 네 가지 작목을 동시에 재배하는 것은 그만의 특별한 귀농 철학 때문이다.

“농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작물은 수확기에만 수입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자금 회전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수확 시기를 달리하는 작목을 추가로 선택하고, 또 열매를 건조시켜 일년 내내 출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확기를 고려한 부분과 연중 유통을 위해 건조 가능한 작목을 선택한 부분에서 전직 회계 담당자다운 김창희 씨의 꼼꼼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 남들이 취급하지 않는 작목을 선택해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도 그만의 농사 노하우다. 현재 재배 중인 작목은 구아바를 비롯하여 피칸, 프룬, 포도 등이다.

한편, 스스로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는 김창희 씨가 귀농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작물을 잘 선정해라. 틈새시장에 적합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병충해에 강한 친환경 작물을 선택해라, 농산물의 수익성을 사전에 조사해서 대처해라. 둘째는 재배기술을 미리 숙지하고, 선정 작목의 생태와 활용도를 파악해라. 시설투자에 대한 규모와 귀농 환경에 대해 조사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투자액과 시설규모를 정해라. 셋째, 틈새시장 개척전략과 농산물 홍보 전략을 세우고, 수입 발생 전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한 전략을 세워라. 마지막 네 번째 안정단계에서는 다수확을 위한 기술력 확보와 소량 다품종 작물을 개발하여 자금을 순환시켜라, 친환경 농법 개발과 새로운 작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로 정리할 수 있다. 귀농귀촌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만드는 방법, 귀농귀촌 사례에 대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꼭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최근 귀농 정착기에 접어든 김창희 씨는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서 새로운 작물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숫자로 보는 김창희 씨 이야기

경영규모(1인)

| 비닐하우스 1,120m², 노지 1,492m²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과수작물 및 열대작물의 재배기술, 비닐하우스 및 건조기
저온창고 등

경영규모



1인

초기투자비



1억 6천만 원

연간운영비



1천 200만 원
(2016년)



1천 500만 원
(2017년)



1천 800만 원
(2018년)

연평균수입



5천만 원
2017년 기준

이정호

강원도
홍천



시골에서도 억대 연봉 가능해요!



파머대디 이정호 씨

서울 한복판에서 한정식 집을 운영하던 이정호(39)씨는 쉬는 날도 없이 일에만 매달리던 일상을 떠나 자신의 삶을 찾고 싶었다. 도시를 떠나 강원도 홍천으로 귀농한 그는 '파머대디'라는 건강즙을 생산하여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 홍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명품 브랜드로 만들 수 있었던 그만의 노하우를 들어본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 귀농 전 직업 | 요식업 |
| · 귀농 결심동기 |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
| · 귀농 선택 작목 | 취즘, 사과즙 등 |
| · 귀농 연도 | 2014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홍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농식품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등 |

귀농귀촌 Key Point!

뭉치면 이룰 수 있다



나를 찾기 위해 농촌으로

2015년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으로 귀농한 이정호(39)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식당도 꽤 잘 되었지만 주말이면 더욱 바쁜 일상생활에 서서히 지쳐갔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제 사생활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모든 자영업이 마찬가지로 하지만 주말이면 더욱 바쁘고 손님들에게 시달리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밤과 낮이 바뀐 생활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데 어느 순간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이 씨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배 밭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래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생활하겠다고 결심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총각이 강원도 홍천에 등지를 틀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침 부모님이 은퇴하시며 귀농 계획이 있으셔서 토지매입 부분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조건을 알아봐도 남양주는 귀농 지역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고, 후계농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귀농자금 지원 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젊은층 귀농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막상 귀농해서 자리잡으려고 하면 정책적인 면이 멀게 느껴지더군요.”

그는 가공공장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면소재지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매일같이 경매와 공매 사이트를 찾아보며 지냈다. 그러다가 강원도 홍천에서 농장의 일부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꿈에 그리던 귀농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홍천 북방면 집터에 20평 규모의 집을 지어 1년여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다. 이 씨는 가공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온 가족들이 단란하게 지낼 전원주택을 구상중이다.





실패 후에 얻은 값진 교훈

2015년 귀농 후 그가 처음 시작한 농사는 멧돌 호박이었다. 밭이 경사도가 있다 보니 작목 선택 시 어려움이 있었다. 산에서 무농약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고 즙으로 가공했을 때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직접 농사일을 접하기는 처음이었던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만 3천여㎡ 농장에 멧돌 호박(높은 호박)을 심어 수확했지만 첫해 매출은 고작 700만 원에 불과했다. 수익도 없었지만 농산물 보관도 난관에 부딪혔다. 멧돌 호박 보관도 마땅치 않고 상품 가치도 하락해 1t 가량의 멧돌 호박을 50만 원에 처분해야 했다.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했지만 농산물 특성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행착오 과정을 비싸게 치렀죠. 귀농하면서 고려하고 또 고민할 부분이 바로 작목 선택이거든요. 단순히 특이하고 남들이 권하니까 하는 건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나에게 맞고 현재 소비자의 기호에 적중할 만한 작목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가 현재의 칙즙을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 멧돌 호박의 실패로 별나무를 잘라서 팔기도 하고 다른 작물 재배도 하며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농사를 접고 산자락 밭을 개간하면서 나온 칙을 직접 캐서 즙을 내려 지인들에게 선물했고, 이를 먹어본 지인들이 구매 의사를 밝혀왔다.

“홍천 북방면의 야생 칙을 활용하여 건강즙을 만들어 판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지의 신선한 농산물로 제조한 건강한 식품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을 들여 3개월간 즙 내리는 기술을 연마했어요.”

그는 체계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년전용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후 130㎡ 규모의 가공공장을 건립했다.

소규모 농업인도 잘 살 수 있다

이정호 씨가 직접 캐서 생산하는 취즙을 대표로 하는 ‘파머대디’는 그의 힘합스러운 발상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는 “제가 평소 힙합을 좋아해서 힙합스러운 제호를 생각하다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힙합을 좋아하는 그는 귀농 후 가정을 꾸렸고, 도시생활과 달리 정신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의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자녀가 어려서 어린이집 등하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공장이 읍내와 멀지 않아 이 또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부모들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즙을 만든다는 자부심에 저 역시도 건강해지는 거 같습니다.”

이 씨는 귀농할 당시 유동성 자산이 거의 없었으며, 맺돌 호박의 실패로 자금 조달이 힘든 상태였다. 청년전용창업 자금과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에 카드론까지 동원하여 창업하였다. 하지만 그는 과거 자신의 주특기였던 마케팅 부분을 농산물에 적용해 판로를 개척해 나갔다.

“소규모 농업인은 돈을 못 번다구요? 스스로의 좁은 마인드 내에서 갇혀 있다면 발전하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소규모 농가도 충분히 역대 연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농업시장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생태계를 잘 활용한다면 시골에서도 역대 연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 후 소셜커머스 플랫폼 식당을 운영하면서 터득하게 된 온라인 판매가 ‘파머대디’ 판로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마케팅을 통해 원주를 비롯한 강화, 홍천 로컬푸드 3곳, 남양주 마트에 납품하면서 월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 가게당 100만 원씩 매출을 올리면 10곳이면 1천만 원, 100곳이면 1억 원이다. 마케팅을 통한 영업 신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그는 이를 위해 공장 주변 490㎡ 규모의 HACCP 공장 신축 계획도 세웠다.





객관적인 자료로 농업시장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생태계를 잘 활용한다면
시골에서도 역대 연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토불이’ 지역 농산물이 소비자 입맛에 ‘딱’

직접 캔 칩의 즙을 내려 ‘파파건강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첨가물 없는 건강즙을 판매하자 지역 농산물의 신선한 품질이 온라인을 통해 입소문 나기 시작했다. 판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연매출 2억 원을 웃돌았다.

“진정성 있는 제품이 품질은 소비자가 먼저 알아보더군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야생 칩을 먹어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정호 씨는 직접 지은 농산물과 흥천 지역 농산물을 마을 주민으로부터 구매하여 건강즙을 만들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제품의 품종이 늘어나도 원칙만은 지키려 한다는 그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면 매출로 이어진다는 상식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라지즙이 인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양배추즙도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자와 옥수수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 가운데 하나다. 이정호 씨는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주민들로부터 구매하여 싱싱한 제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한창 바쁜 시기에는 지역 주민들 일손을 빌어 수확도 하고,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도 마을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농부들이 농사기법만 알아서는 안된다고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농산물에 비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질을 신뢰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긴 했으나 아직도 품질보다는 가격만으로 제품을 논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바른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6차 산업의 농부로서 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업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숫자로 보는 이정호 씨 이야기

경영규모(5인)

| 농장 33,000㎡, 가공공장 130㎡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칩 착즙 기술, 원료 가공기술

경영규모



5인

(부부 + 직원 3인)

초기투자비



3억여 원

(시설비+토지구입비)

연간운영비



1억 8천만 원
(2016년)

2억 원
(2017년)

연평균수입



4억 원

최진섭

전라북도
부안



고단백 영양소의 보고, 미래형 슈퍼푸드 꽃병이를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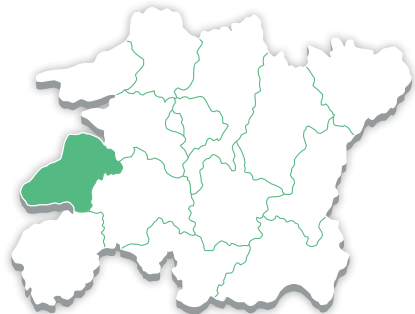
다열림농장 최진섭 씨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식생활 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최근 미래형 슈퍼푸드 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식용 곤충이다. 질 좋은 단백질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식용 곤충 사육 농가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식용 곤충 중에서도 식용 굼벵이를 사육하고 있는 최진섭(61)씨의 '다열림 굼벵이 농장'을 찾아봤다.

- | | |
|-----------------|----------------------|
| • 귀농 전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
| • 귀농 전 직업 | 안경원 운영 |
| • 귀농 결심동기 |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
| • 귀농 선택 작목 | 굼벵이, 오디, 꾸지뽕, 아로니아 |
| • 귀농 연도 | 2015년 |
|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 전라북도 귀농귀촌학교 |

귀농귀촌 Key Point!

미래를 위한 투자다



식용곤충을 키우는 스마트팜 농법의 열쇠를 풀다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다열림농장’에서는 굽벥이 사육이 한창이다. 농장 주인인 최진섭 씨의 안내를 받아 사육장 안으로 들어서면, 층층으로 된 선반에 박스형 상자들이 칸칸이 들어차 있다. 최진섭씨가 리빙박스의 뚜껑을 열자 톱밥 속에 숨어있던 굽벥이들이 꿈틀꿈틀 존재감을 드러낸다.

굽벥이들은 발효시킨 참나무 톱밥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육통 안에서 자란다. 사육통 안에 들어있는 톱밥을 헤치자 그 속에 숨어있던 하얀색 굽벥이들이 꿈틀대며 손바닥을 타고 기어오른다. 벌레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날쌔다는 점에서, 느린 사람을 비유하는 ‘굽벥이 같다’는 속담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또한 여기에서 사육되는 굽벥이들은 식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꽃벥이’라는 새로운 별칭으로 불려진다.

“사육장은 굽벥이 생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습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덥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자연환경에 의지해서 굽벥이를 사육하게 되면 1년에 딱 한 번 굽벥이 수확이 가능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굽벥이 생육환경에 맞는 온도와 습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굽벥이 수확이 연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일일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려고 하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벥이는 굽벥이의 다른 이름이다. 본래 이름은 흰점박이꽃무지의 애벌레이다. 성충이 된 흰점박이꽃무지 성충들이 계속해서 알을 낳기 때문에 따로 알을 공급받지 않고도 꽃벥이를 키울 수 있다. 최근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자 종목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굽벥이 사육 농가들의 곤충 사육법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

미래 식량으로 떠오른 곤충사업에서 발견한 비전

“귀농 전에는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했었는데 아들이 안경원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해서 물려주고 나니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니까 매일 밖으로 돌면서 유흥을 즐기고 다니니 제 건강을 걱정



한 아내가 귀농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유에 따라 귀농을 결심하고 2014년 12월 28일부터 부안군 줄포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라북도 귀농귀촌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에 필요한 땅을 알아봤습니다.”

최진섭씨 부부는 귀농 전부터 굽벙이 사육을 결정하고 내려왔으나 아직 사육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귀농 당시에는 오디, 아로니아, 꾸지뽕 등을 심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작물들을 심고 나니 수확까지는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는 사이 굽벙이 사육시설을 갖추게 되어 처음 계획대로 굽벙이 사육도 시작했다. 굽벙이는 1년 증식하면 바로 생산이 가능해서 수익창출이 빠르고, 또 좁은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고 냄새가 안 난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가치가 좋은 미래 식량이라고 해서 곤충 사육을 결정했지만 곤충 사육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 당시만 해도 곤충 사육에 대한 교육도 없었으려니와 사육 농가들조차 드러내놓고 사육법을 가르쳐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사육법을 배우려면 컨설팅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만 겨우 조금 알려주는 정도였다. 그래서 최진섭씨는 컨설팅보다는 발품을 팔아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제가 굽벙이 사육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먼저 시설한 농가들이 없어서 어느 회사 제품이 좋은가에 대한 자문을 구할만한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곤충 사육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하나둘씩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취합한 정보들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저만의 사육방법을 터득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던 시절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굽벙이 사육 사업이 부안군 ‘신 소득작물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군비 1억 원, 도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지원받은 돈으로 굽벙이 사육시설에 꼭 필요한 대형 톱밥 발효기계를 들여놓으면서 굽벙이 대량 사육 환경이 완성되었다. 톱밥 발효기는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겨울에도 톱밥 발효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굽벙이 사육 농가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스마트 혁명의 산물이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곤충은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손꼽힌 바 있다.

그래서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가 소득도 올리고 건강도 지켜주는 효자 곤충 굽벥이

예로부터 굽벥이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뼈가 부러졌거나 빠졌을 때 큰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간압, 간염, 유방암, 누적된 피로 등 암과 간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진다. 영양소도 풍부하여 단백질이 55%, 지방 17%가 함유되어 있고, 칼슘과 칼륨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건강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회식이 잦은 직장인들을 위한 숙취해소와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술을 좋아하는 주류파들에게 인기가 높다.

“살아있는 꽃벥이를 바로 먹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식용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성충이 되기 전의 꽃벥이를 건조 과정과 열처리를 통해 바삭 썰내면 식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저의 농장에서는 꽃벥이를 그대로 건조시킨 형태와 환, 과립형, 분말형 등으로 가공한 다양한 타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꽃벥이 가공식품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굽벥이가 식용식품으로 허가 난 후에도 제품 허가를 받아야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또 분말, 과립, 환 형태로 가공하기까지는 각 상품에 대한 식품 고유번호를 취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허가에 필요한 많은 서류였다. 다행히 관계 기관 담당자와 부안군 기술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었다.

“식품 허가를 받고 나서는 다섯 농가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부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가공기계를 들여와 가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포장사업도 지원사업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곤충은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손꼽힌 바 있다. 그래서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와 맞물려 ‘다열립 굽벥이 농장’은 현대화된 자동화 시스

템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 매진에 돌입한 상태이다.

귀농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

최진섭씨는 자신이 처음 굽벙이 사육을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만큼 굽벙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도 많다. 먼저 귀농을 결심했다면 시작 전에 선도농장을 찾아다니면서 각 농장마다의 특색을 잘 알아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코칭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서 시작하면 종자를 죽이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적당히 구매해서 증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자 팔기 좋아하는 업자들은 처음 시작하는 농기들에게 종자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 무조건 많이 가지고 시작하라고 부추기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막상 많이 사서 시작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다. 적당한 양으로 시작해서 한 코스를 돌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제가 지원 사업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지자체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곤충 사육을 위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사육방법도 알려주고 종자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곤충 사육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많이 생기고 또 미래 식량자원으로 곤충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촌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육도 쉬워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식용 곤충 사업으로 환경도 지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비전 있는 ‘다열립 농장’의 미래를 상상해본다.

숫자로 보는 최진섭 씨 이야기

경영규모(6인)

| 대지 1,650㎡, 사육장 330㎡, 기타 시설 660㎡

필요한 기술 및 시설

| 사육장, 톱밥관리실, 창고, 저온저장고

경영규모



2인

(부부)

초기투자비



5천만~1억 원

(토지 구입비 별도)

연간운영비



5천만 원
(2016년)



2천만 원
(2017년)



1천만 원
(2018년)

연평균수입



1천 5백만 원

(2017년 기준)

귀농귀촌 준비 절차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Step 7

1 귀농 정보를 수집하자!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관련 우수사례



상담전화



SNS

2 가족들과의 충분한 의논

가족들과 귀농 결심에 대한 충분한 의논 후에 동의를 얻습니다.



3 어떤 작목을 기를까?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 수준, 자본 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품목별 출하지역



재배적지



관련 우수사례

4 영농기술을 습득하자!

귀농귀촌 자체 교육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귀농귀촌 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정보



작목 종합정보



관련 우수사례

5 어디에 정착할까?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재배적지



혈촌



관련 우수사례

6 주택과 농지를 구매하자!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비교 후 선택합니다.



농지은행



빈집정보



지원정책

7 영농계획을 수립하자!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목별 농작업일정



농산물 소득정보



관련 우수사례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 필요

- 국회 본회의 통과('14. 12. 29) 및 공포('15. 1. 20)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15. 7. 21)

법안 주요내용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의 규정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



귀농어 · 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낙후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지역)
이주자 우대 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원사업, 농업기술, 농촌생활정보 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비용 지원

-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시책 추진
- 박람회 개최
- 교육지원
- 일자리 알선
- 창업자금 및 기술·경영 컨설팅
-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
- 농지·축사·양식장·어선·어구 또는 어장 매입·임차 비용
-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 지원
- 유희농지·유희시설 중개·알선 등

귀농귀촌종합센터 위치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위치

[우] 0677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운영시간

방문상담
4층 종합센터 상담실 | 평일 09:00~18:00

전화상담
1899-9097 | 평일 09:00~18:00

귀농교육
4층 교육장 1·2 | 평일 15:0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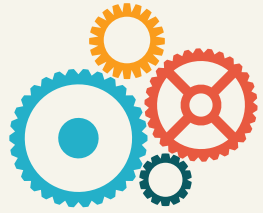
주관 및 운영기관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목적 및 기능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지원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귀농귀촌종합센터 사업소개

귀농 · 귀촌 희망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 · 귀촌 정착을 지원

기획 · 정책 홍보



중앙 귀농귀촌 사업 기획 및 지원정책 홍보

- 신규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 대응
- 귀농귀촌 종합계획 실행 프로그램 기획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선정 · 성과평가
-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기획 · 운영
- 귀농귀촌 실태 및 정책을 조사
-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 귀농귀촌 워크숍 및 정책 협의회 운영
- 귀농귀촌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기타 귀농귀촌 관련 정책 홍보

귀농 · 귀촌 교육



대상, 유형, 단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 귀농귀촌 공모교육 운영 및 강사 발굴
 - 연령별, 유형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귀농 장기교육('18년 신규)
 - 청년층 대상 장기 현장실습 교육
- 귀농귀촌종합센터 기초교육
 - 귀농귀촌아카데미(월/화, 주 · 야간)
 - 소그룹 강의(월/화/목/금, 격주 수)
- 이동식 귀농귀촌 One Day 교육

※ 자세한 교육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 참고



전문 상담



귀농귀촌 관련 종합상담 제공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대상 **종합상담(방문/전화/온라인)**
-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자체 설명회'** 운영
- 귀농귀촌 박람회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상담관'** 운영
- **1:1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운영
 - 귀농설계, 컨설팅 등 맞춤형 현장전문가 연계 지원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SNS 등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제공

- 온라인을 통한 **귀농귀촌 최신정보 제공**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 귀농귀촌종합센터 모바일 **스마트앱**
- 귀농귀촌종합센터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건립 · 운영**

지원자격



귀농 · 귀촌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 · 운영하고 있는 시 · 군

사업내용



주거공간 30세대 이상,
세대별 텃밭(300㎡ 내외),
공동 실습 농장, 공동 퇴비장,
공동 자재보관소, 시설하우스,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쉼터 등 설치

지원조건



개소당 80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2년차 사업으로 추진

1년차

40억 원

2년차

40억 원

운영



(‘15년) 금산 · 제천,
(‘16년) 영주 · 흥천 · 구례,
(‘17년) 고창 · 영천 · 함양

신청방법



해당 시 · 군에 문의
금산(041-750-3587)
제천(043-641-3432)
영주(054-639-7323)
흥천(033-430-4204)
구례(061-780-2085)
고창(063-560-8880)
영천(054-339-7646)
함양(055-960-4525)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제공



운영 시·군



73개 시·군, 381개소 운용(2017년 12월 기준)

- 강원 8** (태백 1, 홍천 3, 영월 1, 인제 1, 양양 2)
충북 46 (충주 14, 제천 3, 보은 1, 옥천 7, 영동 6, 증평 2, 괴산 2, 단양 11)
충남 40 (공주 3, 서산 1, 부여 2, 서천 7, 청양 3, 홍성 12, 예산 6, 태안 6)
전북 102 (정읍 10, 남원 11, 완주 14, 진안 7, 장수 12, 임실 11, 순창 26, 고창 11)
전남 73 (여수 1, 순천 1, 나주 4, 곡성 9, 구례 8, 고흥 5, 보성 1, 화순 9, 장흥 1, 강진 10, 해남 2, 영암 4, 함평 2, 영광 1, 장성 2, 완도 1, 진도 5, 신안 7)
경북 62 (경주 1, 안동 5, 영주 2, 영천 5, 상주 11, 문경 9, 의성 11, 청송 1, 영덕 1, 고령 7, 성주 1, 예천 2, 봉화 5, 울진 1)
경남 45 (창원 1, 진주 1, 의령 8, 함안 2, 남해 1, 하동 7, 산청 3, 함양 1, 거창 19, 합천 2)
제주 5 (제주시 4, 서귀포 1)

입주자 비용 및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문의

귀농닥터 지원 서비스

귀농·귀촌 현장 애로사항 해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멘토로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안정적인 농촌 진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방법



- **운영기간** : 3월~11월
- **운영내용** : '귀농닥터'(멘토)가 '신청자'(멘티)에게 농촌정착에 필요한 현업 중심의 내용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도
- **운영방법**
 - **귀농닥터_귀농멘토** : 1인당 5명(최대 25회)까지 / 1인당 10만원 자문수당 지급
 - **신청자_귀농멘티** : 1인당 5회 신청 가능 / 자부담비 없음
 - **교육장소** : 멘토 농장 등 방문을 통해 현장맞춤형 1:1 상담지도 및 실습, 벤치마킹 실시
 - **결과보고** (www.returnfarm.com 온라인 시스템 연계)
 - 귀농멘토(귀농닥터) : 멘토링 진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 등록
 - 귀농멘티(신청자) : 온라인 만족도 조사 작성 / 등록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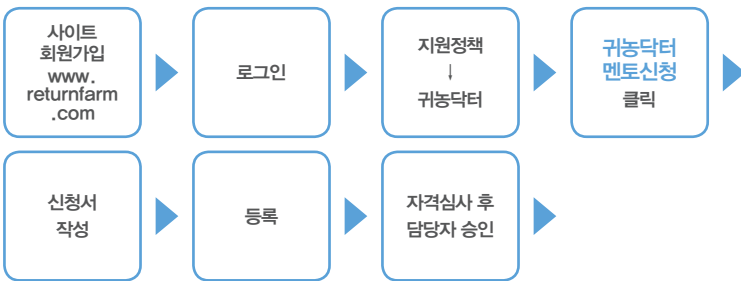


- **귀농닥터(귀농멘토)**
 - 5년차 이상 귀농선배 또는 분야별 현장전문 활동가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선도농업인
 - 농식품부 최근 2년 이상 지정된 귀농귀촌 민간교육기관 중 2년 이상 활동한 귀농전문가
 - 농식품부 지정 농업마이스터 · 신지식농업인 · WPL현장지도교수 등
- **신청자(귀농멘티)**
 -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관련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희망자
 - 귀농귀촌 준비단계인 희망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애로사항을 겪는 농촌거주 1년 미만(전입일 기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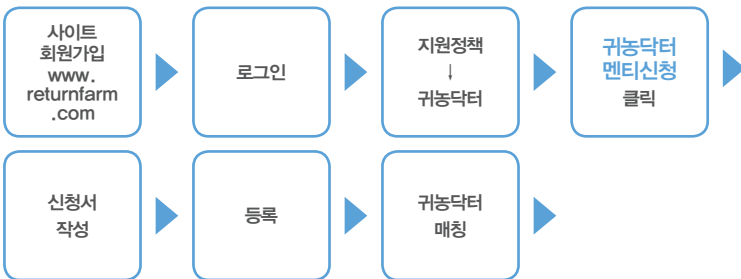
[1] 귀농닥터 이렇게 등록하세요

멘토 신청



- * [**지원분야 작성**] 품목, 지역, 연락처 등 필수항목 상세히 작성
- * [**수정방법**] 사이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귀농닥터 → 자격신청내역 수정
- * 귀농닥터 풀(Pool) DB 구축 - 자격 갖춘 귀농닥터 지자체 추천 및 모집 중

멘티 신청



- * [**인적사항 작성**]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 귀농닥터, 상담시간 선택
- * [**문의내용**] 자문받고자 하는 이유 및 귀농 준비에서 겪는 문제점 상세히 작성

귀농닥터 모집
& 멘토링 신청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returnfarm.com

문의

귀농닥터 담당
02-2058-2854 / edu@ep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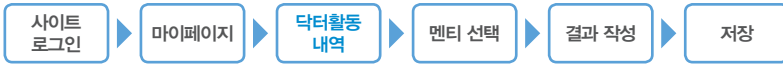
[2] 멘토-멘티 1:1 매칭 서비스

- **교육장소** : 멘토 농장(지정장소) 방문을 통해 1:1 상담지도 및 실습, 벤치마킹 실시
* 필요에 따라 이론교육, 현장실습 및 코칭, 컨설팅 등 다양한 기법 활용
- **상담시간**: 2~3시간 / 상담시기는 상호간 조정 가능

[3] 서비스 지원 / 결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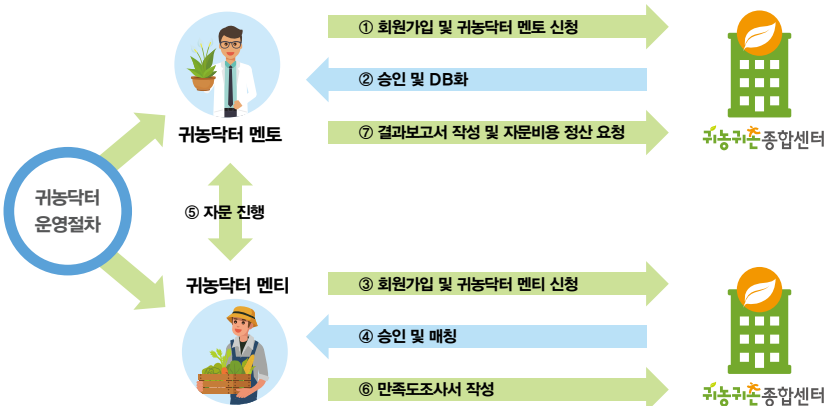
- **온라인 활용 서비스** : 매칭 상담,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 **전문가 매칭 서비스** : 온라인을 통한 '신청-매칭-운영-결과'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귀농닥터 간담회 실시** : 다양한 현장소통 기회 마련 및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 **결과보고** : 지원결과에 따른 결과보고(멘토) 및 만족도조사(멘티) 작성
- **결과관리** : 결과보고/만족도조사 제출 후 '멘토 ⇒ 자문수당 지급' & '멘티 ⇒ 다음 회차 진행' 가능

멘토 - 결과보고 작성방법



* [결과보고 작성시] 교육결과(세부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 / 교육성과(멘티의 문제해결 여부, 상담 후 변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작성) / 활동사진 2개 이상 첨부(사후 사례자료 활용)

멘티 - 만족도조사 작성방법



[4] 귀농닥터 활동

지원 분야 및 내용

- **귀농귀촌 정착** : 지역별 귀농귀촌 관련 주요정보(지역특색, 품목 등) 및 현지 안내 등
- **작목 선택, 재배기술** : 과수, 채소, 잡곡, 버섯, 약용작물, 축산 등
- **농산물 가공 및 유통** : 장류가공, 효소, 유통 및 마케팅 등

멘토-멘티 활동내용



- ‘귀농멘티’가 초기 농촌지역 정착단계에 필요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 제시 및 지원
- ‘귀농멘토’가 보유한 해당품목 영농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 현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의 상담
- ‘귀농멘토가 귀농멘티에게’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도

2018년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 정책

경기도

김포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여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평택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 : 기초 영농교육, 영농현장 연수 실습
연천	· 인구 유입 장려금 지급 : 단독주택 세대당 (수리비) 100만원, (설계비) 50만원
파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강원도

동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세대당 보조 (1년차) 80만원/월 , (2년차) 50만원/월 · 귀농귀촌 교육 제공
삼척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만20~45세 이하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빈집 수리비 및 영농기반 조성비 지원 : (빈집) 가구당 500만원, (영농기반 조성) 가구당 500만원 이내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 기초교육 및 실습 무료 제공
영월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만20~45세 이하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대상 60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1,000만원(60% 지원) · 전입세대 지원 : 관내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1인 10만원, 2인 15만원, 3인 20만원 · 전입학생 지원 : 사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대학생 35만원/학기, 고등학생 30만원/학기
원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만20~45세 이하,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 인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만20~45세 이하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대상, 개소당 600만원 이내
 -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 무료 이론 및 실습 교육
-

- 철원**
-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600만원(50% 보조)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원, 총 사업비 600만원
 - 귀농인 주택 설계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50% 보조), 총 사업비 1,000만원
 - 소형 농기계(관리기) 지원 : 세대당 250만원(50% 보조), 총 사업비 2,500만원
 - 비가림하우스 지원 : 세대당 50% 지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전입지원금 지원 : 세대당 10만원
-

- 평창**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만20~45세 이하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인 집 수리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 개소당 600만원 이내
 - 귀농인 기초 영농시설 지원 : 사업비 50% 한도
 -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대상, 개소당 600만원 이내
-

- 홍천**
- 신규 영농 정착 지원 : 세대당 100만원 한도(50% 보조)
 -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대상, 개소당 600만원 이내
 - 귀농인 사랑채 운영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된 20~45세,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세대원 2인 이상 귀농인
-

- 횡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만 20~45세 이하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귀농 정주지원 농가 육성 : 1일 2만원 기준, 150일(5개월) 한도 지원
 - 귀농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마을당 200만원 범위 내
 -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행사 지원 : 가구당 50만원 범위 내
 - 귀농인 농기계 대여 : 사전 신청
 - 귀농인 지방세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6개월 간 50% 감면
-

충청북도

- 청주**
- 귀농창업 활성화 소자본 창업 실행비 지원 : 1,000만원
 -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500만원(50% 보조)
 -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

- 충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원
 - 귀농인 현장실습비 지원 : 멘토·멘티 1팀 당 60만원
 - 귀농 창업농 실증시험 지원 : 세대당 1,000백만원(60% 보조)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 귀농인의 집 지원 : 동당 임대료 15만원/월
 - 귀농인 농가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
 - 주민 융화 교육 제공 : 개소당 200만원
 - 도시민 유치 농심체험 : 체험프로그램 운영 720만원

- 제천**
-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월 12만원, 최대 600만원
 - 귀농 창업농지역 정착 활성화 사업 : 개소당 1,000만원
 - 영농기반 조성사업(비닐하우스) : 개소당 310만원(50% 보조)
 - 영농기반 조성사업(농기계, 과수시설) : 개소당 300만원(50% 보조)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개소당 200만원

- 보은**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500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500만원 범위 내
 - 농지 구입 세제 지원 : 농가당 200만원 범위 내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 지원 : 20만원 범위 내
 - 귀농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지역주민 20명 이상 참석, 50만원 한도 내
 - 귀농인 멘토제 지원 : 멘토 비용 3개월간 50만원/월
 - 주택설계비 지원 :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옥천**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한도
 - 농기계 구입 지원 :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150만원
 - 농지·주택 구입 세제지원 : 취득세 300만원 한도 내

- 영동**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소형 농기계 지원 : 농가당 관리기 115만원, 운반기 135만원 한도(50% 보조)
 - 소형 저운저장고 지원 : 농가당 300만원(50% 보조)
 - 영농 정착 지원 : 과수시설 설치비 농가당 500만원(50% 보조)
 - 소득 증대 지원 : 운반차 농가당 150만원(50% 보조)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 한도
 -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세대당 150만원 한도(50% 보조)

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세대원 수별 차등 지원, (~2인) 200만원, (3인) 300만원, (4인~) 400만원 · 1귀농인 1직원 담당제 : 애로사항 청취 및 안내
진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
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
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 · 소규모 농기계 지원 : 농기당 200만원(75% 보조)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개소당 1,000만원 지원
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 ·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세대당 120만원(60% 보조) · 소형 농기계 지원 : 세대당 120만원(60% 보조) · 전기·수도·인터넷 지원 : 세대당 200만원 · 귀농인 멘토제 지원 : 멘토(후견인)당 30만원/월 지원 · 마을회관 활용한 귀농인의 집 운영 : 마을회관 등 월 임대료 지원 ·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성화 지원 : 개소당 100만원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0명 이상(약 3회) 체험 기회 제공 ·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 교육 : 약 3회, 200여명 교육 예정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 지원 · 귀농귀촌인 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 빈집·토지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행사 지원

충청남도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지원센터 운영 · 귀농 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 귀농 교감프로그램 운영 · 귀농창업 활성화(창업컨설팅, 창업 재료) 지원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단계별 컨설팅 · 귀농지원센터 운영 · 귀농귀촌 사전교감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세대당 300만원·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200만원· 건축 설계비 지원 : 세대당 100만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집들이 운영 : 세대당 50만원· 현장실습 교육 : 3~7개월 간 (멘토) 40만원/월, (멘티) 80만원/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교육, 컨설팅 및 창업 지원· 귀농 현장 애로 지원 운영·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인 영농 정착 시범 : 세대당 1,000만원(70% 보조)·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경작지 임차료 지원 : 세대당 100만원
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농장 조성 시범사업 : 세대당 12,000만원(70% 보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조당 600만원, (멘토) 200만원, (멘티) 400만원· 친환경 제철 농산물 꾸러미 판매 지원 : 개소당 750만원· 귀농인 집들이 지원 : 호당 70만원· 귀농인의 집 제공·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협회 운영 지원· 귀농귀촌 선진 현장 탐방
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현지 거점 농가 교육장 조성 : 세대당 1,000만원· 지역 귀농인 협의체 지원 : 개소당 1,000만원· 귀농인 멘토멘티 운영 : 매월 120만원 지원· 귀농정착 대학운영 : 무료 교육 제공· 귀농인 현장 애로진단 : 귀농 3년 미만 귀농인 대상 무료 컨설팅
계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인 정착 지원금 : 200만원 지원
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소규모 영농 정착 실습 농장 시범 : 세대당 800만원(80% 보조)· 농가 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 1회 500만원· 귀농귀촌 현장 애로 상담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소형 농기계 지원 : 가구당 100만원 한도(50%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지원·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 실습비 지원 : 1박 2일 체험비

-
- 금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새마을 주민 소득 기금 지원 : 연리 1%/2년 거치 2년 상환
 - 귀농교육센터 운영 : 센터 입교 시 주택임대, 교육, 체험, 현장실습 등 제공, 입교비 별도
 - 귀농귀촌 대학 운영 : 이론 및 실습 교육 20회(100시간), 교육비 무료
 -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 지원 : 개소당 보조 750만원, 자부담 33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80만원/월
 -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 건축 및 토목 설계비 50% 감면
 - 귀농인 네트워크 지원
-

- 부여**
-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 : 세대당 2,000만원(50% 지원)
 - 소규모 주택시설 개선 : 세대당 700만원(50% 지원)
 - 아름다운 귀농마을 만들기 : 개소당 1,000만원
 - 농산물 생산 유통개선 지원 : 세대당 2,000만원(50% 지원)
 -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 세대당 40만원
 - 건축 설계비 지원 : 세대당 100만원
 - 귀촌인 생활원에 텃밭 조성 지원 : 세대당 5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 : 세대당 300만원(50% 지원)
 - 귀농귀촌 화합행사 지원 : 개소당 60만원
-

- 서천**
- 빈집 수리비 지원 : 세대당 1천만원(50% 보조)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세대당 262만원
 -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 교육비 일부 지원
 - 귀농투어 운영 : 투어비용 일부 지원
 - 영농 정착 지원 : 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제공
-

- 청양**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귀촌인 빈집 수리비 : 세대당 500만원
 - 농업 생산 기반 시설 : 세대당 500만원(50% 지원)
 - 귀농귀촌인 에듀팜 농장 조성 : 세대당 2,000만원
-

- 홍성**
-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만18~49세 농산업 창업(예정)자 대상 1인당 400만원(80만원/월)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창업교육 및 심화코칭 창업 실행 시드머니 1인당 최대 1,000만원
 - 귀농인 집들이 보상 : 개소당 50만원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세대당 300만원(50% 지원)
 - 귀농인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세대당 300만원(50% 지원)
-

-
- 태안**
-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금 용자 : 세대당 2,000만원
 - 귀농인 직거래 판매 실습 : 개소당 1,000만원
 - 귀농인 창업 기반 조성 : 개소당 1,000만원
 - 신규농업인 소득창출 기반 조성 : 영농규모 0.5ha 이하, 개소당 1,000만원
 - 귀농인 정착 기반 조성 : 이주 2년 이내 만 18~49세 신규 귀농인, 개소당 2억원
 - 귀농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 : 세대당 10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 최장 5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영농 정착 기술교육 제공 : 16회
 - 귀농연착륙 적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태안군 귀농학교
 - 귀농상담센터 운영
 - 귀농 현장 애로 지원단 운영
-

전라북도

- 군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 기준단가 50%, 최대 3년, 250만원 한도 내
 - 군산시 조례 : 연리 2%, (농업창업) 2,000만원, (농지구입) 6,000만원, (농가주택) 신축 4,000만원 · 구입 3,000만원 · 수리 1,000만원 한도 내
 - 멘토 컨설팅 수당 지급 : 30만원/월
 - 주민 유대강화 지원 : (마을환영) 개소당 100만원, (집들이) 개소당 30만원 한도 이내
 - 농기계 지원 : 기계 가격의 50% 지원, 귀농교육 이수자 신청시 가점 부여
 - 비닐하우스 지원 : 330㎡기준 하우스 가격의 60% 지원, 귀농교육 이수자 신청시 가점 부여
 - 저온저장고 지원 : 저온저장고 가격의 50% 지원, 귀농교육 이수자 신청시 가점 부여
 - 귀농귀촌 교육 지원 : 7~10월, 기초 · 심화 과정
 -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

- 정읍**
- 귀농인의 집 조성 : 세대당 3,000만원
 - 귀농인의 집 운영 : 주거공간 20만원 한도, 1년 이내 거주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영농 정착 지원 : 세대당 6백만원(50% 보조)
 - 이사비 지원 : 세대당 50만원
 - 귀농귀촌 체험학교 : 상 · 하반기 2회, 2박 3일간
 - 북한이탈주민 귀농귀촌 교육 : 만 19~65세 귀농희망 북한이탈주민 30명 대상 2박 3일간 교육 제공
 - 귀농인 재능기부단 운영
 - 귀농 멘토링
-

-
- 김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최대 1,000만원(50% 보조)
 - 귀농귀촌 교육 : 기본·심화·현장실습 교육 제공
 - 예비 귀농인 임시 거주용 동지 조성지원 : 임대료 10만원/월, 6개월 거주 한도
 - 귀농귀촌인 김제 사랑 장학금 지원 : 연간 200만원
 - 도시민 귀농학교 운영 : (교육일정) 1차 : 3월, 2차 : 6월, (자부담) 4만 5천원
-

- 남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소규모 샬터 기반 조성 : 가구수에 따라 5,000만원 ~ 1억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한도
 - 이사비 지원 : 세대당 100만원 한도
 -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금 지원 : 1회, 학생 1명당 50만원
 -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 농가 660㎡(~1,320㎡까지)당 1,320만원(50% 보조)
 -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지원 : 65세 이하 농업인 대상 70% 지원
 - 사과 명품화 신규 조성 : (지원단가) 4천원/㎡, 50% 지원
 -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 : (지원단가) 14천원/㎡, (물받이) 6,200원, 50% 지원
 - 특용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 (특작중형관정) 8공/단가 7천원, (관수시설) 1.7ha/단가 2,500원
-

- 익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귀농창업 교육, 실행비 개소당 700만원
 -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 개소당 2,000만원(50% 보조)
 - 주택 수리비 지원 : 개소당 500만원
 - 이주비 지원 : 세대당 50만원
 - 소규모 샬터 기반 조성 지원 : 3가구 이상 소규모 샬터 조성 희망시 1억원 한도 내
 - 박람회 참가, 도시민 교육 및 상담 등
-

- 고창**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영농 정착자금 지원 : 1인당 100만원(1년차 50%, 2년차 25%, 3년차 25% 분할 지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귀농인의 집 임대 제공
 -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 조성사업
 - 귀농귀촌 유치·화합 우수마을 지원
 - 수도권 귀농아카데미 운영
 - 마을환영회 운영
 - 귀농귀촌 멘토사업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

-
- 무주**
- 집들이 비용 지원 : 세대당 30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만19~45세, 영농경력 5년 이내의 귀농인 세대당 500만원 지원
 - 건축 설계비 지원 : 세대당 150만원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도시민 상담,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 부안**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이사비 지원 : 세대당 50만원
 - 귀농귀촌인 정착자금 지원 : 세대당 50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개소당 500만원 이내
 -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세대당 500만원(50% 보조, 50% 자부담)
 - 소규모 비닐하우스 : 세대당 500만원

-
- 순창**
- 이사비 지원 : 세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소득 사업비 지원 : 세대당 2,000만원
 - 집들이 비용 지원 : 세대당 50만원
 - 주택 설계비 지원 : 보조 50만원 한도
 - 동아리 활동 : 동아리당 200만원
 - 멘토 컨설팅 : 30만원/월
 - 주택·농지 정보 구축 : 건당 10만원 지원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현장실습교육
 - 우수마을 선정
 - 읍면 화합행사
 - 재능기부단 운영

-
- 임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소득사업 융자사업(소득금고) 지원 : 세대당 3,000만원 한도, 연리 1.5%, 1년 거치 5년 상환
 - 귀농 정착 지원 : 세대당 200만원
 - 귀농 현장실습비 지원 : 세대당 300만원
 - 귀농귀촌 교육훈련비 : 세대당 50만원
 -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세대당 보조 최대 1,000만원(50% 보조)
 -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 조성 지원 : 개소당 5,000만원~1억원
 -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 지원 : 세대당 최대 500만원(67% 보조)
-

완주

- 주택신축/매입비 지원 : 세대당 최고 500만원 한도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최고 500만원 한도(자부담 10%)
- 농지 매입·임차비 지원 : 세대당 최고 250만원 한도
- 교육훈련비 지원 : 세대당 최고 30만원 한도
- 이사비 : 세대당 최고 50만원 한도
- 출산 장려금 지원 : 둘째아이부터 1인당 120만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성적 우수할 시, (고등학생) 연 1회 50만원, (대학생) 등록금 2백만원 한도
- 소규모 비닐하우스 비용 지원 : 세대당 최고 960만원 한도(60% 보조)
- Two-Job 지원 : 법인 또는 조합 등 취업 시 고용주에게 귀농귀촌인 임금의 50% 지원 (최대 50만원/월)
- 인턴십 지원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시 50만원/월
- 아이 키우는 가족 안심 정착 지원 : 지역 기여 활동시 50만원/월
- 동아리 활동 지원 : 개소당 20만원/월
- 재능기부 활동지원 : 시간당 2만원, 40만원/월 이내
- 귀농귀촌인 마을환영 행사 : 참여인원 40명 이상, 80만원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 체류공간 및 영농교육 200시간
- 팜투어, 팜스테이, 도시민 귀농학교 등 운영

장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 : 개소당 500만원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재능기부, 집들이, 동아리 활동, 컨설팅, 도시민 상담 등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진안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2040세대 농업인 이자 지원 : 만49세 이하 귀농 창업 융자금 이자 2년, 200만원/년
- 귀농인의 집 임대 : 6개월~1년, 20만원/월 이내
- 귀농체험학교 운영 : 연 2회(4·8월), 농촌체험, 귀농준비 교육, 자부담 1인당 3만5천원
- 도시민 상담 및 교육 운영 : 연 3회(3, 6, 9월), 무료 교육 제공
- 귀농 농촌학교 운영 : 연 4회, 농촌 적응 및 실용 기술 관련 무료 교육 제공
- 귀농귀촌 창업 보육학교 운영 : 농촌 정착 및 적응 관련 무료 교육 제공
- 영농정착 교육 제공 : 연 8회(7~9월), 40여시간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이웃주민초청 프로그램 지원 : 가구당 30만원
- 동아리 지원 : 모임별 2백만원
-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당 500만원
- 체재형 가족농원 지원 : 체재동, 텃밭 등 임대 연 250만원 이상
- 소규모 마을조성 사업 : 1가구 이상 마을 조성 희망자 대상 1,500~1억8,000만원
- 주택 및 농지 정보 안내 지원
- 멘토 컨설팅단 지원

전라남도

- 광양**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최대 50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 연수생 최대 80만원/월, 선도농가 최대 40만원/월
 -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제공

- 나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정착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한 세대당 2,000만원(50% 보조)
 - 우수귀농인 농산물 품질 개선 지원 : 세대당 2,000만원(50% 보조)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3~7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순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이웃주민 초청행사 : 개소당 50만원 이내
 - 전원생활 대학 운영 : 무료 교육 제공

- 여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인 농업 생산기반 지원 : 세대당 2,000만원(50% 보조)
 - 귀농 정착금 지원 : 1년간 세대당 360만원(30만원/월)

- 강진**
- 귀농 정착 보조 지원 : 세대당 최대 1,500만원(50% 보조)
 - 주택 수리 보조 지원 : 세대당 최대 500만원
 - 강진 귀농사관학교 운영 지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고흥**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1백만원 별도)
 - 귀농인의 집 조성 : 개소당 3,000만원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5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 제공
 - 농업배움터 귀농귀촌 학교 운영
 - 농촌체험 팜투어 실시

- 곡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지원 : 세대당 최대 600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3~7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시설하우스 임차지원 : 농가당 최대 50만원 지원

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600만원 한도(50% 보조)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한도(80% 보조) ·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 세대당 50만원
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3~7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2,000만원 지원(70% 보조)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동당 60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3~7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농업인 대학 귀농인반 운영 ·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50만원 1년 매월 균등 지급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개소당 500만원 · 귀농자 교육비 지원 : 1인당 30만원 ·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 440만원 · 귀농귀촌 박람회 및 지역축제 참가 홍보비 지원 : 연간 7회, 행사실비 지원 ·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1,000만원(50% 보조)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인 현지 융화 지원 : 세대당 5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연수생 40만원/월, 선도농가 20만원/월
영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인 창업농 지원 : 개소당 1,000만원(50% 보조)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신규 귀농귀촌인 홍보물품 제작 지원 : 세대당 50매 · 귀농귀촌인 인증 발급 : 1인당 1매 · 수도권 직거래 장터 참여 지원
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 장려금 지원 : 세대당 300만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 400만원 ·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관 운영

-
- 영남**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정착금 지원 : (2인 세대) 20만원, (3인 이상) 40만원
 - 빈집 수리비 지원 : 500만원 한도
 - 귀농 동아리 : 300만원 한도
 - 현장실습 지원 : 최대 5개월 연수생 80만원/월
 - 취득등록세 감면 : 귀농인 농지 취득시 취득등록세 50% 감면

-
- 장성**
- 영농정착 지원 : 세대당 2,000만원(50% 보조)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13년 이후 장성군 재전입한 세대당 5백만원
 - 우수 창업농 육성 지원 : 세대당 4,000만원(50% 보조)
 - 이주비용 지원 : 세대당 20~40만원
 - 삼시세끼 농촌체험 : 세대당 16만원
 - 현장실습 교육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 귀농인 3가구 이상인 마을당 1,000만원

-
- 장흥**
- 귀농어업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한도
 - 귀농어업인 창업자금 : 세대당 2,000만원 한도(50% 보조)

-
- 진도**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800만원(75% 보조)
 - 영농자재 지원 : 세대당 375만원(80% 보조)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625만원(80% 보조)
 -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원
 - 청장년 창농 지원 : 만50세 이하, 영농경력 만5년 미만 세대당 1,500만원(70% 지원)
 - 현장실습 교육 : 세대당 600만원

-
- 합평**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영농정착 지원 : 세대당 2,000만원(50% 보조)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3~7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예비 귀농인의 집 조성 : 세대당 3,000만원(50% 보조)
 - 소형 비기람하우스 설치 지원 : 개소당 600만원(50% 보조)
 - 소형관정 설치 지원 : 개소당 600만원(50% 보조)

-
- 해남**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인 농업 인턴제 지원 : 120만원/월(80% 보조)
 -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세대당 50만원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4,000만원(50% 보조)
 - 귀농정착 소득기반 조성 시범 : 공모형태로 진행, 세대당 3,000만원(70% 보조)
-

-
- 화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현장 실습교육 지원 : 3~7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인 정착지원 : 세대당 보조 300만원 한도, 소형비닐하우스 1천만원 이내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한도
 - 도시민 연착륙 적응 지원 : 세대당 40만원
 - 귀농인 농산물 판매장터 지원
 - 귀농인 동호회 지원
 - 귀농학교 운영지원
 - 농촌문화체험 체득프로그램
 - 귀농농업 전문교육
 - 귀농지원센터 운영
 -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 교육 제공
-

경상북도

-
- 포항**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사업 : 세대당 2,000만원(50% 보조)
 -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세대당 100만원
-

- 경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영농 정착 지원 : 세대당 1,000만원(자부담 50%)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3~7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

- 김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 정착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이내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인 인턴 지원 : 6개월간 100만원/월
 -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 화합행사 지원 : 50만원
 - 주택 신축·설계비 감면 지원 : 신축설계비 50% 보조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 1억원,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
-

- 안동**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 지원 : 농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연리 1%, (시설) 3년거치 7년상환, (운영) 2년거치 3년상환
 -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현지연찬 교육 : 멘토 40만원, 멘티 80만원
 - 귀농귀촌학교 운영 : 단기 및 심화과정 교육비 지원
 -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기술 교육
-

-
- 구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 영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 지원 : 농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인 학자금 지원 : 세대당 100만원 범위 내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430만원(자부담 130만원 포함)
 - 귀농귀촌 체험투어 운영
 - 귀농귀촌인 유치 박람회 참가
 - 농촌 빈집 및 농지 등 부동산 정보 제공
 - 이주 도시민 멘토링 지정 운영
 -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 운영
 - 귀농귀촌인 집들이 행사 비용 지원
 - 재능기부 활동 지원
 - 홍보 및 직판 행사 운영비 지원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건립 · 운영
 - 귀농인 현지 적응 선진기술 연찬
 - 귀농귀촌인 아카데미 운영
 - 귀농귀촌인 사랑방 운영
 - 귀농귀촌 현장 중심 영농기술 교육 운영

-
- 영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 정착 지원 : 농가당 500만원(80% 보조)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5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농기계 임대료 반값 지원 : 임대료 50% 할인

-
- 상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 지원 : 농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 정착 지원 : 농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농업 기반 시설 세대당 5,000만원, 연리 2%, 농업신용보증기금 보증
 - 주민 초청 행사 지원 : 가구당 집들이 비용 40만원
 -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1,000만원(50% 보조)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협력 소득 지원 : 10가구 이상 참여하는 마을회, 2천만원 이내 (80% 보조)
 - 소규모 전원마을 입주민 초청행사 운영 : 귀농귀촌 5가구 이상 집들이 비용 90만원
 - 소규모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지원 : 귀농귀촌 5가구 이상 시 마을 조성 지원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 마을회당 3,000만원 지원
 - 2018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 도시부문 대상 수상
-

문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정착 지원 : 농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인 소득 지원 : 세대당 700만원(80% 보조)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700만원(80% 보조) · 마을주민 초청 행사 : 세대당 50만원
경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 농어촌진흥 기금 지원 : 5,000만원 한도, 연리 1%
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300만원 · 농지구입 세제(취득세) 지원 : 세대당 200만원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5,000만원 이내, 연리 1%, (시설) 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 2년 거치 3년 상환
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 지원 : 농가당 500만원(80% 보조)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세대당 1,000만원(50% 보조)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5,000만원 이내, 연리 1% · 이사비용 지원 : (1인 가구) 20만원, (2인) 40만원, (3인) 60만원 ·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행사 지원 : 세대당 집들이 비용 30만원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 개소당 3,000만원 이내 · 귀농인 영농체험 현장학습 운영 : 운영농가 보상금 지원 ·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 의성 귀농투어 · 신규 귀농농가 영농기술 지도
청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정착금 지원 : 세대당 400만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300만원 · 농지구입 이자 지원 : 세대당 150만원 · 농지구입 세제 지원 : 세대당 200만원 ·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세대당 30만원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농가당 5,000만원 이내 · 귀농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 농가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영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50만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 5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

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농가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 (시설) 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 2년 거치 3년 상환· 정착 장려금 지원 : 1회 한정, 부부(2인) 전입시 100만원, 자녀포함 3인 이상 200만원
-----------	--

고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 세대당 3,000만원· 귀농인의 집 운영 : 단체당 1,200만원·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50만원· 귀농귀촌 환영행사 지원 : 세대당 50만원· 영농 정착금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6차산업 저변 확대 지원 : 세대당 1,000만원(70% 보조)·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3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 귀농인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지급·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 : 1일 4시간 교육· 귀농인 영농 정착 전문기술 교육 지원 : 1일 4시간 교육
-----------	--

예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영농기반 지원 : 세대당 500만원 이내(80% 보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이내(80% 보조)· 귀농인 맞춤형 코디네이션 지원 : 선도농가 10만원/월· 주민초청행사(집들이) 지원 : 세대당 50만원 이내·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 5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

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이내·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 : 농업경영 용도, 가구당 480만원·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300만원 이내· 귀농인 정착 지원 : 영농규모 확대, 농기계 구입 등 보조금 용도, 가구당 400만원
-----------	--

칠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농가당 5,000만원 이내, 연리 1%·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세대당 분기별 23만6천원
-----------	--

성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 5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울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80% 보조)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 농가당 5,000만원, 연리 1%, (시설) 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 2년거치 3년상환

경상남도

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농기계 지원 : 세대당 300만원(50% 보조)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 개소당 600만원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통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375만원, (교류협력) 600만원
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 3~7개월 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세대당 375만원
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375만원, (교류협력) 600만원
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375만원, (교류협력) 600만원 · 귀농인 영농비 지원 : ha당 150만원 · 귀농인 시티투어 경비 지원 · 지역주민 초청 경비 지원
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375만원, (교류협력) 600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자금 375만원
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 개소당 3,000만원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농가당 375만원

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375만원, (교류협력) 600만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 개소당 2,000만원· 귀농 정착 지원 : 개소당 600만원(50% 보조)·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 개소당 3,000만원· 귀농귀촌 기초생활 기반조성 지원 : 개소당 5,000만원·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창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영농 정착금 : 세대당 700만원· 영농 자재비 : 세대당 100만원· 귀촌인 전입정착 텃밭 가꾸기 : 세대당 50만원· 귀농귀촌인 전입정착 집들이비 : 세대당 20만원· 신규 귀농인 휴경 농지 정비 지원 : 세대당 500만원· 현장실습 및 멘토링제 : 연수생, 선도농가 각 30만원/월(8개월 한도)· 도시민유치 농업교육 수강료 지원 : 1명당 50만원(자부담 20만원 포함)· 영농정착 안내 도우미 운영 : 상담횟수 1건당 5만원(단, 동일인 제외)· 귀농귀촌인·주민과의 화합 한마당 : 개소당 500만원· 스스로 집짓기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 1명당 수강료 30~50만원 지원·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375만원, (교류협력) 600만원· 귀농인 영농비 지원 : ha당 150만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지원 : 1회당 5만원
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375만원/농가, (교류협력) 600만원/마을· 귀농 세대 지원 : 세대당 500만원· 귀농협의회 활동 지원 : 개소당 400만원· 귀농인 영농비 지원
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턴 지원 : 교육비 120만원(80% 보조, 20% 자부담)·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 교육비 120만원(자부담 40만원 포함)·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 세대당 영농희망 지원비 50만원, 영농자재 구입보조비 50만원· 주민초청 비용 지원 : 세대당 50만원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안정(영농) 정착 지원 : 세대당 3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귀농 코디네이터 지원 : 1회, 4만원 지원· 귀농 홈스테이 지원 : 3만원/일

-
- 남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남해에서 100일간 살아보기 : 3일 홈스테이 체험, (1인) 무료, (2인 이상) 식대 분담
 - 귀농인의 집 운영

-
- 산청**
-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세대당 400만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
 - 영농 정착기술 교육 : 무료 제공
 - 귀농 현장실습 지원 :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관내 전입 축하 기념품 전달 : 세대당 10만원
 - 귀농귀촌 홈스테이 지원 : (단기, 5일 이내) 3만원, (장기, 1개월) 30만원 정도
 - 귀농귀촌 안내 도우미

-
- 거창**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세대 영농 정착금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세대당 375만원
 - 귀농인턴제 지원 : 1인당 80만원(자부담 40만원 별도)
 - 귀농 영농비 지원 : (벼농사) 1인당 15~75만원
 - 귀농인 멘토링 지원 : 회당 5만원
 -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 개소당 1,500만원
 -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 연간 500만원
 - 귀농인 연합회 운영 : 750만원
 - 귀농귀촌인 지역주민간 화합 행사 운영
 - 도시민 유치 현장 상담실 운영
 - 귀농귀촌인 영농 대학 운영

-
- 합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신규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 세대당 1,000만원(70% 보조)
 - 신규농업인 주택 수리 지원 : 세대당 500백만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 가구당 (시설확충) 375만원, (교류협력) 600만원
 - 귀농 영농비 지원 : (벼농사) 1인당 15~75만원

제주도

-
- 제주**
- 귀농귀촌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400만원(50% 보조)
 - 귀농인 농업창업 현장실습 지원 : 현장실습수당 80만원/월
 - 귀농인의 집 지원 : 세대당 3천만원

-
- 서귀포**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2018년 지자체별 청년층 귀농귀촌 지원정책

강원도

- 삼척** · 귀농인 정착 지원 : 20~40세까지,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 인제**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50세 이하,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최대 3억원
· 청년 취업농 지원 : 45세 이하, 법인 및 청년농 300만원 지원
- 홍천**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된 20~45세,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세대원 2인 이상 귀농인
- 횡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만20~45세 이하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월

충청남도

- 천안** · 청년창업 안정지원 : 40세 이하, 10개월간 96만원/월
- 공주** ·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지원 : 20~40세 이하, 2천만원 보조(자부담 30%)
· 영농준비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18~40세, 12개월간 80만원
- 보령** ·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18~40세 이하, 10개월간 96만원/월
- 아산** ·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18~40세, 12개월간 80만원
- 서산** ·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18~40세, 9개월간 100만원(1개월 시, 60만원/2명)
- 당진** ·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18~40세 이하, 10개월간 96만원/월
·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 영농기반 조성 사업비 1억원/인 이내
· 청년농업인 창업 아이템 공모 : 창업 자금 7,000만원 이내
·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시범 : 영농기반 조성 사업비 7,000만원 이내
- 금산** ·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 40세 이하 창업 추진비 80만원/월
·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예비 창업실행비 개소당 1,000만원
· 청년 창업농 인턴 지원 :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80만원/월
· 청년 농업 창업교육 : 만40세 이하 창업 기본 및 전문 교육 제공
- 부여** · 2030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세대당 2천만원(50% 보조)
·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40세 미만 9개월간 80만원
· 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 9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준비 청년창업 안정지원 : 10개월간 96만원/월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 : 9개월간 훈련비 80만원/월
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준비 청년창업 안정지원 : 생활자금 96만원/월
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준비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18~40세 미만, 96만원/월 초보농부 플랫폼 교육 지원 : 만18~40세 미만, 80만원/월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 5개월간 연수생 80만원/월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18~40세 미만, 96만원/월 청년농부 예비 프로그램 : 만18~49세, 개소당 2,900만원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 : 만18~49세, 개소당 900만원 농촌형 일자리 교육 제공 : 만18~49세, 개소당 900만원
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인 정착기반 조성 : 이주 2년 이내 만 49세 이하, 1개소 2,000만원(70% 보조) 청년창업 안정지원 : 만18~40세 미만 1인, 9.6개월 간 10만원/월

전라북도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만19~45세, 영농경력 5년 이내의 귀농인 세대당 500만원 지원
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 우수 4-H회원, 신기술 육성, 세대당 5,000만원(50% 보조) 청년 4-H시범 영농 지원 : 우수 4-H회원, 농장 창업, 세대당 1,000만원(70% 보조)
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교육 이수자 대상 교육, 컨설팅, 사업비 지원
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 공동체 육성 : 개소당 1,000만원 이내(자부담 5%) 청년 인턴 사업 : 공동체당 100만원 지원(자부담 32만원) 청년 쉼어하우스 : 1인당 10만원/월
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0세대 농업인 이자 지원 : 만49세 이하 귀농 창업 융자금 이자 2년, 200만원/년

전라남도

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개소당 최대 2,500만원
-----------	--

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후계인력 영농기반 조성 지원 : 영농경력 1년 이상, 농지를 보유한 만20~39세 이하 청년농업인, 개소당 1,000만원
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 육성 : 만18~40세 미만, 최대 2억, 연리 2% · 학사 농업인 육성 : 만18~50세 이하, 최대 2억원, 연리 1%
고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농장 육성 지원 :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장 대상 시설하우스(500평↑) 임대료 2,500만원 ·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지원 : 경영체당 2,000만원(자부담 20%) ·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 대 2억, 연리 2%
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농장 육성 지원 : 개소당 2,500만원 · 청년농업인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 만19~49세,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농가당 4,000만원 이내
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1인, 연간 1,480만원
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 만18~40세 미만, 개소당 3,000만원(70% 보조, 30% 자부담)
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 영농4-H회원, 1,500만원(70% 보조, 30% 자부담) ·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지원 : 만18~39세 이하, 경영체당 2,000만원
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1인당 1,480만원 ·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 개소당 3,000만원 ·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 : 영농경력 1년 이하, 개소당 농지·시설 임차료 등 2,500만원 ·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 생산기반 개선, 신기술 도입 등 개소당 1,050만원 ·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지원 : 시제품 개발, 브랜드화 등 개소당 2,000만원 ·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 영농기반 조성, 제품개발, 운영자금 등 개소당 1,400만원
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 창농지원 : 만50세 이하, 영농경력 만5년 미만 세대당 1,500만원(70% 지원, 30% 자부담)

 **경상북도**

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귀농 인턴 지원 : 40세 이하 청년 귀농인, 9개월 농업 행정기관 근무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리더 창농자금 지원 : 대학(원) 졸업 후 4년내 청년농업인 창업비용 세대당 1,000만원

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 : 영농정책 및 창업 비용 3년간 1,500만원(500만원/년)
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 멘토 50만원/월, 멘티 100만원/월 2030 리더 창농자금 지원 :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농업인 창업비용 세대당 1,000만원
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농가당 2억원, 연리 1%, (시설·운영) 3년 거치 7년 상환
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농업인재 창업 지원 : 신규창업농 대상 4,000만원 이내(50% 보조)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 10개월간 100만원/월 서울농장 조성사업 : 폐교 개조하여 도시민 장·단기 체류시설로 농촌체험관광, 귀농 준비 공간 등으로 조성 청년농랜드 조성사업 : 폐교 개조하여 청년층 대상 체류시설 및 시범농장으로 운영하여 농업창업, 사회적기업, 지역활력사업 창업공간으로 조성
문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농업인재 양성 창업 지원 : 농고·농대 졸업한 40대 이하 청년농업인 세대당 60만원 지원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 대학 졸업 예정/졸업 2년 이내 예비 농업인 대상, 50일 한도 훈련비 (멘티) 4만원/일, (멘토) 2만원/일 청년 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농가당 50만원, 연리 1%
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 대학 졸업 예정/졸업 2년 이내 예비 농업인 대상 훈련비 개소당 1,500만원 2030 리더 창농자금 지원 :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농업인 창업비용 개소당 1,000만원
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내기 귀농인 지원 : 세대당 2천만원(80% 보조)
청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 대학 졸업 예정/졸업 2년 이내 귀농(예정) 연수생 4만원/일, 선도농가 2만원/일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농가당 2억원
영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 대학 졸업 예정/졸업 2년 이내 귀농(예정) 연수생 100만원/월, 선도농가 50만원/월
성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 대학 졸업 예정/졸업 2년 이내 귀농(예정) 연수생 5개월간 100만원/월, 선도농가 50만원/월
철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리더 창농자금 지원 : 만18~29세, 농민사관학교 수료 및 대학 졸업 4년 이내 청년농업인 1,000만원

예천	·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	--------------------

울진	·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 대학 졸업 예정/졸업 2년 이내 귀농(예정) 연수생 5개월간 100만원/월, 선도농가 50만원/월
-----------	---

 **경상남도**

창원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	------------------------------

진주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

밀양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	------------------------------

거제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	------------------------------

의령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만 40세 미만,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

창녕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	---

하동	·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만 40세 미만, 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 2030 영농후계 세대 기반 지원 : 4,000만원(50% 보조, 50% 자부담)
-----------	---

산청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	------------------------------

거창	· 귀농 인턴제 : 세대당 80만원(자부담 40만원 별도) · 귀농세대 영농 정착금 : 세대당 500만원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세대당 100만원
-----------	---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 7

촌에 살고 촌에 웃고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전화 1899-9097
홈페이지 <https://www.epis.or.kr>
편집·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식회사
표지 캘리그래피 권도경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려면 우리 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